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회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마다 거래실적만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회장 노태웅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1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1 호

신도수행 종책 수립

조계종 '신행체계화 자료집' 펴내
위빠사나 · 동사섭 등 자세히 소개

"신도 수행없이 한국불교 내일 기대하기 어렵다"

재가불자들에게 필요한 화두선을 비롯한 각종 수행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조계종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는 '재가불자 신행체계화 연구자료집'과 〈신행체계화 연구보고서〉를 펴내고 8일 중앙종회 보고를 통해 수행 및 신행체계화를 종책화하기 위해 실행방안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년여의 준비를 거쳐 펴낸 이 자료집에는 '수행의 체계와 방법'을 담아 교리학습과 행사참석 위주였던 신행풍토가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교원의 '96년 사찰 포교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59곳 사찰 가운데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수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찰은 3곳(5.1%)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포교분과위는 〈수행의 체계화 방안〉을 단행본으로 출판, 교리서인 〈불교입문〉과 함께 재가불자 수행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자료집에는 한국불교의 수행법인 화두선을 비롯 염불 간경 주력은 물론 지금까지 소승불교권의 수행법이라며 외면돼온 위빠사나 동사섭 아봐타코스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수련체험담도 실었다. 이같은 수행법을 조계종단 공식기관인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에서 채기해 참선 염불선 이외의 각종 수행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참선은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수행법의 채택은 참선위주의 한국불교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행지도자 양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은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만이 올바르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다양한 수행법의 채용을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산사의 김장 겨울철 사찰의 반양식인 김장. 동안거결제를 사흘앞둔 11일 대구 팔공신 선방 부도암(주지 동호) 수좌 40여명은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우를 깨끗이 씻어 하루전 쑨 찹쌀풀에 갓, 청각, 고춧가루 등을 버무려 어른 키만한 대형김장독 10개를 가득 채웠다.

사찰 기여도따라 입장료 수입 지원

국립공원내 사찰들이 공원 기여도에 따라 문화재 수리 보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개정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내무위는 13일 상임위에서 자연공원법 제33조 3항을 신설, 공원내 사찰의 기여도에 따라 입장료 수입 지원을 명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조계종과 내무부 문체부가 합의한 국립공원 입장료 관련 합의사항 제2항에 따른 조치다.

조계종, 선학원문제 '초강수'

교육혜택 중단등… 월주스님 "일도양단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은 4일 선학원측에 현안문제에 대한 종단방침을 알리는 통보공문을 발송했다. 총무원은 공문에서 "96년 8월 27일 조계종과 선학원 대표자간의 공동합의문 발표는 문제해결의 전환점이 되었으나 귀법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귀법인과의 수습문제를 지연시킬 수 없어 종헌 제9조3항의 정신과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총무원장 월주스님도 8일 중앙종회에서 "선학원 문제를 이제는 일도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종회의원들도 "선학원 소속 승려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교육혜택등을 이제 철저히 차단해야하며 관련 조계종 승려들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총무원이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승려와 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종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학원은 조계종의 공문을 접수하고 오는 20일 아산에서 열리는 이사회와 전국분원장 회의에서 조계종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김 양 일

구업을 벗어나게한 아내

벌써 11년 전의 일이다. 험한 길 모르고 순탄하게만 지내온 내 삶에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은 엄청난 불행과 좌절 그 자체였다. 내 일상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당시 나는 다른 같이 보이지 않았다. 사장의 만류도 뿌리치고 직장(KBS홍보위원)마저 그만둔채 자학과 절망에 빠져 두문불출했다.

어느 순간, 한번도 밖을 디뎌본 적이 없는 그 좌절의 늪에서 외부와의 모든 것을 끊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예고도 없이 닥친 아내의 죽음은 내 삶의 포기를 선고하듯 나 역시 죽음만을 기다리는 참담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3년을 보냈다.

그러나 불현듯 아내가 가고, 남은 사람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가족들이 있었고 가버린 아내에 대한 나의 참회가 남아있는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참회하는 가장 큰 것은 거침없이 내뱉었던 칼날같은 말들이다. 내 사람이라는 건방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무심코 혹은 분노와 화를 품고 함부로 토해낸 엄청난 말들로 아내는 20여년을 아픔과 쓰라린 상처를 안고 묵묵히 살았던 것이다. 가정화합을 제일 덕목으로 여겼던 아내는 지금 생각하면 '인욕보살'이었다. 한(漢)자조차도 품을 모르는 아니 생각조차 안했을 아내는 결국 죽어가면서까지 또 나를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아내의 죽음이후 나는 불심이 깊어졌고 무엇보다 진실로 말을 삼가하고 있다. 결국 신(身) 구(口) 의(意) 삼업 가운데 구업만큼은 덜 짓고 있는 셈인데 모두 아내 덕분이다.

부처님께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의 말과 행동으로 귀족이 된다고 했다. 나 역시 그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에 더욱 더 간절한 바람인지 모른다.

지난 7월, 내게 첫 손주가 생겼다. 하루 종일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백일된 손주를 보고 있노라면 재롱의 기쁨도 잠깐, 연년생을 혼자 키우면서 고생했을 아내 생각에 그저 가슴이 시려올 뿐이다.

(울산광역일보 사장 · 수필가)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늦가을의 고즈넉한 정취가 완연한 11월에는 운주사의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찾아 누운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세상이 바뀐다는 민중들의 바람(願)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운주사의 탑과 불상들은 여느 사찰의 탑, 불상과는 달리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면 1칸 측면 1칸에 3층모탑 모양을 하고 있는 쌍봉사 대웅전의 고풍스런 모습과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첫손으로 꼽고 있는 참감선사부도탑의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케 합니다.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11월 테마여행 - 운주사 · 쌍봉사

■ 참가 안내

◇출 발: 11월 22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조식제공)
◇안 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신정호)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제주도)
◇일 정: 12월 13~14일(1박2일)
◇장 소: 법화사지 · 관음사 · 약천사 · 삼성혈 · 목석원 · 용두암 등
◇동참금: 135,000원
◇인 원: 40명(선착순)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 접수도 함께 받습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두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 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중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성보관리 새사업 '난망' 7면
소설 '수미산' 연재를 마치고 14면
교계 실버타운 잇따라 개관 23면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 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베푼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환경 상큼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결로 방지 · 균열 방지

위생 철결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냉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및 치료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살펴서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송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3. 늘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며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지십니다.

● 배게(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예술가, 예술가)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폐실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등을 없이 한다.
4. 목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 냄새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특)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행운의 건강석, 난초 · 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체로 운동 과정인, 9.36 마이크론의 체로 활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체로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 · 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 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뉴시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BIO LUX 새로나광업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 12번지
TEL : (02) 737-0695
(0373) 73-2341~3
(053) 422-6661~2

사 설

선학원과 최후통첩

대한불교조계종 재건의 산실인 선학원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 개혁회의의 출범과 함께 개정된 종헌 종법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선학원이 산하 법인체로서 여러 가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학원 측의 반발로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94년 11월28일에는 중앙종회에서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학원 측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지만 근본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96년 8월에는 양측 대표자간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어 문제해결의 전환점이 되었으나 그후 실무협의팀에서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했다.

지난 4일에는 총무원장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종헌 종법의 정신과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최후 통첩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정기 중앙종회에서도 총무원장은 이제 더 이상 선학원 문제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 안에서의 심한 내부적인 갈등을 지켜보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하다. 분종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둘로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양측이 사심을 버리고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분규의 모습으로 끌고가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님 정신과 조계종지의 뜻을 받들어 양측의 화합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자. 역사적으로 선학원은 일제 탄압이 극심하던 때에 선풍을 진작시키고 한국불교의 맥을 지키기 위해 불교지도자들에 의해 탄생되었다. 해방 후에는 정화불사와 조계종 재건의 산실이었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뿌리로서 한국불교를 발전시켜 왔다.

지금 한국불교는 자체 개혁을 통해 불교중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때이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신적 지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불교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둘째, 조계종 종지를 받든다는 의미는 조계종의 종헌 종법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다만 그 종헌 종법의 해석과 적용은 문자에 집착함이 없이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학원은 역사가 깊고 재단법인이라는 법적지위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은 민법을 비롯하여 각종 세간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재단법인이지만 그에 앞서 부처님법 안에서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 점을 양측은 깊이 인식하면서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너무 규정에 노예가 되고 형식논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쌍방의 양식과 불심으로 서로서로 등불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존중해 주면서 점차적인 물적·인적 교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종단의 활동이 부처님의 정신에 따라 여법하면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양측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 서로의 갈등을 씻고, 한국 불교의 중흥에 힘을 합치길 우리 불자들은 서원하고 있다.

조계종 내년예산 204억원

종회 심의확정 관람료법 개정… 법인실태 조사키로

1일 개회됐던 조계종 제129회 정기중앙종회가 내년 종단예산 2백4억9천만원을 심의 의결하는등 총17건의 안건중 12건을 처리하고 11일 폐회됐다.

이번 종회에서 심의 통과된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은 중앙종회, 교육원, 포교원을 비롯한 각부서의 비정규직 급여가 대폭 삭감됐으며 종립선원과 지방승가대 보조금, 군법당건립지원금은 소폭 증액된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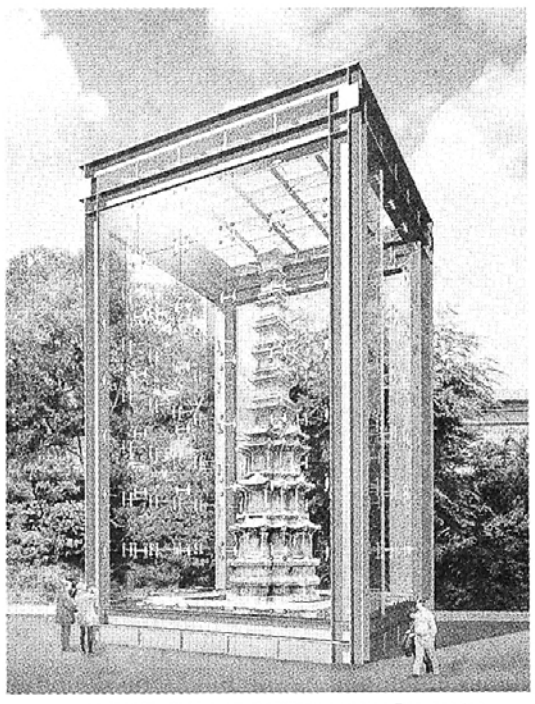
상정된 종법 제개정관련 7개의 안건 가운데 유일하게 심의 통과된 관람료 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관람료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규정한 제4조2항 부분으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 또는 총무원장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조계종이 출연한 학교법인과 복지법인의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도 이번종회의 수확으로 꼽힌다. 또 종법제개정 특위를 일단 해체하고 정휴, 성문, 법등, 정우, 영담, 영배, 종광스님을 위원으로 재구성했다.

중앙종무기관 감사보고에서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은 "9월말 현재 전국 본사 가운데 포교국장이 공석인 본사는 5개이고 타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는 본사도 적지 않다"며 이에대한 포교원과 총무원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다.

총무원 종무보고에서는 성보도난 사찰의 주지에 대한 책임문책과 인사고과에 적극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이와관련 호법부장 성관스님은 "금년들어 성보를 도난당한 주지 7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관람료 문제와 관련 종회는 '국회가 이번 회기중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공원입장료 가운데 사찰기여도에 따른 문화재 수리 보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원 종무보고에서는 현진스님이 "중앙승가대와 지방승가대학 4학년 과정에 포교실습 과정을 설치해 일선포교당에서의 포교실습을 학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장 향적스님은 "이미 은해사 승가대학원과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전체 승가대학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포교원 종무보고에서는 농어촌 포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임연태 기자〉



◇내년 11월 완공될 원각사지석탑 철골보호각 조감도.

원각사지 석탑에 철골보호각

서울시 내년 11월 공개
내부온도 자동조절 가능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이 특수제작된 철골 유리 보호각에 모셔진다.

서울시는 7일 산성비·매연·조류 배설물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석탑에 내년 11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골보호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탑을 현대식 철골구조물로 보호각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 문화재 보호각 설치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각은 전·측면 8.4m, 높이 14.4m, 두께 12㎜의 특수강화유리로 만들어진다. 시야 장애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처럼 투명하게 트인구조로 이루어지며 좌우측과 뒤쪽에 환기창을 설치해 내부공기가 일정온도에 다다르면 감응장치가 자동개폐돼 실내온도를 조정하게 된다.

"범패·작법무·탱화등 의례 중요사찰별 특화보존하자"

범음 범패 작법무 탱화 공예 등 불교의례 가운데 하나씩을 중요사찰별로 보존 육성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시설케 해 불교의례의 원형보존과 계승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교장 인묵)가 12일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가진 '한국종교의례의 현황과 과제'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정각스님(불전국역연구원)은 "불교의례의 목적은 적합한 규범의 실행과 우리 자신의 길들임을 통해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허망한 열정을 가라앉힘으로써 해탈을 추구한다는 불교수행의 방편이고 이것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는 연희의 성격을 띤 종합예술"이라 설명했다.

정각스님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무용·무대예술·미술·공예 등이 총망라된 불교의례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각 항목별 전수자들을 지정하여 그 맥을 잇도록 해야하며 중요 사찰별로 불교의례 가운데 하나씩을 보존, 육성케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시설케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종교지도자協 사단법인 인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월주)가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10일 문화체육부에 법인설립 신청서를 냈다.

종교지도자협은 또 각 종파별로 △다종교 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대사업(불교) △종교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원불교) △윤리 도덕성 회복등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유교) △건전사회활동의 확산및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개신교) △청소년 계도와 육성을 위한 사업(가톨릭) △통일대비 민족동질성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천도교)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민족종교연합) 등 사업을 설정했다.

석굴암 불국사·한글등 한국문화 CI 확정

한국문화를 대표할 통합이미지(CI) 휘장이 확정 발표되었다. 문체부는 12일 석굴암 불국사를 비롯 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 등 CI 대상별로 10개의 디자인시스템을 발표했다.

"종교정책 편향적" 97.5%

대구BBS, 지역스님 설문 "대통령의 종교생활" 82% 긍정

대구경북지역 스님의 95.7%가 현정부의 종교정책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8.6%가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사찰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대구방송이 개국1주년 기념으로 11월1일부터 3일까지 불교대구방송의 가청권에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조계종 사찰과 해인사소속의 스님 1천7백90명(모집단)중 1백89명(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치의식일반'과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의식' 및 '불교정책에 대한 의식' 등 3개범주 20문항에 걸쳐 실시됐다.

스님들은 대표적인 종교편향 사례로 군대에서의 특정종교강요(50%), 공무원시험의 평일실시(25.3%), 특정 종교지도자의 잦은 청와대방문(13.7%), 불교방송망 확충의 어려움(11%)등을 꼽았다.

국정책임자의 종교생활을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교생활 보장(69.9%)' '사적인 종교생활 전적으로 허용(12.4%)'으로 나타나 국정책임자라 할지라도 종교생활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단합에 영향을 끼치므로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7.5%에 불과했다.

"종교교류통해 북한변화 유도"

국제불교 통일세미나서 도안스님 주장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종교교류와 협력이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혜스님)는 12일 아산 그랜드 파크호텔에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불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도안스님(LA 관음사주지), 재일본 한민족불교총연합회 명예회장 태연스님(일본 보현사 관장), 조계종중앙신도회 김한곤 부회장(북한경제포럼 이사)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도안스님은 '해외불교인이 한반도통일에 기여해야 할 역할과 한민족의 화해 협력문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종교의 활성화 뿐이다"고 전제하며 "남북한간의 종교협력은 북한사회를 개방화하고 민주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요

북·한·동·포·돕·기

'97 광주불교합창예술제

사생의 자부하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무명속에서 헤매이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 세계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서원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1997년 11월 30일 (일) 오후 5시
◈ 장 소 : 광주남도예술회관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 관 : 사암연합합창단, 향림사, 화엄사 증심사, 한마음선원, 선덕사
◈ 후 원 : 불교광주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북지사



■ 특별출연 ■
· 정율스님(이리 원광대 음악학과 재학중)
·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 김용철(국악인) : 한량무
· 박초향(국악인) : 장타령

● 문의전화 ●
062)376-3224(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5-9986(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1997. 11.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상 명 합장

정축년 동안거 결제 방장법어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머리 둘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죽은 자다

오늘 이 자리는 정축년 동안거를 맞이하여 베풀어진 자리입니다.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함이라. 머리 둘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죽은 자다.

그런데 독사를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아는 이가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이 독사를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이가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시오?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더욱 더 의아증이 납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라야 불가에서 말하는 업장이 다 소멸된 사람이입니다. 즉, 생사를 초월한 사람을 말함이라.

只者箇頭弄傀儡 (지자붕두롱괴뢰)
抽牽全籍裏頭人 (추견전적이두인)
只此更無回辟處 (지차갱무회벽처)
森森頭角盡不成 (삼삼두각화불성)
只有文殊知此數 (지유문수지차수)
前三三與後三三 (전삼삼여후삼삼)
紫金光聚照山河 (자금광취조산하)
天上人間意氣多 (천상인간유기다)



서옹스님
〈고불총림 방장〉

한 시냇물은 본래로 마음이 없음이라

僧問雲門하되
樹凋葉落時如何오
雲門云體露金風이라

着語

一溪流水本無心
月出蘆花照雪明
普天雖地生清風
且聽石女鳴已歌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물었다.
"나무가 메마르고 잎새가 질때면 어떠합니까"
"가을 바람에 완전히 드러 났느니라"

착어

한 시냇물은 본래로 마음이 없음이라
달이 나옴에 갈대꽃은 눈을 비쳐 밝도다
하늘에 널리 땅에 두루해서 청풍이 일어남이라
또한 돌 계집이 파촉노래 부름을 들음이로다



법전스님
〈해인총림 방장〉

대천세계 모두가 한터럭 끝일세

(良久 후)

누군가 이 산승에게 와서 이 종번화두를 물어온다면 이렇게 대답해 줄것입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또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라."

風幡是心更何言고
六門休歇古今佛이라.
若立絲毫면 仍舊隔이라.
大千沙界一毛端이로다.

바람과 깃발이 마음인데 무슨 말을 더하랴.
여섯 문을 닫으란 말 옛부터 전한다네.
털끝인들 인정하면 종전대로 막히나니
대천세계 모두가 한터럭 끝일세.

억(喝)!

수요 인터뷰

한국불교학회 13대회장 김인덕 교수

"응용불교학 발전 기초 다질터"



6일 열린 한국불교학회 제23회 총회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불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오랜 연륜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불교학회가 지난 1973년 창립된 이래 첫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김인덕교수(동국대 불교학·63)를 만났다.

- 새 회장으로서의 소감은.

▲선임 회장들처럼 한국불교학의 최대 산실인 불교학회의 25년 전통을 잇고 한국불교의 주체성을 지키는 일꾼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 임기동안 추진할 역점 사업을 밝혀주십시오.

▲무형의 불사를 하는 곳이 한국불교학회 입니다. 불사에는 장소, 사람, 재원이 필요하듯이 학회도 인재를 양성하고 발표의 장(場)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현재 2천만원이 소요되는 학회 운영비는 회비, 학술지 판매, 후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기동안 종단·불교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학회 학술기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국내 타종교학자와 해외 불교학자와의 교류를 늘려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 한국불교학회가 지역과 학연에 폐쇄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의 학자들이 학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6일 열린 제25회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한 8명중 4명은 타학문 연구자였습니다. 또 타학교 출신의 불교학자들이 이사·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학회 운영은 민주적입니다.

- 불교계 학술단체들의 주제 선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학술주제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외학자들과도 교류
'학회학술기금' 조성 노력

▲한국불교계에는 수많은 종단이 있는데, 각 종단의 종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입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지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관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종단의 요청이 있다면 '평가와 제언'의 장을 내년 춘계 학술회의에서 마련하고 싶습니다.

- 교계에 응용불교학 연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불교학은 불성과 열반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불교적 사유를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응용불교학 연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성숙된 불교학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대를 닦는데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종욱 기자

목어

'망신살'

지난 4일 MBC-TV의 PD수첩 3백회 특집 '석용산스님 이야기'는 불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성난불자들은 교계신문사마다 전화를 걸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불교신문 기자로 근무할 수 있느냐."

교계신문의 李씨 성을 가진 여기자들은 뜻밖의 수난을 겪어야 했다. 어쩌다 한번씩 간행되는 화보 잡지의 여기자와 석용산의 스캔들을 방영하면서 화면에 'OO불교신문 이OO기자'라고 내보낸 확인안된 자막이 화근이었다. 불자들은 오보라는 해명을 듣고도 화를 삭히지 못했다.

부처님을 모독하고 한국불교에 오물을 끼얹은 그 방송내용에 부끄럽기도 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을 것이다. 가짜승 일력의 행각이 불교이미지를 실추시키더니 다시 석용산의 이야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비록 불교의 참모습이 아닐지라도 공중파를 통해 쏘아대는 대형 망신살이 한번씩 들면 포교에 미치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두사건 뒤에는 공교롭게도 재산과 여자문제가 걸려있다. 법명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승적이 불분명한것도 공통점이다. 석용산의 경우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미승. 그러나 95년 박탈당한 것으로 총무원은 밝혔다.

부처님께서는 여자와 재물을 경계하라고 누누히 일어주셨다.

"차라리 불구덩이에 들어갈 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라"

"출가하여 세상의 쾌락을 탐해 사견(邪見)의 숲에 빠져든다면 무수한 사람을 큰 함정에 빠트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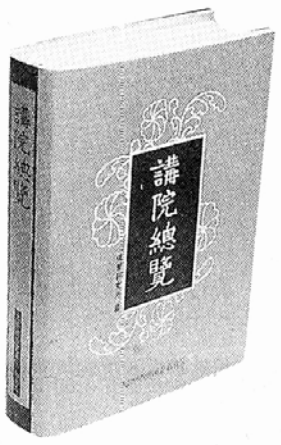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막행막식 승려들을 단속하기위해 조계종에는 호법부가 있다. 사미승이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어 큰스님 행세를 할때 호법부는 눈여겨 보았어야했다. 그 직무태만이 오늘의 망신살을 부르지 않았을까. 또다른 망신살의 눈이 어디선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 호법부는 승풍진작에 적극 나서야겠다.

소문에 의하면 MBC-TV는 불교소재의 PD수첩을 또 제작한다고 한다. 헛소문이길 바라면서 종교물을 다룰때는 흥미, 폭로보다 진지하게 접근해 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오보는 즉시 정정 사과할때 더 공신력을 얻는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승가교육백서 '강원총람' 발간의의

승가학풍 진작 획기적 자료

강원발전·강맥 등 총정리
옛강원 42곳 소개 '눈길'



1천6백년의 한국불교 전통승가교육의 가풍과 현주소를 담은 승가교육 백서 〈강원총람〉이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1천여쪽 분량의 〈강원총람〉을 선보였다.

승가교육 현주소를 통해 종단미래교육의 기초를 다진다는 취지아래 2년여 작업끝에 완성된 〈강원총람〉은 승가교육체계 확립과 교육방향 모색 및 연구를 시도했다. 총람은 전국 강원의 성립배경에서부터 발전과정, 교육방법과 수행, 교재와 학제, 강맥의 전승관계, 강원이 불교교육에 미친 영향 등을 담았다.

내용은 △강원개관 △사미 강원편 △사미니 강원편 △옛강원편 △역대 강사편 △부록 등 6개 목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별책부록으로 강원 졸업자 명단을 싣고 있다.

'강원개관편'에는 승가교육과 강원에 대한 5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이중 효탄스님(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의 '한국불교 강맥전등의 고찰'은 근·현대 강맥전승의 줄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강맥은 6.25이전 영호한영, 축원진응, 금봉병연의 3대강백과 진호석연, 퇴경상노 등 7대 강사로 불려진 대덕들로부터 출발했으며, 이중 한영스님의 강맥만이 현재까지 가장 뚜렷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양사, 동학사 등 16개 강원을 소개하고 있는 '사미강원편'과 '사미니강원편'에는 각 강원의 역사와 역대강주 및 강사, 교과과정, 강원별 각종행사 등이 상세히 담겨져 있다.

구한말 이후 강원교육을 담당했으나 현재 강원이 아닌 사찰의 강원연혁과 관련자료도 눈에 띈다. '옛강원편'에서는 42개의 옛강원을 사찰 연혁과 함께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옛강원중 교학의 중심지였던 구암사는 화엄종주라 불렸던 설파대사를 시작으로 백파대사, 정관, 설두, 설유, 한영, 운기스님으로 이어지는 강맥을 자랑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경보, 청담, 운허, 이광수 신석정, 조지훈, 최남선 등이 한영스님 문하에서 배출된 인물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용사 강원은 연식정구경기, 서예·문예, 창작경연, 연극(목련존자) 등의 행사를 벌였었고, 대둔사 강원은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를 배출했다.

'역대강사편'에는 서산휴정 이후 현재까지 강원에서 강의를 한 강주 및 강사를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싣고 있으며, '부록'에는 조선시대 사원교육과 한국불교 근현대 강원연표, 강원교육관련 자료모음과 강사비명이 실려 있다.

교육부장 향적스님은 "〈강원총람〉발간은 전통강원교육이 점차 퇴색해가는 시점에서 학풍진작과 전통승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교육원은 〈강원총람〉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 보완하고, 내년부터 선원·율원총람 발간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줄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에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연등회가 마련한 불교지도자와 김대중총재와의 대화.

'불교지도자와 DJ 대화'

새정치국민회의 불자의원모임 연등회(회장 박상규)가 마련한 '불교지도자와 김대중 총재와의 대화' 모임이 8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원융종 종정 일공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김성초,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등 교계 종단대표자스님 16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는 김대중총재와 배종무 박상규 조성준 한영애 박찬주 추미애 정한용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대중총재는 이 자리에서 "불교방송의 지방국 추가 개국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자비 배우는 포교사 될래요"

가수생활 40년 맞아 장학금 전달 송춘희씨



"가수이기에 앞서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포교사로서 진실할 생각입니다."

'수덕사의 여승'이란 노래로 대중을 모았던 송춘희씨가 가수생활 40주년을 맞아 14일 조계사에서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18명에게 1,3백여만원을 전달했다.

"주위에서 40주년 기념행사를 언제하느냐고 하지만 교도소 군부대, 소년소녀가장들을 생각하면 기념행사는 할 수 없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85년 조계종 포교사로 임명된 송씨는 현재 매주 일요일은 군부대, 수·목요일은 교도소를 찾아 찬불가와 교리를 일깨워주는 법회를 하고 있다. 또 월·화요일은 해동불교대학에서 범패를 배우는 등 꽉찬 일주일을 보낸다. 이밖에도 짬짬이 불우이웃돕기 바로잔치를 열어 노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데도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한다. 6년째 백련장학회를 꾸려오고 있는 송씨는 "앞으로 회원을 확충해 장학회관을 건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춘희씨는 57년 11월 가수로 데뷔, 〈옥피리〉, 〈진정이라면〉 등의 히트곡 1천여곡을 냈으며, 현재는 군포교의 대모(大母)로 알려져 있다. 대중가수에서 불교에 푹빠진 법사의 삶을 살고 있는 송춘희씨는 환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교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교 차 로

키르키즈서 철학名博 학위



녹원 동국학원 이사장 스님은 14일 키르키즈공화국과 한국의 교류협력에 대한 공로로 키르키즈 국립민족대학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재 애호 청소년 표창



성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 스님은 10일 올 한해동안 문화재애호 활동을 펼친 모범청소년 46명에게 총재상을 전달했다.

소년가장등 42명에 장학금



현해 월정사 주지는 23일 평창군 관내 중·고교생 30명과 소년 소녀가장 12명에게 97년도 2학기 장학금을 전달한다.

동백 예술문화상 수상



이두 청주 관음사 주지는 15일 신문로 한글회관에서 시집 〈江心을 보며〉로 동백문화재단 주최하는 제17회 동백예술문화상(문학부분)을 수상했다.

한강서 입시기도 방생법회



도문 대각사 주지는 13일 한강 여의도선착장에서 대입 수험생 부모들을 위한 '입시기도 방생법회'를 가졌다.

유흥업소 회원 초청간담

선일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스님은 13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유흥업소협회 회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산재 활성화방안 논의



대운 영산재보존회장 스님은 12월 3일 봉원사에서 영산재 시연 및 전통사찰음식 시식회를 갖고 영산재의 관광자원 활성화방안을 논의한다.

원민사합창단 발표회

법흥 대구원만사합창단장 스님은 12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합창발표회를 갖고 찬불가와 민요연곡 20여곡을 음성공양 했다.

인도 전통민속무용 공연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21일 오후3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인도 전통민속무용'을 공연한다.

'불교문화재와…' 학술대회



류증민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불교문화재와 환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주 두타도량 개원



이선행 태고종 강원종무원 기획실장은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두타도량을 개원한다.

서울시 인터넷 자문위원 맡아



이정 경향신문 차장은 11일 서울시 인터넷 자문위원에 언론계 대표로 위촉됐다. 이씨는 서울시 PC통신 업무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한다.

'고지반야…' 윤독강의



권영일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장은 15일 경기도 광명시 흥덕사에서 〈고지반야바라밀다〉 제52회 윤독강의를 개최했다.

생활한복집 '강강술래' 개업



홍무홈 한국불교문화원장은 10일 인사동 143번지(대일빌딩 건너편)에 생활한복 전문점 '강강술래'를 개업했다. (02)723-3937

한국고고학회장에

김종철 계명대 박물관장은 8일 열린 한국고고학회 정기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교수는 98년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랑스런 신한국인' 수상



김묘주 여성불교연합회장은 내무부와 대통령비서실이 주관하는 '97 자랑스런 신한국인'에 선정돼 13일 청와대에서 수상했다. 김회장은 정신대문제와 여성들의 권익옹호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불청 전현직 임원 간담회



김장근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회장은 15일 대불청 활성화를 위한 前·現직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종단협 사무과장 맡아

김석오 前 조계종총무원 문화계장은 10일부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대원정사 사무국 부장 맡아



이병두 前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은 대원정사 법인 사무국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1일부터 출근했다.

전국 통일 순례단 모임



고영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15일 대전 대진정사에서 '민족화합통일정토를 위한 전국순례단' 모임을 가졌다.

한마음 충주시민 대법회

손석경 충주불교신도연합회장은 12일 충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마음 시민대법회'를 개최했다.

보륜사 응봉스님 입적

응봉스님(여주 보륜사 주지)이 10월 30일 세수 79세 법랍 50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설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통도사 벽암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다. 사리 24과 출현.

방송기술인상 수상



김종성 불교부산방송 운행부 차장〈사진 위〉과 신창현 불교방송 사원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조학동)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중계부분'과 'FM 제작부문'을 수상했다.

佛 원로시인 미셸드기 내한강연

민족문학작가회 초청…고은·백낙청씨 등 참석



프랑스의 대표적인 원로시인 미셸 드기 교수(파리 8대학)가 '시와 언어, 문화'라는 주제로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를 가졌다.

민족문학작가회의 국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3회 세계작가와의 대화에 초청된 드기 교수는 강연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고유언어는 순수하지 못한 언어이고 시쓰기란 순수하지 못한 언어의 변환 과정을 기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고은 시인의 '오류' '수마노탑'을 비롯 천양희 이영진 시인의 시낭송이 있었다.

한편 미셸교수는 11~12일 고은·백낙청씨와 함께 해인사를 참배했다.

〈연〉

주무르고…누르고… '지압 불심'

Focus

웬간한 마음으로 노인들의 발을 맨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3시 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한 칼국수 집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불교교양강좌를 수료한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발반사 건강용법을 시술하고 있는 것. 발바닥 전체를 주무르고 누르고 로션을 바르고 또 다시 주무르고 누르고를 반복한다.

발반사요법은 독거노인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 세탁봉사 미용봉사를 하던 同복지회와 노인상담전화가 주선해 7월부터 이뤄지고있다.

발반사요법은 노인들이 앓고 있는 신경통 관절염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피부접촉 과정에서 고충상담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한 봉사자는 시어머니에도 시술해 고부간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

봉사를 받은 노인들은 꿀차와 감자 고구마 등 간식까지 대접받는다. (053)784-3669

대구=이윤호 기자

소년가장돕기 어린이합창 발표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5백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9일 남도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제1회 어린이 불교합창발표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합창발표회에서는 '주인공이 무엇일까', '안에서 찾자', '선종관문 알아보세' 등 15곡을 열창했다. 특히 2부행사로 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청년합창단을 비롯 아빠와 어린이팀이 찬조출연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합창발표회에서는 5백만원의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모금돼 이달말 광주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지사=주용직 지사장〉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정토포교원 기사회 634,000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000원 △귀농운동본부 128,400원 △유애경 437,890원 △이종찬 150,000원 △최태련 100,000원 △유성현 100,000원 △최미숙 100,000원 △정경희 100,000원 △문순홍 100,000원 △정윤주 100,000원 △이근주 50,000원 △이 강 40,000원 △임재철 30,000원 △김종화 30,000원 △민중기 30,000원 △이청도 3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179,000원 △밥 한공기 나누기 운동 408,890원 〈12일 현재 총 859,631,298원〉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제 24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눈을 뜨자 •가슴을 펴자 •마음을 열자

■ 일시: 2541년 12월 6일(토) 17시 ~ 7일(일)
■ 장소: 경주조선호텔 (보문단지 內)

반갑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위해 힘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제2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부처님의 나라,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겨울 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연수회**로 『**겨울불교학교 활성화와 어린이 포교확대**』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어 알찬 연수회 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부대중은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어린이를 교육하는 깨어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가슴에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2541년 10월 좋은날

■연수회 특징
· 겨울불교학교 활성화와 어린이 포교확대를 꾀한다
· 부족한 감성교육을 사찰에서 접목할 수 있게 한다
· 지도자 친목을 도모한다

■동참금
5만원(지금품: 1박3식, 연수교재, 연구총서 1집, 포스터)
※군종병, 도서벽지 지도자 50% 본회지원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자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분

■미리접수 받습니다 (11월1일~11월22일까지)
우체국 계좌: 601310-0037877-11, 받는사람: 대불어(조중환)
※숙식 예약 관계로 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 의: ☎ (051) 808-4569~4570 FAX.(051) 808-4571
•PC통신 천리안 GO BOSAL 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주요연수내용

●부처님의 진리만이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간다	본회 회장
●겨울불교학교 이렇게 가르친다 · 테마가 있는 겨울불교학교 ·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 모범적인 불교학교 프로그램 소개	본회 기획실
●변화하는 교육 · 열린교육방향 · 감성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임 재 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 · 사찰속의 어린이 환경활동	이 지 범 〈조계종 총무원〉
●나는 누구인가? · 겨울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리극	고 영 인 〈교육학 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겨울을 이기는 심성놀이	김 한 섭 〈하나로REC기획 대표 「REC 대백과」저자〉
●찬불가 · 겨울로 엮은 부처님 노래 · 환경노래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정관 ■부총재 혜총 ■회장 철오 ■상임부회장 운성
■이사 영조, 덕진, 설봉, 해관, 심산, 무등, 지광, 혜성

우리 모임에선

부산MBC불교硏 창립

부산MBC불교연구회(회장 주홍식 심의국장)는 16일 오전 범어사에서 안병율 박정용 부회장, 김종환 총무 등 회원 68명과 가족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의 법문과 이용구 부산경남불교언론인협의회장(불교방송 총괄국장)의 축사, 범어사 합창단의 축가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회원들은 지역사회 불교 홍포에 앞장설 것을 서원했다.

지난 10월 9일 발기인모임을 가진데 이어 한달만에 창립법회를 가진 同회는 서울 부산에 이은 세번째 MBC불교연구회다.

성남산악회 하루찻집

성남불교산악회(회장 임선교)는 15일 성남시 단대동 하나다방에서 제3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었다. 이날 모인 기금과 5백여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은 12월 13일 2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각각 20만원씩 전달된다. 한편 同회는 12월 5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 대법회를 봉행, 장기기증 및 후원자도 모집한다. (0342)46-3871

금강경독송회 철야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 서울법당은 2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금강경〉 7독과 참회정진으로 공부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심을 다지는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한다. (02)742-0172

사회불교실천회 창립추진

(가칭)사회불교실천회(회장 진진욱)는 '인간방생 자연방생'이란 구호아래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할 창립회원을 모집한다. (051)868-0957

진주유적답사회 내달창립

진주불교회관(운영위원장 박감진)은 지역 불교유적을 답사하고 가꾸어 나갈 (가칭)진주불교유적답사회 회원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 선착순 40명 내외를 모집, 내달중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 (0591)747-0108

대구정법회 개금불사

대구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지도법사 설조스님)는 16일 오전 자체법당인 혜림원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금불사 회향봉불식을 거행했다.

전공벽 넘어 불법탐구 '동행'

탐방 부경대 불교교수회

지난 3일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는 능가스님(내원암 회주)을 초청한 법회가 열렸다. 이는 부산공업대학교와 수산대학교의 통합으로 탄생한 부경대학교의 1주년 행사와 부경대학교불교교수회 창립 1주년을 아울러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날 능가스님의 '21세기와 불교사상'이라는 주제 강연은 논리적이면서도 해박한 지식으로 불교사상을 전해 학생과 불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의 행사를 주관했던 부경대불교교수회(회장 하만경·기계설계학과)는 부산공업대에서 활동하던 불교교수회를 모체로 부경대학교로 통합되던 96년 8월, 50여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부경대불교교수회는 창립과 함께 10월 시민 교수 학생이 함께 하는 서암스님 초청대법회를 열고 힘찬 출발을 한데 이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수련을 위한 사찰순례법회를 두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오고 있다. 바쁜 연구활동중 어렵게 틈을 내어 마련하는 법회로 가깝게는 범어사 금강암에서 지리산 칠불사, 하동 쌍계사, 곤양 다솔사, 해남 대둔사, 무위사, 백련사 등지를 순례하며 108배 참회기도, 분임토론, 법문 등을 통해 수련과 정진에 노력해 오고 있다. 회원들은 이러한 법회를 통해 다져진 신심으로 불법을 생활속에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창립 한돌을 맞은 걸음마 단계의 모임이지만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 지정사찰과 법사스님 위촉, 개인별 연구테마에 따른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성지순례, 유적답사, 수계법회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하만경 회장은 "자신이 이룬 학문적인 지식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불법에 귀의한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활동을 계속한다면 작은 보시행을 할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고 나아가 큰 신심을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불교교수회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교육으로 미래의 젊은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질과 정신 조화시키는 교육 지향
지난해 창립…세미나·답사등 행사

부산=천미희 기자



◇부경대불교교수회 주관으로 지난 3일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열렸던 능가스님 초청법회.



한·중 황해문화대탐사 보고회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0일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지난 7월 항해를 마쳤던 한·중 합동 황해문화대탐사 뗏목항해탐사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석구(동국대총장) 보광스님(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 김준엽(대우사회과학원 이사장) 전해종(서강대 명예교수) 김문경(숭실대 명예교수) 정창복(해양경찰청장 비서실장) 이동범(해동화재 이사) 채바다(탐험가)씨 등이 참석했다.



불연 이기영박사 1주기 추모

불연(不然) 이기영박사 1주기 추모법회가 8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월주스님은 "한국 불교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이기영박사의 수행을 귀감으로 삼아 여법한 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이기영박사의 삶과 사색이 깃든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한국불교연구원 刊)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삼보사, 도리산 육지장사 기공

은평구 삼보사(주지 지원)는 8일 경기도 양주군 도리산에서 '육지장사 창건 기공 및 출세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무진장(前 조계종 포교원장) 법장(수덕사 주지) 혜광(법주사 주지)스님을 비롯 권익현(국회정각동우회장) 박찬주(국민회의)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2002년 완공 예정인 육지장사는 5천여평의 부지에 총32억원을 들여 대웅지장 본당, 설법전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불교 서예인협회 창립법회

서선일여(書禪一如)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묵향을 발현시켜갈 불교서예인협회 창립법회가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혜암(조계종 원로회의장)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법타(은해사 주지) 스님과 여초 김응현, 구당 여원구, 정하건씨 등 서예인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1만배 참회에 쌍인업장 저만큼"
하불동 70명 3천배·7명 1만배 회향

8~9일 무박2일간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 이하 하불동) 주최 3천~1만배 참회기도법회 현장. 3천배도 힘든데 1만배에 도전한 하불동 회원 10명(7명 완배) 등 60명의 회원과 20명의 일반 불자들은 억겁의 전생을 거치며 알게 모르게 지어 온 죄업을 참회하고 업장이 소멸될 것을 발원했다.



8일 밤 9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 마음을 정리하는 '좌선입정'을 시작으로 참회기도에 들어간 70명의 동참자들은 다음날 아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3천배를 마쳤으며, 선방에서 따로 용맹정진한 10명의 불자들도 대부분 1만배 참회기도를 무사회향했다.

하불동의 터줏대감들이 대부분 참여한 이번 법회에서는 장애불자인 진선화(40) 홍경자(33)씨도 3천배를 돌파해 주변의 놀라움을 샀다. 진선화씨는 "팔이 아파 2천5백번째 절을 할 때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내 마음의 때를 조복받고 싶어 끝까지 정진했다"면서 "그렇게 아프던 몸이 자고 나니 상쾌해 너무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

제주거사림 '불심심기' 활발
이웃돕기 일일식당·성도절 백일장 열어

16일 제주지역 거사림회 두 곳이 동시에 의미있는 행사를 벌여 눈길을 모았다. 제석사거사림회(회장 고천우)의 '불우이웃 돕기 일일식당'과 서귀포정토거사림회(회장 송두금)의 '백일장 및 부처님 그리기 대회'가 바로 그것.

제석사거사림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박광택회원이 제공한 신서원가든에서 제주시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40여명을 초청, '자비의 만남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일일식당을 열었다. 제석사 주지 종호스님과 지역 기관장, 불자 등 5백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보시했으며, 거사림회는 우리 메밀로 만든 국수와 빙떡(제주식 만두), 식혜, 밀감 등을 대접했다.

정토거사림회는 오전 10시 서귀포시 법화사 도량에서 지역 6개 초등학교와 4개 유치원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재일기념 백일장 및 부처님그리기 대회를 가졌다. 매년 성도재일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친근하게 가르쳐 미래의 훌륭한 부처로 키우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이번이 세번째.



◇9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광주불교산악회 자매결연법회가 열렸다. 사진은 금강계단에서 합동산행을 앞두고 기념촬영. 〈범어사=천미희 기자〉

동서화합 메아리 '하나로'
부산·광주불자산악회 결연

9일, 광주와 부산의 지역감정을 일소(一消)하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붉은 단풍의 함성이 와와 들려오던 금정산자락의 범어사에서 부산불교산악회(회장 이순득)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가 자매결연법회를 가졌던 것. 이날 자매결연은 세간에 번져있는 부산 광주간의 지역감정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는 자명한 진리를 앞장서 실천한 마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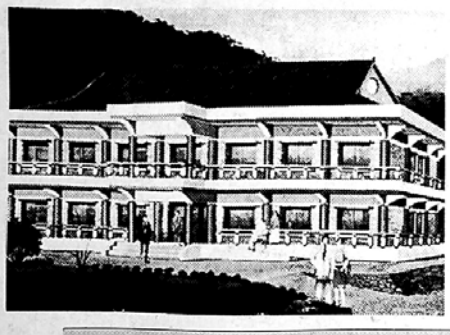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교수인 홍선스님을 법사로 부산 광주의 불교산악회 회원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순득 부산불교산악회장은 "이 행사는 하나의 상징일뿐"이라고 전제한뒤 "푸르른 산에 들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지역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삼 광주불교산악회 회장은 "27개 산악회가 있지만 유일하게 부산과 광주만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전국의 불자가 하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불교산악회는 이번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분기별로 산자락의 산사를 찾아 법회와 합동산행을 가질 예정이며 부산 광주의 불우시설을 함께 찾아 불법을 전하며 지역간의 벽을 허물어 나갈 것이다.

법륜사 수향처소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에 연로하신 노인들의 외롭고 쓸쓸한 노후생활
저희 법륜사 안식처에 모시고자 합니다.



■ 저희 법륜사 안식처는? ■

①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②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③ 욕탕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④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와 좌선 예불을 올리며
⑥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⑦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남녀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제한 없습니다.
방1실 ~ 1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특혜 : 치매노인 10명 선착순 마감 (4천만원-평생)
방1실 ~ 2명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5백만원	
방1실 ~ 3명이상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만원	
고 시 생	00명	(단, 3개월,6개월 이상자에 한함 - 일부 보증금, 월30만원)
문 의 처	본찰 법륜사 0543-955-1379	
	부산 법륜사 051-331-3084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2월말까지

· 주지: 운 봉 · 총무스님: 자 혜 ·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이송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7년 12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법회안내

무진법장사 (02)932-2333
초심일법회성
중기도 매월
1~3일(음) 오
전10시30분
인등광명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엄정소멸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청복발원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일요합동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지역법등법회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
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주지 법장스님

백암사 (0363)442-3287
신 교 대 법 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정기법회 매
주 일요일 오
전10시30분
연승시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30분
장진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
시30분


◇주지법사 박혜욱

내원사 (02)941-2011~3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
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
시30분

안흥사 (0343)73-6029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복과 지혜의 인연맺자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불보(佛寶)종찰 통도사는 30일부터 12월29일까지 1개월간 '화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의 주교재로 사용될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진리의 실상을 설하신 대승법문으로, 〈화엄경〉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면 복과 지혜를 성취하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한다. 제방 큰스님들의 법문으로 열리는 화엄산림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공덕을 지을 수 있을 듯. 동참비 10만원. (0523)82-7182

자비로 피우는 연꽃
서구복지관 자원봉사 발대

불심도 고취시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도영스님)은 12월5일 자원봉사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한다.

고아원, 재활원, 양로원 등에서 활동할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교육은 위급시 구호요령과 장애인간호법을 교육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생각해 보자. (042)488-6297

참불자로 거듭납시다
원각사 보살계 수계

불자라면 누구나 수계를 하고 법명을 받아야 한다. 참불자로 거듭나는 기회인 보살계 수계법회가 23일 오후 7시 통도사 분원 일산 원각사(주지 명덕스님)에서 열린다.

보살계는 〈범망경·梵網經〉 하권의 10중대계와 48경계를 따로 뽑은 〈보살계경·菩薩戒經〉에 근거하는데 재가자가 생활 속에서 지킬 계율 10개 덕목을 지칭한다. 극락선원의 금담스님이 수계법사로 증명하며 수계자들은 참회와 함께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서원을 하게 된다. (0344)913-7744

사바번뇌 씻어줄 법음
부산구도회 목요법회

삶과 직결된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는 강좌가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회장 한동대) 주최로 열린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구도회 법당에서 마련되는 이 강좌는 〈소품반야경〉(권기종교수), 〈능엄경〉(각성스님), 〈금강경오가해〉(지안스님), 〈유마경〉(정병조교수)이 매주 번갈아 강의된다. 특히 20일에는 지안스님이 〈금강경오가해〉에 담겨진 〈금강경〉의 역사적 흐름을 소개하며, 27일에는 정병조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과)가 〈유마경〉에 나타나 있는 대승보살의 실천도와 재가신도의 종교적 덕목을 설명한다. (051)514-5949

불심 있는 예술세계
불교문화센터 강좌

경전, 사상, 불화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불교강좌가 개설된다.

불교문화센터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여는 이번 강좌에는 혜담스님의 〈지장경보살본원경〉, 혜거스님의 〈서문〉, 최봉수교수의 '불교사상강좌', 김익홍씨의 '불화그리기', 장동백화백의 '유화' 등이 마련돼 있다.

불교교리와 사상은 물론 불교미술을 이해하려는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703-0108

마곡사의 아름다움
석불문화연 공주답사

'절은 고갯마루 아래에 있었고 십여 리 길가에 푸른 시냇물과 흰 바위가 있어 저절로 눈이 트였다.' 조선 숙종때의 문신 송상기는 〈유마곡사기〉에서 마곡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다.

이런 아름다움과 공주 일대의 석불을 친견하기 위해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3일 답사기행을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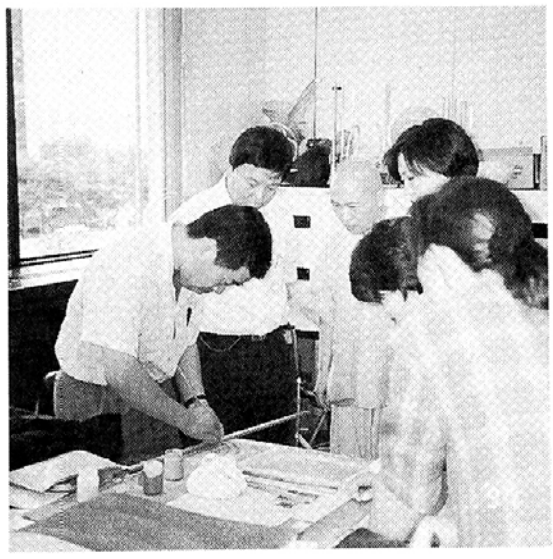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라마교 형식을 취한 오층석탑(보물 제799호)과 대광보전(보물 제802호), 김구선생 기념비로 잘 알려진 마곡사와 무녕왕릉, 계유명삼존천불비상(국보 제108호), 서혈사지 출토 석가 여래좌상 등을 둘러보게 된다. (02)760-5171

사람과 자연은 하나
'맑고향기…' 생태기행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23일 계룡산 갑사로 생태기행을 떠난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기행은 남매탑의 전설이 얽혀 있는 갑사와 공주군청 야영장 건설로 오염돼 가는 갑사 인근의 자연환경을 둘러 본다.

이번 기행을 통해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 앞에 훼손돼가는 수행도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 (02)741-4696


◇불교문화센터에서 김익홍씨와 함께 실습에 임하는 수강생들의 만학열이 뜨겁다.

나의 수행일기



김 승 일

〈前 코리아포스트 칼럼니스트〉

"불상 모으다 불자 됐어요"
신문칼럼·인터넷 통해 교포사회에 포교

오온(五蘊) 덩어리인 이 한몸 애지중지 하느라 많은 세월 동안 허공의 꽃을 피워왔다. 그런 내가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불은(佛恩)이라 생각한다.

나는 수년전 여행차 왔다가 자연경관에 매료돼 정착한 이곳 시애틀에서 불상 수집을 계기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불상 수집, 이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어느날 길을 가다 진열장 구석에 놓여 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상점으로 들어 갔다. 자세히 보니 조그마한 불상이었다. 당시 불자는 아니었지만 호기심에서 그 불상을 즉석에서 샀다. 정교한 목조 아미타불이었다.

오랜 세월의 향(香) 내음이 배어 있었고 초의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불상을 책상 위에 모셔 놓고 이런 생각에 잠겼다. "그 옛날 누군가 고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오면서 믿음의 상징으로 가슴에 꼭 안고 온 불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불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불법을 되새기며 난관을 극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불상이 골동품점의 한쪽 구석에 방치된 것일까? 나름대로 짐작이 갔다. 기독교 왕국인 미국에 와서 나만 외톨이로 부처님을 믿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앙을 하루아침에 바꾼 한인들이 많았을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니 나는 그들의 정신과 함께 내동댕이쳐진 불상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열심히 불상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언젠가 부처님 법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회향하겠다는 뜻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



불상 모으는 일을 시작하며 나에겐 또다른 변화가 생겼다. 단순한 불상만을 수집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체계적으로 익혀 불교의 지식도 함께 머리속에 수집(?)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산불교대학 통신반에 등록했다. 일년 남짓 명강사들의 통신강의를 받으면서 불교에 흥미를 느꼈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도 배우게 됐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교포 불자들을 가끔 접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나를 포함해 불자들이 교리에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종교인들이 무턱대고 불상은 우상이라 몰아세워도 불상의 본래 의미와 불교의 역사 등을 자신있게 설명해 줄 불자들이 많지 않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더 불교의 지식을 넓혀 교포 불자들에게 힘이 돼 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글 불서뿐 아니라 영어로 된 불서들도 구해 탐독하기 시작했다.

또 교포 청년 불자들에게 교리와 신행상담도 해주었고 인터넷에 불교를 소개하기도 했다. 동산불교대학의 청강은 이렇듯 나에게 불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이런 신행활동을 펴던 중 나에게 잊지 못할 일이 찾아 왔다.

시애틀을 거점으로 한 미국 북부지역 한인 교포 주간지 '코리아 포스트'의 종교 칼럼을 써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기독교 일색인 미국 사회에서 1백8회에 걸쳐 2년간 연재했던 나의 칼럼은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기독교 신자를 비롯 목사들까지도 전화를 걸어 많이 격려해 주었다. 때론 피로 누적으로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인쇄 매체로 포교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마칠 수 있었다.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일이었다. 포교의 기쁨 또한 컸다.

이제는 또 다른 원을 세웠다. 한국에 있는 동산반야회와 함께 시애틀내에서 '불서나눠보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쉽게 불서를 구할 수 없는 이곳 교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책으로 불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고국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산을 오르며 지송한 모든 염불을 남북통일이 되는 날 백두산 산정에서 회향하려 한다.

게 시 판

♣ 알림

△영화감상문 모집=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은 20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화감상문 모집 '새싹들의 글잔치'를 개최한다. 저학년은 '101마리의 강아지', 고학년은 '피노키오'를 보고 감상문을 보내면 된다. (051)363-2063

△'어머니' 소재 詩공모=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올 연말 개원을 앞두고 있는 대구보살선원 설립을 기념하여 30일까지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시(詩)를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1인 미발표 2작품 이하로 2백자원고지 3매 내외이며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은 12월 중순 보살선원 준공식때 갖는다. (02)203-3677

△무료 신경과진료=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흥스님)은 20일 오후 2시 복지관내 2층 진료실에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신경과진료(담당의 김정익 동서병원 의무원장)를 실시한다. (0551)31-8017~9

△반아동산 생활발표회=신흥사복지원(원장 도후) 부설 반야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12월1~2일 양일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생활발표회를 개최한다. (0392)635-0106

♣ 강좌

△겨울불교학교 지도자=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22, 23일 1박2일간 양재동 구룡사에서 제2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수화 통역사 준비반=한누리포교회(회장 박인철)는 26일부터 수화 기초반·통역사 준비반을 개설한다. 매주 수요일 주1회 강의하며 교육기간은 4개월. (02)738-5973

△수화·점자 기초반=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12월8일부터 3개월 과정의 수화·점자 기초강좌를 개설한다. 회비는 10만원이며 교재비는 무료. (02)720-4528

△색종이 접기=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유아초등반과 주부 취미반을 대상으로 문양접기, 모빌, 입체도형 등 색종이 접기 강좌를 갖는다. (042)633-1141

△가정제과·제빵=신도림복지관(관장 신윤진)은 여성교양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가정 제과·제빵 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강료는 2만5천원. (02)631-9792~4

♣ 모집

△동국대불교대학원=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이영자)은 21일까지 98학년도 전기(야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형은 12월1일 오후3시. (02)260-3097

△화엄학림 학인=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연관)은 제4기 학인을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2월1일부터 98년 2월21일까지. (0671)34-3031

♣ 전시

△유아포교교재·불화=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11월22~23일 동대학 전시실에서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전시회와 불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2)511-2026

♣ 순례

△보타낙가산=반야여행사(사장 현근스님)는 20일까지 중국 보타낙가산으로 떠날 구도순례단을 모집한다. (02)730-0020

△인도·네팔=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23일부터 12월5일까지 12박13일 동안 인도·네팔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22-0108

♣ 부음

△김종구 현대불교신문사 대구지사장 부친 김중곤(75세)씨가 10일 오전9시 타계했다.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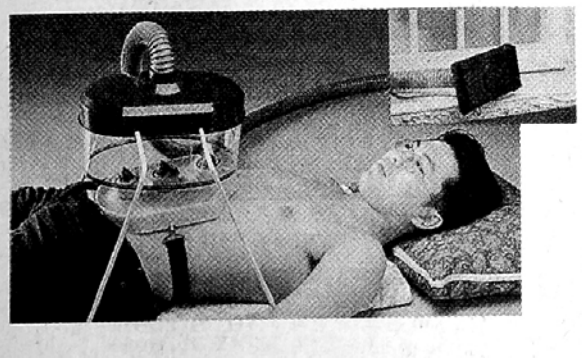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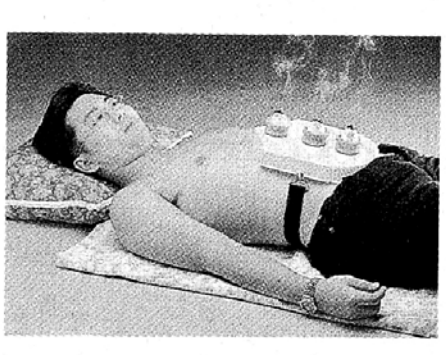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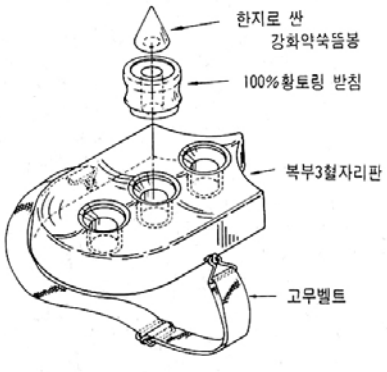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성보관리 새 사업 '난망'

조계종 종회 '문화부 요구안' 30%만 확정
무형문화·북한성보 조사등 아예 편성 안해

내년도 조계종 성보문화재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신규사업예산이 전면 삭제돼 성보문화재 보존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미흡한 정부의 문화재 지원 속에 정작 성보보존관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은 11일 예산종회에서 성보문화재 관련예산을 1억9천1백78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문화부가 원래 요구했던 성보관련 요구액 6억4만5천원을 기획실이 전체의 40%수준인 2억3천4백92만원으로 축소하고, 종회에서 또 4천3백14만원을 삭감한 액수. 성보관련 총예산은 '97년의 9천1백7십만원의 2배가 넘는 1억9천여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문화부가 주요사업으로 계획한 불교무형문화실태·북한지역성보실태·사지정밀지표조사 등이 모두 무산돼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당초 문화부(부장 원학)가 요구한 성보관련 예산의 주 내용을 보면 성보실태조사 1억6천6백67만원, 사지조사 1억3천2백56만원, 성보보존위원회 1억48만원, 성보관리 4천1백33만원, 성보전시관 3천3백15만원, 북한지역성보현황조사 1천2백62만원, 불교무형문화실태조사 2천5백56만원 등. 이중 성보실태조사 항목만 올해보다 3천만원이 늘어났을뿐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던 종단사찰외 성보현황조사, 북한지역 성보문화재 현황조사, 전국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파악, 사지정밀지표조사, 성보관리연수자교육, 성보전시관 및 박물관 건립추진 기초사업, 무형문화재성보실태조사 등의 예산이 전부 삭제됐다.

이중 북한지역성보현황조사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북한지역 문화재, 특히 불교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과 동시에 남북문화교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존대책이나 전수자 양성방안은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현실정에서 종단차원에서의 무형문화재실태조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기적인 사지발굴 및 복원을 위한 사지정밀지표조사도 무산돼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돼온 폐사지조사가 예산부족으로 일회성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한꺼번에 신규사업을 대거 내놓기보다는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기획실과의 사전 조정에서도 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윤기석 기자

◇조계종 성보관련 예산 비교

내 용	97년도 예산	98년도 예산	
		요구안	확정안
성보실태조사	50.000.000	166.670.000	95.580.000
종단사찰외 성보현황 조사	0	28.540.000	0
북한지역 성보문화재 현황조사	0	12.620.000	0
전국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파악	0	23.820.000	0
사지조사	10.000.000	24.100.000	15.000.000
사지정밀지표조사계획	0	108.461.000	0
성보관리자연수교육	0	35.300.000	0
성보보존위원회	30.000.000	100.480.000	62.360.000
성보관리	1.700.000	41.330.000	18.840.000
성보전시관 및 박물관 건립추진 기초사업	0	33.155.000	0
무형성보실태조사	0	25.569.000	0
총계	91.700.000	600.045.000	191.780.000

불심시심 〈107〉

만나면 물만 길이 흘러

湖南遠客路悠悠 (호남원객로유유) 호남의 먼 나그네 길도 유유하더니
今日留筇共逸遊 (금일유공공일유) 오늘에야 지팡이 멈추고 함께 노닐다
峽氣擁簷方屬夏 (협기옹첨방속하) 산기운 처마 에워싸니 이제 막 여름인데
泉聲透竹却疑秋 (천성투죽각의추) 대숲 뚫는 샘 소리에 가을인가 의심하다
新詩寫處驚人眼 (신시사처경인안) 새로운 시 쓸 때마다 사람 놀래고
妙法談時點石頭 (묘법담시점석두) 묘법 말씀 할 때에는 돌머리도 끄덕여져
別後他年重會約 (별후타년중회약) 이별 후 다음 해 다시 모일 약속은
碧松深谷水長流 (벽송심곡수장류) 푸른 솔 깊은 골에 물만 길이 흐르겠지

'지리산 벽송암 혜원대사에게 차운'(次智異山碧松庵惠元大師)하는 시이다. 지은 이는 대원대사(大圓大師)이다. 대사의 생졸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대략 1714년 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사의 유집인 〈대원집(大圓集)〉의 서문에 보면 대사가 15세 때에 무신난(戊申亂)을 만나 군문에 응모하여 남한산성을 지킨 공이 있다 하니, 무신난은 영조 4년(1728)의 이인좌의 난을 말한다.

이 시는 시의 구도를 법도에 맞추려는 의도가 짙다. 먼 길로 서로 떨어져 있다가 오늘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기련을 시작으로 하여, 만난 지금의 계절이나 주변 경관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인간적 면모와 다시 만날 기약을 예약하면서 끝맺고 있다.

수사의 흐름은 만나고 이별한다는 시간적 연속성의 수평적 직선이다. 호남 땅의 먼 길에서 와서 노닐게 되는 지금, 여름철의 산 기운이 주변을 에워싸지만 시냇물의 시원함에는 가을이 이미 왔는가 의심하게 한다. 이 순간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시가 아니면 법리의 오묘함이다. 놀랠 만한 싯구에서 눈이 다시 트이고, 새로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에 돌 같은 이 머리도 열리게 된다는 자신의 겸손과 상대방의 칭찬이 무리 없이 맞물려 있는 수법이다.

만나면 이별하게 되는 것이 상리이니 다시 만날 기약으로 끝맺는 것이 일상의 결론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묘하다. 약속이란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는 것이 또한 상식일 것인데, 여기서는 장소라 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솔바람과 물소리이다. 푸른 솔은 항시 푸르고 물은 항시 흐른다. 또한 그것은 깊은 산 어디에도 있는 경관이다. 그러기에 이 시의 결련은 이런 면에서 묘미가 있다. 항시 푸른 솔이나 길이 흐르는 물처럼 이별이 이별이 아닌 만남의 상존이라는 암시인 듯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만해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백담사 만해기념·교육관이 문을 열었다. 사진은 만해기념관 현판식 모습.

백담사에 '만해기념관' 개관

유물·유품등 3백여점 전시…교육관도

만해 한용운스님의 출가본찰이며 〈님의 침묵〉등 대표작들을 집필한 유서깊은 설악산 백담사에 스님을 기리는 기념관과 교육관이 9일 개관됐다.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주지 마근)에 문을 연 만해기념관은 총 110평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전통한옥건물. 이 전시관에는 전보삼관장이 기증한 〈님의 침묵〉 초간본을 비롯 1백여 판본과 〈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 만해스님 육필본과 한시시집, 글씨, 관련 사진자료 등 만해스님관련 유품과 유물 3백여점이 상설 전시된다. 전보삼관장은 "앞으로 독립운동, 문학, 부처님오신날 등 주제와 시기에 따른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만해 스님 흉상이 봉안된 만해교육관(관장 김재홍)은 120여평의 목조건물로 앞으로 만해시인학교, 강좌, 수련회등이 열려 자유 평등 개혁 생명 진보 등 만해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에 선양시키는 민족정신을 수련하는 근본도량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개관식은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오현(신흥사 회주) 도후(신흥사 주지) 원학(조계종 문화부장) 스님 등과 명호근(만해사상실천선양회장) 김진선(강원도 행정부지사)씨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3회 타종, 만해상제막, 헌화, 개관사(명호근), 법어(월주스님), 치사(설정스님), 축사(김진선), 만해시 낭독(김재홍), 위촉패 및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제=이경숙 기자

북돋기 광주불교 합창예술제

30일 광주남도예술회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가 주최하는 '북한동포돕기 '97 광주불교합창예술제가 30일 오후 5시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북 지사가 후원하는 이번 예술제에는 향림사 화엄사 증심사 한마음선원 선덕사와 광주불교사암연등 6개 합창단이 '연화의 세계' '반야심경' '빈손' 등 찬불가를 음성공양하고 노래로 포교하는 정율스님(원광대 음악학과)과 김용철·박초향(국악인)씨와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등이 찬조출연한다. 이번 예술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현재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동포와 귀순자모임 '남순지장회' 돕기 성금으로 쓰여진다. (062)376-3224, 375-9986

화제의 전시

화엄·무관스님 달마도 전시회

23~30일 부산 용두산갤러리

화엄스님(김해 동림사 주지) 무관스님(만정사 주지) 2인의 달마도전시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용두산 갤러리에서 열린다. 달마도는 선화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근엄 또는 파안대소하거나 명사에 잠겨있는 모습 등 여러 모습으로 선미(禪味)를 느끼게 한다. 화엄스님과 무관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오랜 선수행에서 나온 능숙하고 탈속한 필치로 그린 묵화와 채색화 달마그림 총 60여점을 선보인다.



이요한씨 '법화경 108폭 사경전'

22~28일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

법화삼부경 8만4천여자를 108폭 병풍에 담아 화제를 모았던 증견 서예가 이요환씨(50)의 '법화경 108폭 사경전'이 22~28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된다.

경면주사를 이용, 법화경 한자한자에 불심을 담아 해서체 소자로 쓴 이번 병풍은 펼쳤을 때의 길이가 무려 55m. 세계최장의 불교경전 병풍으로 세계기네스북의 공인준비를 받기 위한 출원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밖에도 부모은중경 반야심경 등의 사경과 '心外無法' 등 서예작품들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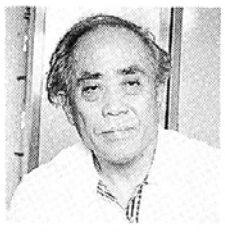
경기민요 인간문화재 이춘희씨 지정



문화체육부는 11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춘희씨(50·국립국악원 경기민요 지도위원·사진)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89년 보유자 후보로 선정된 불자 이춘희씨는 80년 故 안비취씨의 전수생으로 경기민요를 전수했다.

"2천여 관객 갈채에 흠뻑이요"

가릉빈가합창단 정기연주 지휘 **장일남** 교수



"2천여명 가까운 불자들이 참석해 연주를 듣고 환호하는 것을 보니 음악포교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교방송 가릉빈가합창단의 음악감독으로 부임 후 첫 자체 정기연주회를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가진 장일남교수(한양대 작곡과·65)의 지휘는 가을밤 음성공양의 그윽한 향취를 한층 깊게 해 주었다.

장교수는 "경전에 나오는 가릉빈가새의 이름을 딴 가릉빈가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기쁨을 널리 전파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눌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대구 문화재지키기모임 '발족'

'한사람 한유적' 운동 '안내판 세우기' 등 전개

국내 최초의 '대구 문화재지키기 시민모임(공동대표 김계숙·최인숙)'이 14일 국립대구박물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찾아내고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문화재를 시민의 손으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문화재지키기 시민모임은 영남대 박물관 문화강좌를 7년째 수강하고 있는 김계숙대표를 비롯 주부, 학생, 회사원 등 1백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모임은 △한사람 한유적 지키기 △유적안내판 세우기 △유적지 주변 청소 등 문화재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문화재교육 및 답사를 정기적으로 마련,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계숙 공동대표는 "문화재는 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민족의 주체성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찾아내고 지킨다는 각오로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천수교수(경북대 고고인류학과)가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문화재보호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회도 마련됐다.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물이 제자리로 향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진역주/세계사/8,000 → 5,000원
태고집 설서 권/ 〃 / 8,000 → 5,000원
선이란 무엇인가 장순용 엮음/ 〃 / 10,000 → 6,000원
대승기신론 마명/ 〃 / 8,000 → 5,000원
한산시 김달진 역주/ 〃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용/ 〃 / 12,000 → 6,000원
노자 그 불교적 이해 감산대사/ 〃 / 10,000 → 6,000원
자아의 책 박철화 옮김/ 〃 / 4,000 → 2,000원
부처님이 울 수 없는 땅 심재용/ 〃/ 4,000 → 2,000원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김열규/ 〃 / 4,000 → 2,0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 4,500 → 2,000원
산거일기 김달진/ 〃 / 3,500 → 2,000원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까치/ 15,000 → 8,000원
초서자전 권집부/ 까치/ 30,000 → 15,000원
중국 불교 사상사 키무라 키요타카/ 민족사/ 4,000 → 3,000원
밀교의 역사와 문화 요리토미 모토히로 외/ 〃 / 5,500 → 3,000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사토 미츠오/ 〃 / 4,200 → 3,000원
원효의 인식과 논리 신현숙/ 〃 / 3,500 → 2,000원
불교의 현대적 조명 교수불자연합회/〃/ 5,500 → 3,000원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6,000 → 3,000원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콘즈/ 〃 / 5,500 → 3,000원
중국 불교 上 K.S 케네쓰 첸/ 〃 / 5,000 → 3,000원
묘법연화경 광우/ 〃 / 8,000 → 5,000원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혁 외/ 〃 / 5,000 → 3,000원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혁/ 〃/ 4,500 → 3,000원
논어와 선 한트 다이가 외/ 〃 / 4,500 → 3,000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전보삼/ 〃 / 4,500 → 3,000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 / 3,300 → 2,500원
소승 대승 히로사치야/ 〃 / 4,300 → 3,000원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놀란플리니 제이콥슨/ 〃 / 3,500 → 2,5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 / 3,000 → 2,000원
금강경 김지견/ 〃 / 4,500 → 3,000원
중화의 지혜 중국민중사상연구회/ 〃/ 5,500 → 3,000원
선정쌍수의 전개 한보광/ 〃 / 5,000 → 3,000원
붓다와 다르마 B.R. 암베드카르/ 〃 / 5,500 → 3,000원
인식과 초월 핫토리 마사아키 외/ 〃 / 4,300 → 2,500원
딴뜨라 불교 입문 S.B. 다스굽따/ 〃 / 4,000 → 2,500원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판 임계유/〃/ 4,500 → 2,500원
대승불교의 사상 우에다 요시부미/〃/ 3,500 → 2,000원
천태 법화의 사상 타무라 시로우 외/〃/ 4,000 → 2,500원
일본 불교사 이영자 옮김/ 〃/ 5,000 → 3,000원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불교시대사/6,500 → 3,9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300 → 2,5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장휘옥/ 〃 / 4,500 → 2,7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조오현/ 〃 / 4,500 → 2,700원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김정휴/ 〃 / 4,800 → 3,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 2,500 → 1,500원
아미타경 외 〃 / 〃 / 2,500 → 1,5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 / 2,500 → 1,500원
유마경 〃 / 〃 / 2,500 → 1,500원
금강경, 승만경 〃 / 〃 / 2,500 → 1,500원
지장본원경 외 〃 / 〃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2,500 → 1,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 / 2,500 → 1,500원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외 〃 /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 / 〃 / 2,500 → 1,500원
선문선답 조오현/ 〃 / 5,000 → 3,0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섭/ 김영사/ 5,900 →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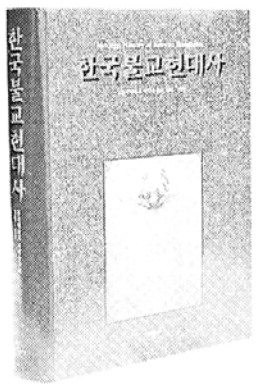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광복이후 한국불교 '한눈에'

석림동문회 '한국불교 현대사' 출간

포교·교육등 6개분야 자료 정리
21세기 불교 대비 이정표 역할



1945년 광복이후 50년간 한국불교의 종단행정, 포교환경, 역경불사, 도제양성, 문화사업, 사회운동 등의 전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총 망라한 자료집 〈한국불교현대사〉(시공사 刊)가 출간됐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동문회(회장 혜총)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펴낸 이 책은 한국불교 모든분야의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불교의 최대 격동기였던 최근세 불교사를 정리함으로써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진솔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 미래불교에 대비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전체 6개 분야로 이뤄진 이 책은 교계기자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총 18명이 집필을 맡았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교계의 방대한 신문과 잡지, 도서, 문건류 등의 자료를 모으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기하면서 수차례의 편집회의를 거쳤다. 이러한 작업위에 철저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원칙으로 단순한 역사적 기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상황에 따른 의미까지 파악하도록 구성했다.

'제1부 종단'에서는 해방과 정화운동의 태동에서부터 시대별 종단 현실을 재조명하고, 불교관계법과 불교단체등록 제종단의 출현과 현황 등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제2부 포교'에서는 도심포교, 해외포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 군포교, 장애인포교, 재소자포교 등 시대별 계층별 포교의 현황과 최근의 컴퓨터 통신포교까지를 점검했다. '제3부 역경'에서는 역경의 태동과 역장의 개설, 그리고 동국역경원의 설립 등에 대해 소개했다. '제4부 교육'에는 승가대학, 선원, 율원 등을 중심으로 한 승가교육과 교양대학, 시민선방 등 재가교육 현황을 정리했다.

또 해방이전과 이후의 불교교육의 현황과 타종교등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교육의 나아갈 바를 점검하기도 했다. 불교성보와, 문화예술, 불교출판 등의 분야는 '제5부 문화'에서 정리했고, 불교의 국제교류, 복지사업, 사회운동 등에 대해서는 '제6부 사회'에서 시대별 분야별로 정리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석림 33년소사와 한국불교현대사 주요일지를 수록했다.

총 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이 책은 앞으로 한국불교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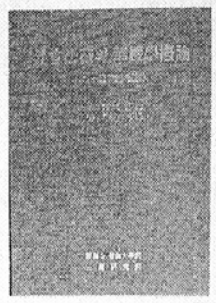
석림동문회 회장이자 한국불교현대사 편찬위원장인 혜총스님은 "한국불교의 건강한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담보하고, 과감한 자기혁신의 수행을 경주해야겠다는 원력으로 석림동문회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히고 "그간 미개척분야로 남아있던 해방이후 한국불교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불교사〉의 출판기념회는 2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봉행된다.

이은자 기자

'현수법장의 화엄학개론' 완역

은해사 삼장硏서 발간



육십화엄경의 현담(玄談)을 완역 역주한 〈현수법장(賢首法藏)의 화엄학개론(華嚴學槪論)〉이 은해사 승가대학원 삼장연구원에서 발간됐다.

은해사 승가대학원 삼장학과 지상스님이 번역하고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이 감수를 맡은 이 책은 육십화엄경의 내용을 축약한 현담을 완역한 것.

여기에 상세한 주(註)을 달았으며, 원문과 관련 전거까지 수록했다. 또한 이책은 경전의 번역과 주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족사 刊〉

대왕암 호국정신 '사진으로 감상'

황수영박사 사진집 '신라문무대왕동해릉'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유적을 찾아라…" 원로미술사학자 황수영박사(81)가 은사이신 고유섭선생(1905~1944)의 유언을 따라 평생을 거쳐 찾은 동해 문무대왕릉의 장려한 모습을 〈신라 문무대왕 동해릉〉이란 사진집으로 펴냈다.

사진작가 안장헌선생의 도움을 받아 펴낸 이 사진집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잡은 문무대왕릉과 주변 경관은 물론 감은사지, 이견대, 능지탑, 석굴암 등 문무왕과 관련된 유적들의 모습이 올칼라로 담겨 있다. 또 문무왕의 유언과 동해용왕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마음을 같이해 내려줬다는 전설의 신라국보 만파식적에 얽힌 이야기, 황박사를 미술사학도로 이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사학자 고유섭선생의 글 '나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 '경주기행의 일절' 등도 실려 있다.

"문무왕의 유적 찾아라" 은사 유언따라

황수영박사는 "대왕암·감은사·이견대의 3대 유적은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이 깃든 유적"이라며 "아직 그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무대왕릉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소개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사진집을 펴냈다"라고 말했다.

〈호영刊·비매품〉

티베트에서의 7년

"영화보다 먼저 책으로 본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브래드피트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원작인 하인리히 하러의 동명저서 〈티베트에서의 7년〉(황금가지 刊)이 완역출간돼 화제다. 박계수 역.

신비속에 쌓여있던 티베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책은 저자가 스물여섯살에 히말라야로 가 7년 동안이나 티베트에 머물면서 겪은 체험을 세밀하게 적은 책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영국군에게 억류당해 인도의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된 저자가 몇번의 실패끝에 마침내 1944년 4월 동료들과 함께 중립국인 티베트로 탈출하고, 이때부터 그의 7년간의 티베트 견문이 펼쳐진다.

자연에 맞서는 강인함, 티베트 산간마을에서 겪는 낯선 경험들,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히말라야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감동을 준다.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스러운 도시 라사에 들어서는 중간 부분부터는 주로 티베트 사람들의 생활과 종교, 사회제도, 절기에 따른 옛 티베트 풍습 등 풍부한 정보를 담아낸다. 하러의 티베트 견문은 탈출 포로인 그가 나이 어린 달라이 라마를 만나 친우이자 스승이 되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하러와 달라이 라마의 만남은 서양의 지식과 동양적 사상을 서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깊어가지만 중국이 티베트를 위협하고 달라이 라마가 몽진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여 저자가 티베트를 떠남으로써 끝나게 된다.

저자는 뒷부분에 티베트가 중국에 점령당한 뒤 달라이 라마의 탈출과 해방운동에 대하여 덧붙여 적고 있으며, 아울러 자신과 달라이 라마의 그후의 교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는 하러가 직접 찍은 수십 장의 자료 사진들을 수록해 당시의 체험을 실감나게 한다.

"종교초월 문화유산 사랑하기"

김희욱씨 '어느 기독교인이 사랑한…' 펴내



〈어느 기독교인이 사랑한 불교문화〉(풀빛 刊)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불교와 기독교와의 종교적 화합을 시도하는 독특한 책이다.

경주 남산의 문화재들을 통해 불교에 대한 신라인들의 마음을 엿보고 동시에 이웃종교로서 불교와 기독교의 동질성과 각 종교인들의 신앙심을 고찰한 이 책은 현재 부산 대연여중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기독교인 김희욱씨가 펴냈다.

"평소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싶었다"는 김씨는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무관심을 인정하고, 세계화 시대를 앞두고 문화유산을 통해 종교간의 공통점을 찾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경주 남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산의 의미, 신라의 정치와 사회, 불교교리의 변천과 신앙 형태의 변화, 그리고 유적에 깃들어 있는 종교적 의미까지 설명한다.

삼릉골 석가 및 아미타 선각삼존상에 대해 김씨는 "이곳이 우리나라 불교제의의 원형을 가장 잘 품고 있는 장소로 생각된다. 즉 현실에서 극락으로 가는 이음의 장소, 석가3존불이 인계하고 아미타 3존불이 맞아 주는 이 멋진 자리, 속(俗)에서 성(聖)으로 인계되는 자리, 참으로 속세의 허물을 벗고 새 것을 입는 멋진 자리이다"고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서 김씨는 새로운 주장도 펼쳐 보인다. 불교의 첫 순교자가 이차돈이 아니라 아도화상이라는 것. 또 "이차돈이란 뜻은 불교가 아직 공인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온 승려들이 머리를 깎고 밤에 몰래 불교를 알리던 시절의 모습이 마치 고슴도치와 비슷하다하여 붙인 이름이다. 신라 고어로 고슴도치를 '잇'이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로 음차(音借)하면 '이차'가 되는 것이다"라며 이차돈의 순교가 특정 개인의 순교가 아님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종교를 떠나 문화재가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다. 〈은〉

미당 서정주시인 15번째 시집

'80소년 떠돌이의 시' 발간



'아내 손톱/말쑥히 깍어주고'있는 미당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수 있는 서정주 시인의 15번째 시집 〈80소년 떠돌이의 詩〉(시와시학사 刊)가 나왔다.

93년 펴낸 〈늙은 떠돌이의 시〉 이후 4년만에 발표한 이번 시집에는 소년의 눈으로 다시 그려낸 미당의 80평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전생의 무슨 죄로/이렇게 살고 갔거나간에/지금 저승에서는 한 神仙의 자리로 되돌아 가/제법 그럴사 한 冠도 하나 쓰시고/어느 좋은 소나무밑에 쯤에 아주 점잖게 앉어 계실거라고…' 하는 윤회전생사상을 담은 '우리집의 큰 황소'를 비롯 '도로아미타불의 내 햇살' '무주공산' 등 총44편의 주옥같은 최근작들을 싣고 있다.

미당은 이번 시집을 발표하며 "시라는 것은 말하자면 절입태산(浙入泰山)인 것으로 오래 쓸수록 깊은 산골속의 애로들만 더 첩첩히 겪어야 한다. 시집을 또 한권 내는 현재의 내 심경은 미련하게 늙은 숫소 한 마리가 어느 마당가에서 그 먹은 풀들을 거듭거듭 되새김질 하고 있는 꼬락서니만 같이 느껴질 뿐이다"고 그의 시관을 밝히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일 타	효 림
3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4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5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6	깨어있는 마음닦기	보 천	불 지 사
7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8	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윤 청 광	언어문화사
9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냐 한	한 민
10	명상길라잡이	박 석	도 솔

구입문의:(02)737-0695

죽음이라는 무상함을 타파할 수 있는 선천(先天)의 길…

죽음이라는 무상함을 확실하게 타파할 수 있는 선천의 길이 바로 불가의 최상승선과 정통 비빠사나로써 은밀한 구전심수 사상이다.
그러나 이 선(禪)과 교(敎)의 핵심 도맥이 서산대사의 수법제자인 편양 언기선사 시대 이후로 5세기 가량 끊어져 있었다.
이 도맥이야말로 유·불·선·의·무 등 지구상의 모든 학문과 종교의 핵심 맥이다. 다만 표현된 문자와 용어만이 다를 뿐, 다 같은 진리(大道)의 길이다.



秘傳 정통 달마선법
범조 광운선사 지음

오백년 만에 다시 발굴
복원되어 최초로 공개되는 정통 달마선법!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조사선 심신 수행법!
기초 좌선법부터 선체조에 이르기까지 기초 동작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秘傳 정통 달마선법 후속편
어떻게 닦아 가리까
범조 광운선사 지음

대도의 방편인 조사선법과
근본불교 수행법의 체계를 복원시키다!
5세기 가량 끊어져 있던 선(禪)과 교(敎)의 핵심 도맥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전문적인 진리에 눈뜬 소수의 수행자 외에 대다수의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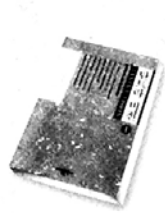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리즈니쉬 지음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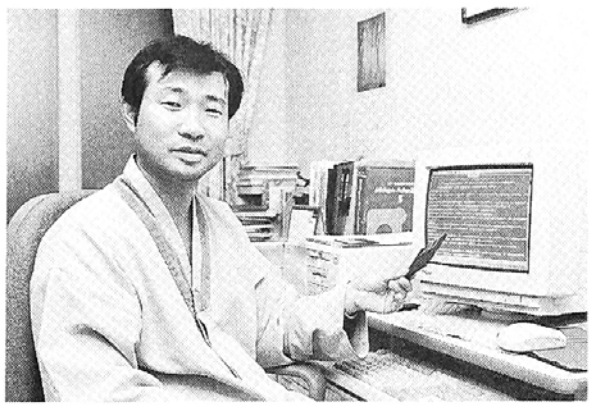
탄트라비전 I II III IV
오쇼 라즈니쉬 강의
이연화 옮김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112가지 명상 비법 무삭제 완역 공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04-3236
태일출판사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 '나온다'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으로 불교문헌 40여권 50메가바이트를 입력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을 만든 이종철교수. 팔리어 · 티벳 · 한문 · 한글 동시검색이 가능하다.



이종철교수 불교문헌 40권 입력 내년초 발간
범어-팔리어-티벳어-한글-한문 동시 검색

"다언어(多言語) 불교용례 전자사전은 산스크리트어(범어) · 티벳어 · 팔리어 · 한글 · 한문 등으로 쓰여진 논(論), 소(疏)와 경전 등의 총체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또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으로 각 언어의 번역어를 제공하고 해당 낱말이 사용되는 용례도 열람할 수 있게해 불교문헌에 사용된 언어의 '백과사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교수(종교철학 · 59)가 세계 최초의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이하 전자사전)에 수록될 불교문헌 입력을 마무리하고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에 입력된 불교문헌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1차 교정본으로, 동일한 문헌에 대한 번역본 간의 대조 · 검증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입력된 문헌자료에 새롭게 첨삭될 때 최종적인 교정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어 이교수의 전자사전 출간 작업은 불교학계를 발전시킬 획기적인 불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입력된 불교문헌은 총 50메가바이트(1메가바이트=1백만바이트)로 영문자 5천만자(字)에 해당하는 분량. 여기에는 〈구사론〉〈중론〉〈중변분별론〉〈대승장엄경론〉〈유식삼십송〉〈법화경〉〈십지경〉 다르마끼르띠의 논서 등 주요 불교문헌 40여권이 고스란히 입력되어 있다.

이교수가 전자사전의 계획을 세운 것은 인도 마이솔대학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2년. 이때 이교수는 드 용(De Jeung)이라는 프랑스 불교학자가 1951년 '다언어(多言語) 불교사전'을 제안했던 것에 착안해 '산스크리트어사전과 인도 고전 번역계획'을 세우고 다언어 불교사전의 형식을 띤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을 만들기 위해 불교문헌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교수는 "'드 용의 제안'은 획기적이 것이었지만,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로서는 꿈이었을 뿐"이었다며 "내년초 전자사전이 출간되면 산스크리트어 뿐만 아니라, 티벳어 · 한문 · 한글 · 팔리어 등의 번역어도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꿈의 사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작업은 하나의 산스크리트어 문헌을 입력하면 이 문헌의 티벳어 · 팔리어 · 한문 번역본을 각각 입력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이교수가 역경한 한글본도 입력시켰다.

이와같이 하나의 문헌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서술된 자료 등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이들 자료 중에서 동일한 곳을 찾아 링킹(상호 연결)을 해줄 때 산스크리트어와 번역어간의 연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해당 단어가 경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용례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현재 널리 애용되는 〈모니엘 산스크리트어 사전〉(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기능이다.

이종철교수는 "전자사전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한국불교계가 한역 경전으로만 불교를 연구해 온 풍토를 쇄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명상법 · 불교뉴스 레터등 볼거리 풍성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어서오세요 정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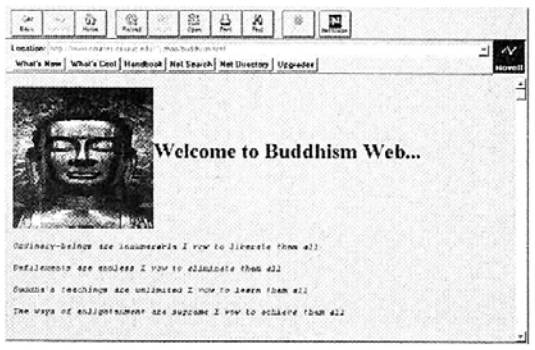
미국 일리노이스대학의 불교 동아리에서 개설한 '어서오세요 정토(淨土)입니다'는 불교 초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불교란 △불교뉴스레터 △채식요리법 △명상법 △북미 불교단체 △고승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한다.

'불교란'에서는 일심 · 삼귀의 · 삼학 등 기초 교리를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다. 또 '교양불교어휘'도 정리해 놓았다. '불교뉴스레터'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 티벳불교와 재가불자들의 소식지인 〈스틸 포인트〉〈정념〉〈가소〉 등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승'에는 달라이 라마(티벳) 아잔 차(태국) 틱낫한(베트남) 조셉 골드스타인(미국) 등의 각국의 유명한 고승들의 프로필과 활동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20여가지의 채식 요리법도 소개하고 있으며 선(禪), 공안, 한국 · 네팔 · 싱가폴 · 대만불교 등의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불교유즈넷그룹과의 연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http://www-courses.cs.uiuc.edu/~j-zhao/buddhism.html



"禪은 심층심리학이다"

이광준박사 주장…정신분석학보다 우위



◇이광준 박사



◇신규탁 교수

열반을 증득하여 개인과 우주의 일체를 깨닫게 하는 선(禪)이 개인의 사회 적응만을 지향하는 정신분석학 보다 한 단계 높은 '심층심리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이광준박사(동서심리학 연구소장)가 8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선사상의 종교심리학적 연구'에서 제기한 것.

이박사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다툼, 오해, 갈등 등 심리적 장애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무의식적 동기를 알게 해 장애만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공안을 참구하는 선(禪)은 자신에게 걸려있는 집착과 탐욕 등을 제거하고 잠재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선수행이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장애는 무지(無知)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한 이광준박사는 "선은 미망을 경계하고 자신의 본성을 통찰해 인간이 정신적 장애를 넘어 자유를 증득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옹스님 무심돈오 조선 선사상의 근간"
신규탁 교수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 지공스님(?~1363)의 선사상을 무심돈오(無心頓悟) 사상으로 새롭게 해석한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는 "지공스님은 고(苦)와 업(業)의 근원이 되는 번뇌는 자성 밖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무심(無心)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가 저절로 없어지고 깨달음(頓悟)의 세계에 단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며 무심돈오 사상을 설명했다.

역대조사의 전법게송을 소개한 〈불조전심서천종파지요 · 佛祖傳心西天宗派指要〉에서 지공스님이 스스로 유파개종(流派開宗)이라며 법계를 달리하고 지공무상종(指空無相宗)이라고 명명한 것에 주목한 신교수는 "지공스님의 무심돈오 사상은 사량분별을 철저히 거부하는 남종선의 입장을 잘 대변했고, 나옹스님에게 온전히 전수돼 조선시대 선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종교계 제일주의 버려야"
김복자교수 주장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 천도교 증산교 등 우리나라의 종교 대부분이 '한국종교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재기됐다.

김복자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 · 42)는 7일 제23회 한국 · 아메리카 회의에서 발표한 '세계 구원의 길, 기독교와 불교'에서 "국내 기독교도는 21세기에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세계기독교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가장 많은 교인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교 · 천도교 · 증산교 신도들도 자신의 종교가 세계 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등 '제일주의'의 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복자교수는 "한국 종교계가 다른 나라의 종교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종교로 인식할 때 세계평화와 인류의 구원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암사 1254년 이전 창건됐다"

김철웅씨 '보한집' 등 자료 제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던 고려말에 창건된 대사찰 회암사(檜巖寺). 우리 불교사의 중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회암사의 중건과 사지(寺址)의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만,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견해가 없었다.

김철웅씨(고려대 사학과 박사과정)는 〈사학지(史學志)〉 제30호에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배경'을 소개하고 "1313년(충선왕 5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회암사는 이보다 앞선 1254년 이전에 창건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회암사 창건에 대해 언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보산회암사수조기'에서 회암사에 원경국사의 필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글씨를 본 금나라 사신의 일화가 소개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같은 내용은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서도 언급된다"며 "〈보한집〉의 초간본이 최항(崔沆)에 의해 고종 41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회암사 창건 시기는 이보다 앞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나옹스님이 회암사를 중심으로 불교 중흥을 도모했던 시기는 임제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새로운 선풍이 일어나려는 때"라고 지적한 김철웅씨는 "나옹스님은 지공 · 평산(平山) 스님들에게 임제선을 전수 받았다"며 "현재 조계종이 종풍을 임제선이라 인정한다면, 그 중흥조는 나옹스님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美문화도 이젠 불교영향권"

미국 뉴욕시 한 북관에서 염주가 인기리에 판매되는 등 불교문화를 매개로 한 '팬시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맨하탄의 대표적인 부틱숍인 '바니스뉴욕' 보석매장에선 크리스털 수제품 백팔염주를 고가에 팔고 있다. 의류 및 화장품 유명 브랜드인 '갭(Gap)'은 약초와 꽃을 혼합해 만든 새로운 화장수를 '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엔 TV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불교신봉자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와 특별대담 시간을 가져 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바도 있다.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은 이같은 최근의 현상을 'Influence(영향)'와 'Asian(아시아)'의 합성어인 '인플라시안(Inflasian)'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문화가 이미 미국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얘기다.

"스리랑카 유혈사태는 종족갈등"

송위지교수 주장 "종교분쟁 시각 편견이다"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스리랑카의 싱할라와 타밀간의 유혈 충돌은 종교분쟁이 아닌 종족분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송위지교수(외국어대 철학과)는 〈국제지역연구〉(외국어대 刊)에 게재한 '상좌부 불교국가에서의 종족갈등에 관한 연구-스리랑카'에서 "타밀의 지도자는 가톨릭 교도이며 싱할라의 대표 구마라뚱가 대통령은 개신교도"라며 "최근 스리랑카 유혈 사태를 종교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학자들이 만들어낸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19세기 영국의 신민지로 전락한 스리랑카가 반영국 투쟁을 전개하자 영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1893년 타밀족 이주를 실시해 종족문제의 불씨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 스리랑카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인 아나가리까 다르마팔라(1864~1933)가 전국민적인 반영국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싱할라족을 '불교도'라고 통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도'라는 말은 타밀을 지칭한 것이 아닌 식민 통치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송교수는 "두 종족간의 유혈분쟁에서 '사원공격'과 같이 종교권 수호를 위한 갈등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위지교수는 "스리랑카에서 불교적 민족주의 출현은 타밀과의 갈등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제국주의가 어우러진 서양 지배 세력에 대한 반발의 소산"이라며 "그 발생동기는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는 〈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종교〉(민음사 刊)에서 "스리랑카의 분쟁은 종교 민족주의의 소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 · 탑 · 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 · 대적광전 · 극락전 · 미륵전 · 관음전 · 명부전 · 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 · 불화 · 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 · 천수관음 · 십일면관음 · 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 · 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 · 관음염불 · 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 · 봉 · 대 · 선 · 사 · 일 · 대 · 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9

돈오의 제창

선(禪)은 불교의 궁극이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을 제외한 어떤 수식도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근본주의정신(래디칼리즘)의 천양이다. 이를 위해 선은 구체적으로 당대를 풍미하고 있던 대승의 난만한 형이상학과 말류의 기복적 정토의식과 맞서야 했다. 전자에 대한 대결의식은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에 잘 나타나 있다.

"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不立文字 敎外別傳) 마음의 본질을 곧바로 드러내어(直指人心) 궁극적인 깨달음을 열겠다(見性成佛)."이에 비해 정토의식에 대한 선의 비판적 태도는 ㅇ무래도 덜 알려져 있다.

선의 정신을 간명하게 정식화한 "돈오점수(頓悟漸修)"는 특히나 정토의 의타불교를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쓰여진 것이다. 정토의식은 자신의 내적 가능성보다 타율적 구원에 의존해 왔다. "나는 하잘것 없는 중생이다. 저너머 정토에 계시는 무한한 힘의 부처들이 나를 이 비참한 사바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러 오실 것이다." 그들은 일구월심으로 빌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릴 뿐,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걸려 하지 않았다. 수천수만의, 아니 아승지의 겁(劫)을 뼈를 깎고 살을 태워서야 보인다는 경지를 누군들 꿈꿀 수 있



그림 · 이중석

달음"을 뜻하지 않고, "원래 시간이 없는, 즉 영원의 사건 아닌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역설이고, 또한 신비이다.

이 말이 무에 새삼스러운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 교설의 다양한 실례와 변주를 접해왔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종시 의혹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구체적인 증례를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한다. 돈오의 소식을 알리는 온건하고 직설적인 전형은 "네가 곧 부처이다"라는 표현이다. 부처라는 영원의 진리, 혹은 그 깨달음은 시간적 과정의 산물이거나 훈련으로 인한 점차적 축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은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구원은 네 자신의 본질로서 이미--선의 실질적 창시자 혜능(惠能)의 표현을 빌면,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으로서"-- 존재한다. (여기서 시간적 혼란을 눈여겨 보기 바란다. 나라는 존재는 시간의 계열 안에서는 결코 부모 이전에 존립할 수 없다. 혜능이 이같은 모순과 역설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바로 인간본질의 초시간성, 즉 頓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런 점에서는 귀적(歸寂)하신 해인사 성철 스님의 말씀이 그릇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언어는 맥락과 의도를 갖고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언어 혹은 명제는 보편적 맥락과 총체적 의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그래서 모든 언설이 일면적 목적성과 상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불교적 언설의 그같은 특징을 일러 방편(方便 upaya)이라 한다. 돈오의 교설 또한 일정한 맥락 아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제창된 것이므로 자체의 한계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약은 독이다. 동네약국의 조제실 유리칸막이에 달려 있는 파머시(pharmacy)의 그리이스 원어 파르마콘(pharmacon)이 꼭 그렇듯이. 방울뱀의 독은 물린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또 한편 정제해서 쓰면 난감한 병을 다스릴 수 있다. 불교는 이런 비유를 쓴다. 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돈오의 가르침 또한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또 다른 병을 유발한다. "네가 곧 부처이다"는 처방은 자포자기의 고질은 고쳤으되 불교가 그토록 타기하는 아만(我慢)의 증장(增長), 그리고 도덕적 무감각의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제는 허세와 자만에 빠져 수련을 게을리하고 대중의 정재(淨財)를 헛되이 소모하는 죄업을 다스려야 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점수(漸修)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깨달음 포기한 '타력신앙' 경계

아만 · 게으름등 부작용 우려 '점수' 처방

었겠는가. 그곳은 비천하고 번뇌에 싸인 인간에게는 너무도 멀고 아득한 곳이었다.

이런 자포자기는 정토만이 유포한 것이 아니다. 화엄(華嚴)이나 천태(天台)의 교설들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삶의 비참함을 강조하고 지장(地藏)의 구원을 말하는 법화(法華)의 세계나, 절대의 풍경인 해인삼매(海印三昧)에 이르기 위해 십지(十地)의 열 계단을 하나 하나 밟아야 한다는 화엄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아예 궁극적 깨달음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진배없었다.

선은 이토록 깊이 물든 대중의 무기력에 충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흡사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쓴다는 용천혈의 대침같은 것이었다. 그 대침이 바로 돈오(頓悟)라는 것이다. 돈오를 절집에서는 "몰록 깨침"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는 석연치 않은데 어쨌거나 깨달음이 단번에 한 순간에, 즉 아주 짧은 시간동안에 일어난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이같은 해석이 오해라고 생각한다. 돈오의 돈(頓)이란 깨달음에 이르는 기간(span)의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성격과 내용을 알려주는 언표이다. 깨달음에는 과정이나 계위(階位)같은 점차(漸次)라는 〈시간〉이 개입되지 않는다! 요컨대 돈오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깨

法數로 배우는 불교

〈39〉



◇이철수 作 '천은사 일주문'

몸과 마음 기르는 9가지 양식

수행자 선열 · 해탈식 즐겨섭취

듣식 섭취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선 잘 먹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맛있고 영양높은 음식을 즐기고 취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때로 건강을 해치고 병을 가져오게 하는 수도 있다. 음식문화가 발달한 요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의 많은 종류가 무절제한 식생활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육신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때 먹는다는 것이 꼭 밥이나 반찬과 같은 영양소 물질에 국한되

구종식(九種食)

고 있는 것 같지만 불경에서는 몸과 마음을 기르는데 있어 먹고 섭취해야 될 것이 입으로 먹는 음식외에도 아홉가지가 있다고 가르친다.

첫째는 단식(段食)으로 지금 말한 음식물을 먹는 것을 말한다. 씹고 마시는 밥이나 반찬, 음료수 등이 그것인데 이는 주로 육신을 보전하는데 필요하다. 둘째는 촉식(觸食)으로 촉감을 먹는 것을 말한다. 사랑하는 사이끼리 서로 쓰다듬고 비비고 마찰한다든가 하여 마음에 기쁨을 일으키는 것도 먹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식(思食)으로 의지를 먹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을 일으키는 일,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일, 희망을 가지는 일 등이 그것이다. 넷째는 식식(識食)으로 알음알이나 경험을 먹는 것을 말한다.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것, 이념이나 경험등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관별하는 것 등이다. 다섯째는 선열식(禪悅食)으로 수행에 의해 얻어진 선정의 기쁨을 먹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집중되어 깊은 삼매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으로 세상의 감각적 쾌감과는 다르다. 여섯째는 법희식(法喜食)으로 법의 기쁨을 먹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들으면서 신심을 쌓고 환희심을 일으켜 공덕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일곱째는 원식(願食)으로 큰 서원을 먹는 것을 말한다.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를 완성하겠다는 원을 발하되 물러남이 없고 끊임이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여덟째는 염식(念食)으로 바른 마음을 먹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염(念)이란 보호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잊지않고 늘 챙겨야 될 마음 관찰을 가리킨다. 아홉째는 해탈식(解脫食)으로 깨달음을 먹는 것을 말한다. 생노병사와 우비고서의 일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지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은 단식이나 촉식, 그리고 사식이나 식식 뿐이다. 이에비해 수행인들은 선열식, 법희식, 원식, 염식, 해탈식을 함께 섭취하여 심신을 보양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음식을 얻으려 사위성에 들르셨을 때의 일이다. 한번은 부처님이 음식을 아무에게서도 받지 못한 채 빈 밥그릇을 들고 돌아오시게 되었다. 성안에 축제가 열려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 집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부처님앞에 모든 악의 왕인 파순마왕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고타마여(파순마왕은 부처님을 부를때 꼭 성을 불렀다) 어째서 기다리다가 맛있는 음식을 받아가지 그냥 돌아 가시는가. 지금 다시 성안에 가면 축제가 끝나 음식들이 많을 것이오. 굶지 말고 어서가시오"하고 유혹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왕 파순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래는 세간의 음식을 탐하지 않는다. 여래는 열반의 기쁨을 먹고 사느니라 파순아 그대도 열반의 맛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에 파순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곧 자취를 감추었고 부처님은 아무렇지 않게 기원정사로 돌아오셨다. 한끼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지내시는 부처님의 탐착없는 행위 속에서 보다 가치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육신을 기르는 음식만 취하지 말고 마음을 기르는 참된 음식이 무엇인지도 배워서 심신을 함께 보양시켰으면 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7

불교와 수학

32

진리의 다양성

김 용 운



그림 · 최주현

현대수학의 公理는 진리 아닌 가설

임제스님 1천년전 '사고의 전환' 선도

비(非)유클레이데스 기하의 등장은 서양 사상사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응용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으나 수학의 연구 방법, 더 나가서는 수학을 보는 '눈'을 크게 바꾼 것이었다. 그때까지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의 '진리성'이 영구 불변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공리(公理)는 현실 세계의 실체(實體)를 비추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순이 없으면 어떤 공리를 내세워도 상관이 없다. 공리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성보다도 유통질서(流通秩序)를 유지하는 화폐의 '신용' 쪽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유클레이데스 기하에 덧붙여 여러 기하학들이 제각기 동등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비단 기하학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수학, 해석학 등의 분야에서도 여러 공리계가 연이어 나타났다. 이젠 수학이라면 으레 공리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유클레이데스 기하는 여전히 각별한 권위와 지지를 누릴 수 있었다. 자연현상의 유일한 설명 원리인 뉴턴 물리학이 여전히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은 더 이상 권위를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문자 그대로 뉴턴 역학의 지반이 무너지고 대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자연 해석의 권위있는 이론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뉴턴의 물리학은 이제 자연계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고전적'인 것이 되었으며, 대신 이 자리를 메운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다.

상대성 이론을 기하학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유클레이데스 기하에서와는 다른 공간을 모델로 성립한 것이다. 뉴턴은 현상 그 자체에 시간, 공간이 밀착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아인슈타인은 거리나 시간 등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했다. 있는 자리마다 독자의 세계가 있다. 곧 '수처작주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이다. 따라서 거리의 정의를 유클레이데스 공간과는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요컨대 우주 공간을 '유클레이데스적'인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공간(=우주관)은 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양자역학(量子力學)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하였다. 극미의 세계에 일어나는 확률론적인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절대 진리를 전제하는 이론은 모두가 부정될 것이다. 이처럼 기하학의 영역에 국한시켜 생각해 봐도,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은 물리학이나 기타 자연과학의 유일한 길잡이가 아니라 여러 학(기하학) 체계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유럽 세계는 여태 '진리는 하나'라는 신앙에 사로잡혀 왔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줄곧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옳은지는 공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공리를 자명(自明 스스로 명백함)한 명제로 간주한다면 그 결과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한낱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다. 진리가 아니라 당분간의 유통이 보장된 가설이 아니었던가! 20세기 수학의 의상(衣裳)은 행동이 부자유한 진리라는 구시대의 의상을 떨치고 행동이 가벼운 '약속'이라는 평상복으로 바꿔 입은 셈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사고의 전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등은 모두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선도한 것이 수학이었고 또한 그보다 천여년전 임제는 수처작주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을 통해 진리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밝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마음 밝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①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

시방세계

불교신시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인간관계

"한국불교의 힘 휴먼릴레이션쉽"

주한외국인스님 32명 송광사 2박3일 연수

60살 러시아 명공스님 폴란드인 비구니 명화스님등 32명의 외국인스님들은 이국땅의 낯설음도 잊은채 '지심귀명례' 합장 속에 '자기 찾기'를 서원했다



◇교육원이 주최한 불기 2541년 주한 외국인스님 연수회에 참가한 15개국 32명의 스님은 이번 연수회는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파란 눈. 법의가 왠지 어색해 보이는 몸짓. 5일 어스름 저녁무렵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에 32명 벽안의 스님들이 부처님전에 엄숙히 삼배를 올리고 있다. 교육원이 주한 외국인스님들을 대상으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연수회에 미국, 폴란드 등 15개국 32명의 스님이 한국불교를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한국불교가 훌륭한 수행전통과 교학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속에서 새로운 자아와 부처님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국불교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왜 스님이 되었느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법이 있고 거기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 모두를 위한 것이든간에.

입재식. 헝가리 출신 청안스님의 목탁소리와 통역을 맡은 미국 출신 무심스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조계산 자락에 걸쳤다. 순간 서른 두명의 얼굴엔 긴장감이 돌았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격려사와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의 법어가 이어졌다. 종단 어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찌른다.

나이 60에도 불구하고 연수회에 참가한 명공스님(러시아)의 눈가에 보일듯말듯 눈물이 고였다. 이들중 최고령 이지만 출가한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사미니. 간간히 저는 다리를 곧추세우고 합장 일배일배마다 머리를 무릎아래까지 숙이고 부처님을 바라본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간절하게 했을까. 지난 여름 기자를 만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순간 그 법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던 고백. 러시아에 두고 온 90이 다된 어머니마저도 부처님 그늘에서 편히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던 명공스님. 저녁예불에서의 명공스님 예불문 염송은 차라리 혼을 부르는 소리에 가까웠다.

다음날, 강의가 이어지면서 무심스님(40 · 미국)이 바빠졌다. 한국에 온지 어느새 13년. 우리말이 가장 유창한 덕분에 강의통역은 물론 행사진행까지 도맡았다. "13년전 한국에 와서 숭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외로움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음식, 잠자리, 언어소통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스님들과 만나는게 두렵기까지 했으니까요." 고향을 떠나면 그리움은 늘 가슴 한구석을 채운다. 이국땅에서의 낯설음 그리고 고행. 부처님의 염화미소로 위안받았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펼쳐놓는다.

"수행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전통이 불교가 한국인의 정신적 의지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불교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한국불교의 방향도 제시한다.

다도강습시간. 폴란드 출신의 명화스님(33 · 화계사 국제선원)은 '차는 마음을 표현하는 음료'라는 설명에 두 눈이 더욱 커진다. 5년전 바르샤바 도암사에서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선에 유난히 집착해 폴란드 이곳저곳의 선 센터를 돌며 정진하기 시작했다. 전문건축사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선과 직업을 병행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선을 택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1년전 한국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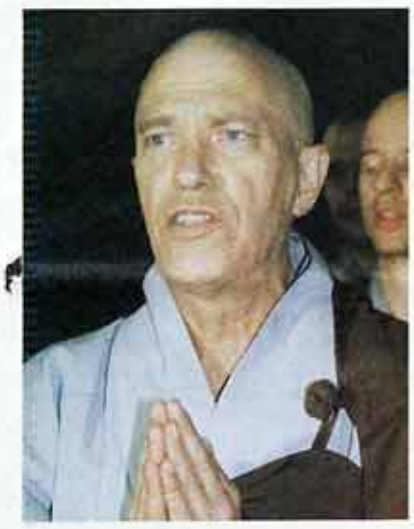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선은 최고입니다. 신라때 형성된 구산선문이래 간화선법이 이어져오기까지 선불교전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선불교전통속에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학체계가 제대로 서 있는것 또한 한국불교가 가진 커다란 장점이라고 덧붙인다.

계속되는 강의속에서 30분간의 휴식은 엄하고 딱딱여진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감로수와 같은 것이었다. 달콤한 휴식. 한국에 온지 3년째인 화계사 국제선원 도문스님(48 · 미국)은 그 휴식마저도 잊은 채 한국불교의 휴먼 릴레이션쉽(Human Relationship · 인간관계)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한국불교 속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은사와 제자의 관계,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를 유지했던 것이 불교의 힘이라면 그런 불교를 지탱해준 것은 다름아닌 '휴먼 릴레이션쉽'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준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싱가폴, 중국, 홍콩, 말레이지아 등을 다녀 보았지만 한국불교만큼 그들 나라의 불교에 매력을 느낄 수는 없었다. 사라져 가는 동양의 미덕이 한국불교 속에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같은 장점에서 찾고 있었다.

연수내내 늘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듯했던 명도스님(53 · 미국)은 "한국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글=한명우 사진=고영배 기자



◇ 부처님법 속에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명공스님.



◇ 무심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살아 숨쉬는 한국선불교 전통 속에서 부처님 숨결을 느낀다"는 명화스님.



◇ '다도강습' 시간. 조심스레 차를 따르며 마음도 함께 따른다.



◇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입재식에서 화두 하나 받아든다.

취재수첩 한국불교의 깊이에 연신 "Wonderful"

이번 외국인스님 연수교육은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가자들에겐 한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우리나라 삼보사찰중 하나인 승보사찰 송광사에서 열렸다는 점도 연수를 뜻깊게 했다. 한국불교사상 외국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가 처음이라는 의미도 중요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도 접할 수 없었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개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스님들에게는 더욱 즐거운 일이었다.

'한국의 선종사상' 등 7개 강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중 가장 인기를 끈 강의는 선혜스님(불교전통문화원장)의 '다도강습'이다. 찻잔을 잡는 방법이나 다구배열, 그리고 차를 마시는 예법을 익히고, 차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모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차 한잔 속에도 불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표정들이었다.

대목장 신영훈씨의 한국불교문화를 담은 슬라이드 강의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통사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은 비록 필름상이었지만 불국사, 봉도사 등을 보며 'Wonderful'(훌륭하다)을 연발했다. 또 '한국 사찰조형의 특징' 강의(현고스님 · 송광사 주지)에서 "한국사찰건축은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휴식시간은 강의끝마다 주어진 30분에 불과했다. 오후들어서는 다소 피로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으나 흐트러짐없는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두 번씩의 아침 · 저녁예불 그리고 백팔대참회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연수가 끝난 후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길 희망했다. 한국불교에 대한 신뢰감을 확고히 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으며, 한국불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승가는 질서' 공양간으로 향하는 질서정연한 안행.

인터뷰 美 흥법원서 수행 현각스님

"서양철학의 한계 느끼던중 한국 禪불교 접한건 행운"



미국 예일대 학부와 하버드 대학원 졸업. 한마디로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현각스님(33 · 미국 흥법원).

현각스님은 우연한 기회였지만 바로 그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가톨릭집안에서 자랐고 심오하다고 여겼던 서양철학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혼돈시키는 정신적 방황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숭산스님이 쓴 불교에 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첫장부터 읽어나가는 순간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희열이 일순간 나를 뒤덮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상향이 바로 그 책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학부에서는 서양철학을, 대학원에서는 비교종교학을 공부한 현각스님은 불교를 만나게 된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감쌀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책은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참작키 어려운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현각스님은 93년 중국 남화사에서 출가했다. 선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야한다는 주위의 권유에 이끌려서였다. 깨달음을 곧 얻을 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러나 차츰 한국 선(禪)불교로 관심이 옮겨졌다. 중국으로부터 일제 종맥을 이어왔지만 한국불교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선의 전통은 계성과 깊이가 살아있다는 생각때문이었다. "한국불교는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또 육조혜능 선(禪)의 전통이 가장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고승들이 많은 것도 한국불교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도 털어놓았다. "미국엔 티벳, 일본, 중국불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불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도 왜 알리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빳고'를 화두로 삼고 있다는 현각스님. 두번째 왔지만 송광사에 오면 역대 한국고승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며 미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한국불교를 홍보할 생각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올 때는 많은 스님들과 함께 와서 직접 한국불교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세속품(世俗品) ②

萬物如泡 만물여포
意如野馬 의여야마
居世若幻 거세약환
奈何樂此 내하락차

일체 만물은 마치 물거품 같고
제 마음 마치 아지랑이 같으며
이 세상에 사는게 허깨비 같다
어떻게 이것을 즐겁다 하랴

若能斷此 약능단차
伐其根根 벌기수근
日夜如是 일야여시
必至于定 필지우정

능히 세속관심 끊을 수 있고
그 뿌리를 잘라 버리되
밤 낮으로 이와같이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정에 이르게 된다

一施如晷 일시여신
如樂之人 여락지인
或從惱意 혹종뇌의
以飯食衆 이반식중

諸天雖樂 제천수락
福盡亦喪 복진역상

세상 어디에나 죽음이 있고
삼계엔 편안한곳 어디도 없다
저 모든 하늘이 비록 즐겁다하나
복덕이 다하면 역시 잃게되는 것

觀諸世間 관제세간
無生不終 무생부종
欲離生死 욕리생사
當行道眞 당행도진

모든 세간을 살펴보면
태어나 죽지 않는 것은 없나니
생사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든
부디 참된 도를 수행해야 한다

"보배를 쌓아 하늘높이 닿아도
눈 밝혀 도의 자취 본것만 못하다"

此輩日夜 차배일야
不得定意 부득정의

배품이란 믿음과 다르지 않나니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도
혹 세속에 물든 생각을 좇아
음식으로 대중을 공양한다면
그런 무리는 밤 낮으로해도
선정에 들지는 못하리라

世俗無眼 세속무안
莫見道眞 막견도진
如少見明 여소견명
當養善意 당양선의

세상 사람들은 바른 눈 없어
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니
만약 조금이라도 밝음을 보려면
마땅히 선한 마음 길러야 한다

如罹將群 여안장군
避羅高翔 피라고상
明人導世 명인도세
度脫邪衆 도탈사중

마치 저 기러기가 무리를 거느리고
그물을 피해 높이 날듯이
눈 밝은이는 세상을 이끌어
삿된 무리를 건져준다

世皆有死 세개유사
三界無安 삼계무안

괴로움과 어리석음은 여기서 생긴다

一法脫過 일법탈과
謂妄語人 위망어인
不免後世 불면후세
麤惡不更 미악불경

한가지 법을 어기고나서
거짓을 말하여 사람을 속이면
다음 생을 면키어렵나니
악업은 되풀이되어 그치지 않는다

雖多積珍寶 수다적진보
嵩高至于天 숭고지우천
如是滿世間 여시만세간
不如見道迹 불여견도적

비록 온갖 보배 많이 쌓아서
그 높이 하늘에 다닿고
그와같이 세간에 가득찬다해도
도의 자취를 본것만 못하다

不善像如善 불선상여선
愛如似無愛 애여사무애
以苦爲樂像 이고위락상
狂夫爲所厭 광부위소염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하고
애욕 있으면서 없는 척하며
괴로움 있어도 즐거운척 하는것
미친 이의 짓이라 꺼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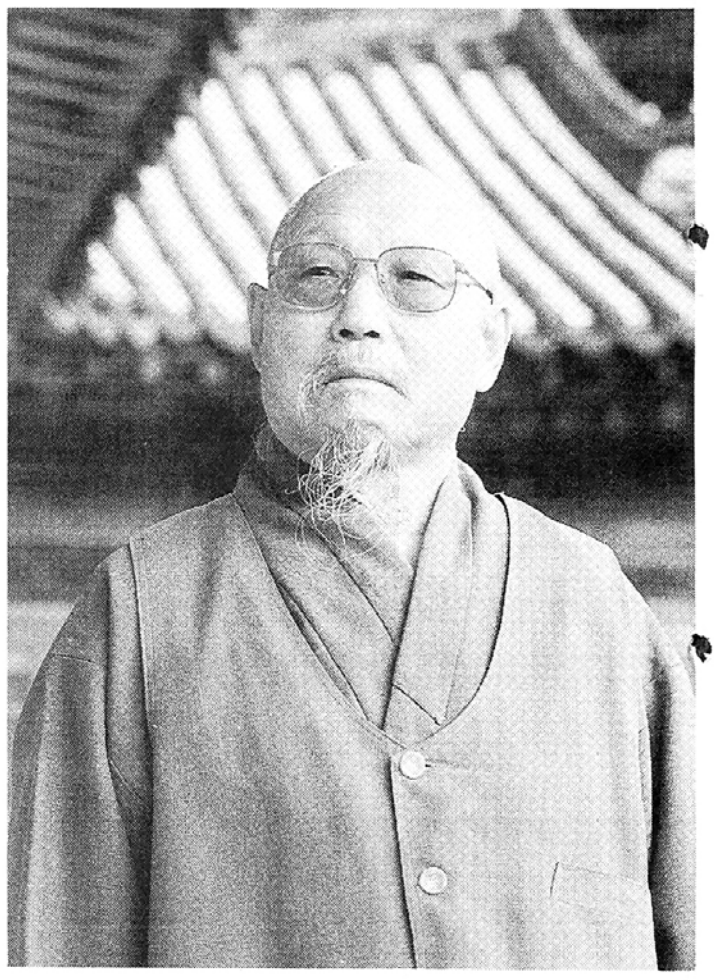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下心으로 제몸 낮추면

인허스님 〈월정사 회주〉

"'나'라는 상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 갖추자 불자라면 마땅히 노력해야"



약력
- 1916년 전북 정읍 生
- 39년 한암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 39년 월정사 강원 수료
- 45년 한암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96년 월정사 회주 추대

깨달음이요? 아직 얻은 것이 없기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해 한암 큰스님을 은사로 줄곧 오대산 사람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가사문이나 재가자나 궁극에 도달코자 하는 저 피안의 깨달음은 팔십년 세월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훌륭하신 스승 만나 깨달음의 직입이랄 수 있는 수행길로 들어서서 복이 큰 사람입니다. 행자시절을 선방이 있는 상원사에서 보낸 탓에 누구보다 먼저 선방생활이 어떤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입산하면 나이 학력 등이 모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모두 무소유(無所有)로 돌아가라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또 사형스님들에게 자주 듣는 용어가 하심(下心)이란 용어였습니다. 하심이란 '나'라는 상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 발심수행자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가지의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수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절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몸에 익숙하게 됐습니다. 즉 속가의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누가 특별히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시설, 생활시설 모든 환경이 지금과는 천양지차였습니다. 경전을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경전을 외우기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 속진의 모든 시름을 태워버리고 부지깽이로 박자를 맞추고 도반행자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면서 경전 구절 하나하나를 외웠습니다. 그 당시 출가한 대부분 스님들이 모두 이렇게 경전을 외웠던 것입니다. 행자생활 가운데에서 따뜻한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지필 때가 가장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자생활의 하루는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매우 빨리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법당내외 청소, 후원에서 밥짓고 반찬만드는 공양주생활, 노스님 시봉, 예불문 암송을 비롯 〈초발심자경문〉등 각종 경전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전을 외우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분위기에서 절로 알아차리는 행자들의 소임이자 도리였던 것입니다. 혹독한 행자생활만큼이나 배우는 것도 많고 신심도 도탑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즈음 스님들은 불공드리는 일과 시식을 하는 것을 출가자의 기본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 불공을 해달라고 할 때 못한다고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공과 시식을 못한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큰 부끄러움이자 결함이며 심지어 죄악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암스님께서도 이 두가지는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방생활 무언의 연속이듯 자신의 참모습 찾으려면 말 생각 끊어진곳 가야합니다"

선방의 참선 수좌든, 공양간 공양주 스님이든, 부목 담당 스님이든 소임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불공과 시식을 반드시 익히도록 가르치셨거든요. 출가인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할 줄 모르면 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스님의 뜻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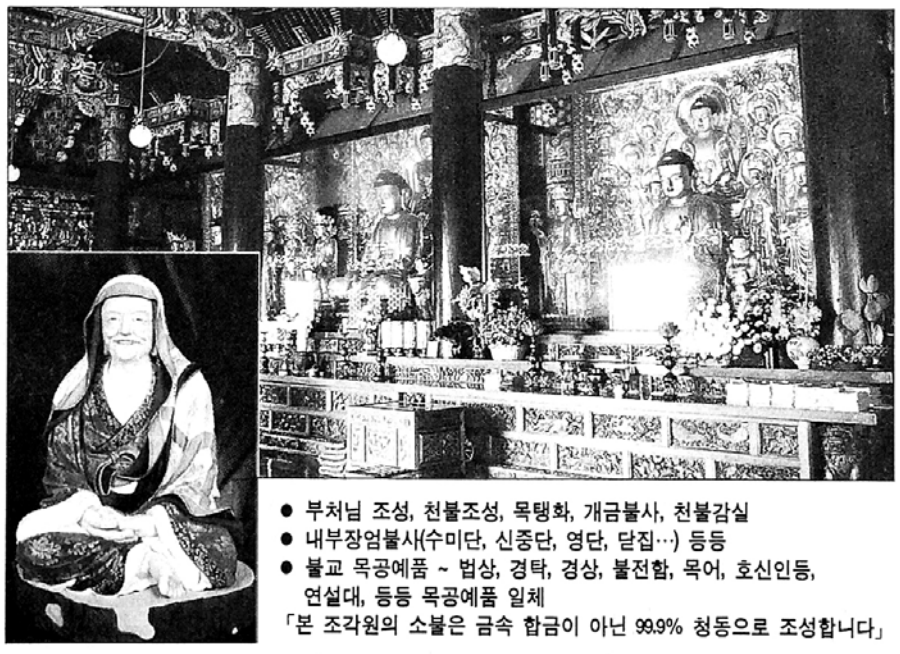
이러한 행자시절을 겪고 나니 한암스님께서 수계를 해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드디어 출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때가 내 나이 22살이었습니다. 한암스님께서는 설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품이 인자하면서도 엄격하고 급한 편이셨습니다. 내 그릇을 보시고는 곧바로 선방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원사 선방은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수많은 수좌들이 수행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방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스님치고 상원사를 거치지 않은 스님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나도 그 틈에 끼어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한암스님께서 내려주신 '이뭣꼬'를 화두로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행자생활하면서 선방수좌들의 생활을 엿보긴 했지만 막상 정진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됐습니다. 대개는 낯이 익었으나 막상 구참수좌들과 같이 어울려보니 분위기는 영 달랐습니다. 그 중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비와 목탁으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만 뜨고 있었지 벙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반스님들끼리 조차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양 할때만 입을 벌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묵언을 하는 선방이라도 꼭 필요한 말 한두마디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선방은 24시간 침묵이 흘렀고 계곡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전부였습니다. 간혹 참새들이 떼지어 지저귈 때는 반갑게조차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산속에 혼자 앉아 있구나 하고 착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공양때의 일이었습니다. 반찬으로 감자볶음이 나왔는데 기름이 부족하고 설익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 던질만도 한데 말입니다. 아마 요즈음 같으면 곧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좌들은 그냥 그대로 조용히 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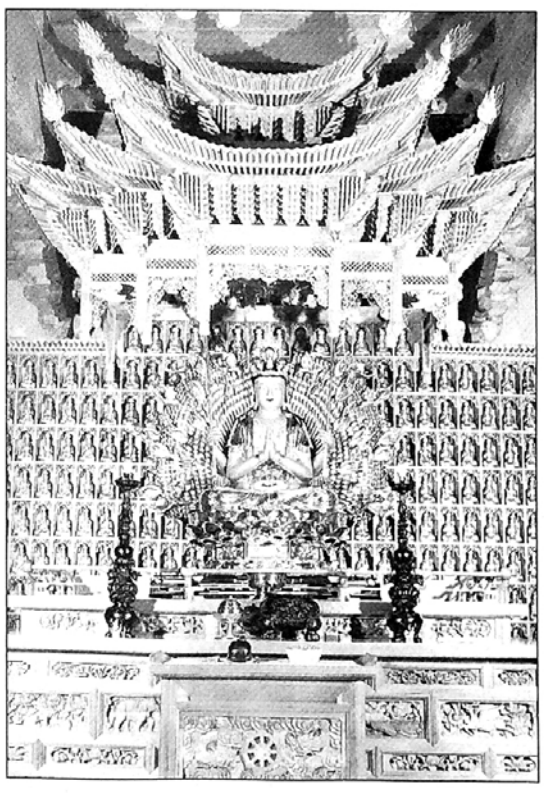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큰스님 수행한담

오히려 마음 편해져요"

"부처님을 바로 알고 철저히 믿으세요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나는 무차별의 일체입니다"



◇을해년(95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마치고 월정사 대웅전앞에서 500여 수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인허스님(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을 할 뿐입니다. 탄 것은 탄대로 설익은 것은 설익은 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수좌들끼리 간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심이 생길 수 있어 수행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말없는 곳, 생각이 끊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사회사람들은 말을 안하면 죄가 되지만 부처님 법에선 각자각자가 묵언속에 마음을 다스려 가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옛 선사들도 이웃과 관계를 끊고 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출가본분을 되새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값진 법문이란 것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시간 앉으면 한시간 부처, 열시간 앉아 있으면 열시간 부처'라는 법문이 자극제가 되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내성을 기르는데 참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3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허리를 곧게 세워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구참수좌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등을 굽히고 가슴을 조이며 이리저리 천방지축 날뛰는 모습은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자신의 본

저는 그래도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선방을 찾지 않고도 참선수행할 기회와 장소가 쉽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큰 선지식이신 한암스님 문하에서 지도를 받으니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6년여동안 오대산 상원사에서 화두를 들며 선방에 묻혀 있다가 여기저기 만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 잊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산 대원암에서 탄허스님이 〈화엄경〉을 출간할 때 원만한 탈고를 위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행위를 경험한다는 것은 신선하지만 기도수행은 나에게 특별했습니다. 즉 처음 터럭만큼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지간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망경〉 보살계본에 보면 '수행의 기틀은 기도를 통해 닦고,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밝히며 지혜의 달빛을 가득히 하는것이 삼학(戒, 定, 慧)이라면 그 근본은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나 참선이나 큰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기도를 잘못하면 백일이 지나도 천일이 지나도 다 허망한 짓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기도후에도 '과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의 땀을 흘렸는가' 하는 참회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정진, 참회야말로 수행의 삼박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부처님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기도, 정진, 참회하는 가운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신심도 안생기고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포교활동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시방제불의 근원이요. 만유의 근원인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 부처님이십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오고 감과 생멸을 모두 떠나 우주에 영원히 상주하는 분입니다. 법신(法身)으로 우주에 영원히 계시고 화신(化身)으로 온누리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법 그 자체이며 모든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중생의 고난을 구제해 주는 자비 원력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석 예불시 우주를 이끄시는 분으로 삼계도사를 송하며, 생명의 근원으로 사생자부라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중생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본질이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과 나는 평등 무차별의 일체임을 알 때 우리는 생명의 고양에 귀환케 될 것이며 생사고해에서 해탈케 될 것입니다.

자신을 꽁꽁 묶어놓은 번뇌의 사슬을 끊고 나설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출가한 스님들은 가리켜 구름 흘러가듯 물 흐르듯 간다고 해서 운수납자라고 했습니다. 세속에 사는 여러분은 고해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벗어날 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김종근 기자

기도-정진-참회 불자의 세가지 의무

"잡념 끊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수행"

싶을때 묵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타성에 젖다보면 수행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머릿속에 한줄기 맑은 샘물이 흘러들었을 때, 아침에 동트듯이 무언가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묵언정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좌불와(長坐不臥)하는 스님들, 오후불식(午後不食)하는 수좌들이 늘어나고 선방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입방할 때는 행자시절 어떤 스님에게 들은 달마대사의 '면벽9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 아찔한 생각이 들더니 시간이 갈수록 요령이 생겨 그 뜻에 조금씩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

래 모습을 살펴 찾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정진의 힘을 길러두어야 눈이 감길 때 정념(正念)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끊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수행입니다.

"부처님 법은 어려워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분을 깨달은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법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지껄이면 마가 될 뿐이다"라는 한암스님의 법문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결국 함부로 입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일 때 가섭존자가 미소를 짓는 도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억만겁을 지나도 절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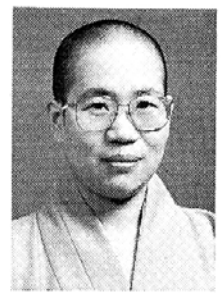
또 〈화엄경〉보현행원품에도 '모든 것을 기도로써 시작하고, 기도로써 수행하며, 기도로써 성불하라. 한순간도 기도의 일념을 쉬지말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순간도 헛됨이 없는 수행을 하려고 하루에 3시간씩 4번 그러니까 사분정근을 3년간 지성으로 했습니다. 주로 염불이외에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참선공부나 염불기도나 일심(一心) 일념(一念)이 돼야 합니다. 기도에 들어가면 3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데 온몸이 저려와 일념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보면 염불하다가도 졸음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저려오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수마를 끊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열반경과 경전 30





계환스님
동국대 교수 · 불교학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그토록 원하던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재산과 소유물 일체를 놓아두고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체 철저하게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명제를 놓고 모든 종교가 생겨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종교와 죽음의 관계는 절박하고도 밀접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 고통스러운 쪽은 죽은 자 보다도 오히려 남은 자들이 아닐까 한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반려를 잃거나,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여기던 자식을 갑자기 잃었거나, 이제부터는 효도하고자 다짐했는데 부모를 잃어버리고 애통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나는 한결같이 〈열반경〉의 말씀을 들려준다. 〈열반경〉은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또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법을 등불로 삼고(法燈明) 자신을 의지하여(自燈明) 밝게 비추며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이다. 말하자면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의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 석가모니에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대승열반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불신상주설(佛身常主說)이다. 부처님의 법신은 항상 계시다는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부처님의 육신은 열반에 들었지만 깨달음으로서의 법신은 영원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는 열반사덕(涅槃四德)인 상락아정(常樂我淨)

삶과 죽음 무상함 일깨우는 가르침
삼독 끊어 도달하는 이상세계 제시

바로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삶과 밀접한 경전이기 때문이다.

〈열반경〉에는 〈소승열반경〉과 〈대승열반경〉이 있다. 먼저 전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살아오신 생애와 열반 이후 사리분배에 이르기까지 저간의 사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내용은 부처님의 법신은 영원하다는 것과 열반에는 네가지 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교리적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실 우리 중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부처님의 열반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열반이야말로 위대한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일지라도 영원히 이 세상에 상주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육신소멸로써 여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고 하는 불교의 진리를 사실 그대로 입증하심과 동시에 부처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결코 신격화하지 않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보다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당신의 열반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다. 즉 제자들이의 가르침이다. 즉 열반은 항상하고, 즐거우며, 열반의 주체는 나이고, 진실로 청정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무상한 것을 항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삶 그 자체가 고통임을 모르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더러운 내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집착하는 전도(顚倒)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셋째로는 모든 중생들은 한결같이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悉有佛性)는 가르침이다. 이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있다. 즉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면 중생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부처라는 뜻이다. 따라서 〈열반경〉은 우리의 현실생활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 즉 불꽃같이 치성하는 삼독(三毒)을 끊음으로써 최후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그것이 바로 열반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같이 〈열반경〉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찰과 영원을 지향하는 중생들의 간절한 물음에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인생관을 확립시켜 주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겠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 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60호(1996년. 1 . 3)-제 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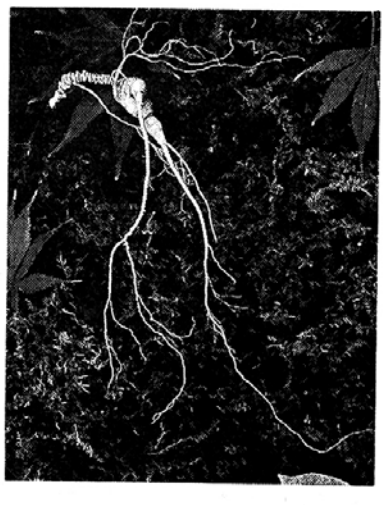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킨증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奉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상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교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3년 연재 마치며

"우리는 수미산의 자식들"

작가의 말

'수미산' 149회를 마쳤다.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나도 흘러와서 여기에 이르렀다.

20대의 어느날 〈유마경〉을 처음 만났다. 거기에는 극소(極小)와 극대(極大)가 하나인 것에 놀라는 나 자신이 있었다.



ⓒ고은 사인

사리불이여 모든 불보살에게는 불가사의란 이름의 해탈이 있다. 만일 보살이 해탈에 이르면 수미산처럼 높고 넓은 것을 겨자 속에 넣어도 그것에 의하여 어떤 증감도 일어나지 않는다.

> **소설속의 수미산은 무너졌으나 수미산 모습은 원래대로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수미산의 모습은 원래대로 있고 사천왕이나 33천의 신들은 그 자신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다만 부처님의 인도에 따르는 사람만이 수미산이 겨자 속에 들어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불가사의의 해탈법문이라고 이름한다.

지금이라고 해서 어찌 내가 겨자씨와 수미산을 대반에 하나의 이름으로 들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수미산이란 우주를 처음으로 꿈꾸던 젊은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이다.

그렇다면 시간도 그때 그대로일 수 밖에 없음이다.

하지만 수미산은 이미 그 안팎에 헤아릴 수 없는 겨자겁(芥子劫)의 시간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것은 그 시간의 자식인 것이다.

어찌 나라고 해서 그런 자식들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나는 수미산 세계를 반드시 소승의 세계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승은 수미산이고 대승은 연화장세계라고 구별하지 않는다. 〈화엄경〉 '화장세계품'의 바탕이 바로 수미산이기 때문이다. 소승이 대승의 바탕이고 대승의 씨앗이 소승이기 때문이다. 아니 소승과 대승은 한동안 사람의 눈을 속여서 대상을 두 개로 보이게 할 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소승과 대승의 역사를 넘어서 가능하다.

나는 '수미산'을 쓰기 시작할 때의 포부가 있었다. 그 포부는 '수미산'을 쓰는 동안 내내 함께 한 것은 아니었다.

사바세계의 한 무인도를 개척한 야생의 수행자들이 만든 시절인연을 그린 나머지 그 저쪽에 수미산이 솟아난 것이다.

아마도 '수미산'은 소설이기보다는 시일 것이다. 시의 서사(敍事)가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 행위로 유효한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소설이란 근본적으로 현실을 그리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제한된 세계에의 집중을 뜻한다.

그러기 때문에 수미산의 세계가 우주적 감각을 주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소설적 시각으로 대응한다면 황당한 비현실일 수도 있고 초현실의 혜업치기일 수도 있다. 그럴진대 누군가가 몽유병이라고 비난하는 일도 능히 감수해야 옳다.

하지만 우주 혹은 비현실이 얼마나 정실한 리얼리티로서의 현실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소설문법은 이제 건너뛰어야 한다.

너무 많이 보이는 3계에의 집착이 인간의 자아와 무아의 창조적 활동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변변치 않은 '수미산'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식구들의 우애만으로도 지난 3년은 복되었다. 김광삼사장 최정희국장을 비롯해서 편집국 벗들의 청정한 수고는 임연태 윤기석기자의 교정, 전산실의 젊은 보살들의 그것과 함께 내가 받은 크나큰 공덕이었다.

여기에 조향숙여사의 눈부신 삽화가 없었다면 어디 '수미산'이 용이나 쓸 수 있었던가. 어떤 뜻으로는 이 '수미산' 연재는 '수미산' 삽화의 연재였다.

이것을 마치면서 나는 상상속의 수미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히말라야산맥 중앙을 내다보는 현실의 수미산 순례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미산'은 수미산의 소멸이 주제였음을 글으로 밝혀둔다. 감사하다.



한가의 말

조향숙 화백



"선택은 선택한 사람에게 부딪친 사건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설 '수미산'에는 이와같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말이 많다. 조선후기 방랑승 인담이 예성강 전포나루에서 만난 실성한 남자 우녀를 2백냥에 선장으로부터 사는 데서 시작되는 수미산은 마치 장엄한 만다라그림처럼 우리를 감동시킨다.

삽화를 그려오면서 개개인의 성격묘사보다는 좀더 수미산이라는 구도소설의 총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노력했다. 끝난 지금 좀더 표현력이 있었으면 더 잘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화 남각 붙이 합두 무전 파현 수원수월… 등 22명의 수행자들이 저마다의 발원과 업보에 의해서 권력하며 시련과 고통, 그리고 환희로 뒤범벅된 구도의 길을 걸어 모여드는 대장정이 대 서사시로 펼쳐져 삽화를 그리며 내내 나도 그들의 구도여정속에 있었다. 그들이 시련을 겪고 고통속에서 갈등하며 또 환희심에 휩싸이곤 할 때마다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구도행렬에 동참했던 것이다.

"본래 空한 것도 없어요. 공연히 색이다 공이다 하는 말을 지어내어 우리들을 더 무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도반이자 스승 인담에게 맞서 영감에 찬 지혜를 번뜩이며 간화(看話)와 묵조(默照)에 구애받지 않는 공부로 무욕도의 도반을 이끌어가는 우녀에게 그동안 너무나 매료되었다.

윤회 자체를 일상적인 정진의 도량으로 삼고 그 윤회의 발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수미산이야말로 구도자의 궁극일터 그 궁극까지 도달하는 방편으로 우녀는 무욕도의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니 우리도 이 사바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수미산은 구도자의 피안
22명 구도의 길 동행 '환희'

소설 수미산을 읽고…

김희균 〈前 대중불교 편집장〉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관을 이루는 거대한 산이다. 그 불교의 우주세계 수미산을 어떤 사람들은 '상상의 세계'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수미산이 진정 상상의 세계라면 경전의 그 광대무변하고 청치하기 이를데 없는 낱낱의 묘사는 과연 누구의 번뇌란 말인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으려는 탓이다.

우리시대의 거목이며 한국문학의 큰 산맥 고은 선생은 수미산의 광대한 세계를 바로 우리들이 숨쉬는 이 땅에 설정하고, 우리의 댓씨워진 의식이 허물을 벗어가는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그동안 고은 선생의 수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선생께선 이미 수미산 탐구를 끝낸지 오래일 것이라고 여겨왔었다. 수미산에서 도무지 탐구자의 조심스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통쾌하게 내달리는 글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이해했다. 작가는 이 땅의 수많은 '존재'들에게 수미산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수많은 상징과 은유를 동원하여 종횡무진 그림을 그려나갔다. 마치 쓰는 이가 "어떤 선생의 기억장치가 나와서 마구 퍼부어대는 서술의 폭포가 되기도" 하였고, 수미산의 어떤 영매로 하여금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을 받아쓰는 것같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많은 등장인물을 인도해 가며 그들이 머무는 세상들을 보여주는 모습은 흡사 끝없는 바다속을 헤엄치는 고기떼를 앞장서 인도하여 어떤 목적지로 안내하는 것처럼

혼자서 갈수 없는 긴 여정
장엄한 적멸의 대단원 '감동'

보였다. 뭇 존재들을 그 무욕의 수미산으로 안내하려는 보살의 서원이 실현되는 현장이었다. 그렇게 광휘로운 우주법계를 넘나들며 의식의 높고 낮음을 펼쳐보였으니, '감히' 쓰는 이의 경지를 짐작했거니와 평범한 붙자들에겐 결코 이해가 쉽지 않을 것처럼도 보였다.

수미산을 향하는 시발점은 누구나의 가슴속에 있다. 수미산에 올라 장엄한 법계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도 의식의 발전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결코 혼자서만 갈 수 없는 그 길고 긴 여정. 소설 수미산은 그 길고도 아름다운 체험의 여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고 다양하다. 이것이 모두 함께 가려는 대승이고 보살의 정신일 것이다.

소설 '수미산'이 우리에게 더없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소설의 출발점인 무욕도는 만공스님이 비로소 달을 '만났'던 서산땅 간월도(看月島)이다. 지금도 우리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간월암이 그곳에 있다.

고은 선생은 바로 지금 이시대에, 한 때묻지 않은 우리들 정신적 고향에 수미산을 안치하고, 바로 나와 우리들의 도반, 우리들의 스승이 변화무상한 내면의 갈구를 헤쳐나와 그 거룩한 찬탄의 땅 수미산에 안착되도록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 혼돈의 시대,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가슴벅찬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환희롭게 보여주고자 했다.

불이와 합두처럼 때로는 업질(業質)에 따라 지옥도에 혹은 아귀도에 떨어지든 '존재'의 궁극은 수미산에 도달하는 것임을 수미산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궁극이란 무엇인가. 그 궁극은 도달해보지 않은 자가 지레 '상상의 세계일 것'이라며 포기하는 지점이 아니라 온전히 획득하고 나서 온전히 놓아버리는 지점임을 밝히고 있다. 해서 소설 수미산의 마지막은 수미산 자체가 장엄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다 무너지고 다 놓아버린 적멸의 상태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아흐! 무어라고도 더이상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것도 없는, 표현할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버린, 그저 '아흐!' 뿐이다.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 재질 : 청동 100%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 大(40.5cm), 小(26.5cm)-2종류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관 음 손 720-1147~8	진 영 사 734-3116	광 명 사 732-4792
삼 보 원 732-9904	성 불 사 735-3545	녹 야 원 739-0957
삼 복 사 733-0903~4	신앙불교사 735-6719	불교서적사 732-8086~7
건지불교사 739-3032	종합불교사 733-6655	이화불교사 720-1700
불 사 원 720-5678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창의성 교육 깨달음 정진과 흡사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7〉

창의적 인간 특성과 반야(般若)

오늘날의 사회를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기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사회라고 한다.

다음 사회에서의 삶은 분명히 현재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영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처하는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까지 하여 온 교육은 산업사회에 알맞은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간 육성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상이 바로 창의성이 풍부한 인간상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력 없이는 살기 힘든 사회로 될 것이다. 음식점을 경영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답습하면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점은 벤처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점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창의성 개발에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아마도 공부하는 시간량으로 보아 우리 나라 학생같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 공부 가지고는 부족한지 방과 후에는 제2, 제3의 학교인 학원에 다니며, 고등학교 학생은 삼당사락(三當四落)이라는 처참한 생활을 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은 무슨 까닭인가? 말할 나위도 없이 암기 위주의 교육 때문일 것이다.



그림 · 이준석

창의적 청소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다 그림을 그릴때는 그림과 하나가 된다 이를 삼매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암기위주의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할 수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암기와 관련되는 일은 컴퓨터가 맡아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을 철저하게 창의성 개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창의성은 흔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창의성은 반야(般若)사상의 속세적(俗世的)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반야는 '깨달음을 얻는 지혜'이기 때문에 창의성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창의적 특성은 반야를 얻기 위한 정진의 과정과 흡사하다.

첫째 창의적 청소년은 탐구적인 존재이다.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하늘은 왜 파란가?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다고 하는데 왜 무겁지 않은가? 별의 총수는 몇 개인가?"등과 같은 의심에서 출발하여 이 의심을 풀기 위하여 탐구한다.

불교에서는 탐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참구(參究)'라고 한다. 역시 의심에서 시작하며 이 의심을 파하는 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나는 부모로부터 탄생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父母未生前消息),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是甚麽), 개에는 불성이 없다고 하였는데(無字話頭), 부처를 뜰에 있는 잣나무라고 한 까닭은?(庭庭柏樹子)" 등의 의심(話頭)을 참구함이 곧 반야(般若)이다.

둘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직관적 사고를 한다.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와는 다르다. 있는 사물을 진실 그대로 전체로서 파악함이 직관적 사고이다. 한 폭의 그림을 보고 무릎을 탁치며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음악에 도취하여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직관적 사고이다.

뉴튼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만유인력(萬有引力)의 법칙이 번개와 같이 떠올랐다. 논리가 단절되는 순간이다. 종래는 직관적 사고는 예술과 종교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과학, 문학, 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직관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직관적 사고를 하는 순간에는 글과 말이 끊어진다. 브르너(Bruner)는 "말 잘하는 바보, 말 못하는 천재"라는 표현으로 직관적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

직관적 사고의 최고 경지가 바로 반야이다. 그러기에 선문답(禪問答)이니, 인가(印可)니하여 깨달은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다. 깨달은 경지를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말 못하는) 분명히 진여(眞如) 자체는 알고 있다(天才).

일정시대 경성제국대학의 사토(佐藤) 교수가 방한암(方漢岩) 큰스님을 찾아 뵙고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때 스님께서는 묵묵히 안경을 들어 보였다. 직관적 사고의 세계이며 반야의 세계이다.

셋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한다.

창의성과 고정관념은 상반된 사고(思考)이다. 고정관념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하여 해결하는 인간이 창의적인 인간이다.

다음 일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현대그룹에서 서산 간척지를 만들 때 있었던 일이었다. 제방을 쌓아 바다를 막고 있었는데 260m 정도를 남겨 놓고는 물살이 너무 세서 바다를 막을 수가 없었다. 토목공사에 이론이 밝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협의 하였으나 묘안이 없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의 제안에 따라 길이 323m, 높이 27m, 폭 45m의 스웨덴제의 헌 유조선을 사다가 막지 못한 부분에 가로질러 가라 앉혔다. 그리하여 물살이 약하게 된 틈을 타 나머지 제방을 쌓았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정주영 공법'이 되었다. 이 얼마나 고정관념을 벗어난 다양한 사고인가?

불교에서도 다양한 사고를 한다. 반야를 얻기 위한 법문이 8만 4천이나 되며 참선의 공안(公案)이 무려 1700이나 있다. 반야는 세속적인 고정관념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넷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몰두한다.

"침식을 잊고 열중한다"는 말이 있다. 그림을 그릴 때는 그저 그릴 뿐이다. 이 그림을 그려서 팔면 돈이 얼마나 생길까? 친구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따위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릴 뿐이다. 그림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과 내가 하나가 된다. 밥이 타서 밥탄 냄새가 방안에 가득 찰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책만 읽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매(三昧)라고 한다. 심일경성(心一境成)이라고 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정신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정신작용이다. 반야(般若)는 삼매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참선삼매, 염불삼매, 독경삼매는 반야에 이르는 빠른 길이다.

다섯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현실 문제를 초월한다.

창의적인 청소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좋아서 그리고 즐거워서 하고 있다. 물질적 보수나 관능적 향락이나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나 시간적 낭비 같은 현실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반야는 현실을 완전히 초월해야 얻을 수 있다. 희로애락의 현실 세계는 상대적 세계이며 차안(此岸)의 세계이나 반야의 세계는 현실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이며 피안(彼岸)의 세계이다.

이 점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마하반야바라다심경(摩訶般若波羅多心經)의 뜻이 "큰 지혜가 있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탐구능력 · 직관적 사고 키우자" 정보화사회일수록 '암기'는 불필요

생활불교용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고 할 때 "이심전심이지"라는 말을 쓴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뜻이 통할 때도 "이심전심이야"라고 한다. 흔한 말로 '척하면 알았을 때'도 '이심전심'이라고 한다.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전한다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그리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이 수반된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도 한다.

무엇을 글도 없이 말도 없이 타인의 마음속에 전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해주는 기록이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를 비롯한 삼처전심(三處傳心)이다.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던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아무

이심전심(以心傳心)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삼처전심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 통함

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빙그레 웃어 보였다. 두 번째 이심전심은 부처님께서 죽림정사 다자탑에서 설법하시던 중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와 대중들이 경멸하는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당신이 앉아 있던 자리의 반을 가섭에게 내어 주신다.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가섭과 부처님이 분별되지 않음을 본다.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座)'의 이심전심이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찾아온 가섭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인 일이다. '사라쌍수하 곽시쌍부(娑羅雙樹下 槨示雙趺)'라고 한다. 굳이 말이 필요없는 사이, 상대의 의중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을 때 이심전심으로 마음의 화합을 가질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 마음(心)을 일컫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의 마음을 일컫는 '김심(金心)' 'YS심(心)'이 그 대표라고 하겠다. 눈치빠른 정치인들은 그 '김심'을 파악하느라 정말로 헤아려야 할 민심(民心)은 안중에도 없다보니 정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얼마남지 않은 대선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심과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히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관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70-3102

◆대 보 생 식 ◆
잠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심.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이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완치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관 강 좌 관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맞문이 트입니다.

박삼중스님의
금강경 강의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강의
●위치 : 대구 수성구 매호동
자비정사
053)793-0268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룡 지 사
0391)43-5599

전 워커힐 신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찬불가요·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팝송·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강남교육구청 신고 제9657호)
강남역 8호출구 앞 3층건물의 2층

신 생 아 작 명
역 학 개 인 지 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자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직응법 지도

◆태극권·대안기공·참선◆
- 심신수련, 질병퇴치, 체질개선,
- 학생성적향상, 호신술, 집중력

◆氣 치료(팔괘상수요법)◆
- 모든 병 고침 (스님 환영)

◆ 생활역학 개인지도 ◆
- 초보자 쉽게 지도(3개월)
- 철학원 하실 분 꼭 상담바람
※감정비법 있음
02)242-6188
금 륜 정 사
덕 치 합장

법화강의안내
천하도인 황무제께서도 육신통과 금단식으로 팔백년을 장수한 기도날인 음10月15日 庚申日 정오시에 천문이 열리며 천가지 복을 받은 12~1시30분까지 四柱장본으로 수명장수, 부모형제자녀 체질과 질병, 길흉화복과 부부의 運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수행법 강의.
두루 동참하시어 본인의 주변을 봉사하고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 입제일 : 음10月14日 해시 입제
◆ 해제일 : 음10月15日 해시 해제
◆ 회 비 : 1박2일 5만원(침식제공)
직통 02)821-6622 야 02)923-3110
012)1786-3112 017)236-3110
육경신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관 구인·구직 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동 두 천
0355)867-4132

천년고찰에서 기도정진하며 사실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1-24
중화사 주지
0414)42-2057

사찰(포교원)에서 불교대학 다니며 수행할 젊은이 구함
※학자금 및 생활비 지급
032)503-4883/4886
017)321-4883
부름정사 주지스님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443-45-7604

◆ 기도객 받습니다 ◆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 조용한 산사에서 수양하실 분들 연락바랍니다.
다솔사 부근 0593)854-0262~3

◆수양·공부·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반려자 구함
■본인소개
· 나이: 닭띠(41세) · 학력: 대졸
· 신장: 173cm, 80kg · 직업: 조경업
· 4살 남아 있음
■여성의 조건
· 나이: 30~38세 · 학력: 무관
·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불자여성 원함.
Tel : 062)227-6959(저녁전화要)
호출: 012)650-6959

관 불교용품 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금강경 10폭 병풍 법보시 ◆
천알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경명 108직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예 진 솔◆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太成佛教社◆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2-7375

◆ 아전전통칠기공방◆
목발우·제기·다기잔
·소반·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 팩스 전화주문 가능

관 불교 미술 관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佛心 여래미술원
·탱화·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1-6581
0346)575-5133 (화실)
011-324-5133 011-737-6581

大圓佛教美術院
金魚 李 鍾 春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울산(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멍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9-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工 합장

관 사 찰 안 내 관

전국 사찰부지·포교당
양도하실분, 매입 운영하실분
연락주시면 성심연결!
02)468-2343
019)234-0417
신안개발 성 운 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밑
◇ 평 수 : 대지 45평
◇ 가 격 : 1억 2천만원
◆ 요사채는 신식시설, 방2개(거실 15평)
◆ 사정상 급매
02)914-5447
02)911-1319(直)
011)271-0669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대구시 효목동
◇ 평 수 : 법당 60평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053)944-0778
0599)32-8216

포교원 안 내
◇ 위 치 : 부산 광역시 최고요지
◇ 평 수 : 46평 (4층)
◇ 구 조 : 법당 1, 거실 2, 주방 1
◇ 가 격 : 보증금(시설비포함) 4,000만원 월 60만원
051)467-5200
영 신 농 산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영천 고경부근
◇ 평 수 : 임야 1만평중
- 대지 400평, 법당 20평,
- 산신각 3평, 용왕각 4평
- 석불 입상불 (5m) 요사채 40평
◇ 가 격 : 절충가능
◆ 황수탕 약수 유명
011)819-0803
012)483-1798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 평 수 : 50평(건물에 옥상 있음)
◇ 가 격 : 보증금(시설비 포함) 절충가액 2,500만원
※ 월세 35만원
◆ 기본 삼존불상 있고 부처님 오백불 봉안됨
053)614-9974
012)1171-7935

암자(전원주택)
◇ 위 치 : 경북 청도
◇ 대 지 : 208평
◇ 97년 신축-주택 30평, 창고 36평
◇ 가 격 : 9천만원
◆ 특 징 : 100m 지하 암반수
교통 경관 좋고
마을에서 떨어져 있음
※ 인접토지 확보가능
0542)71-0847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내
◇ 평 수 : 399평
- 실사용평수 : 700평
- 임법당, 산신각, 칠성단, 용왕각, 범종각
◇ 가 격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인가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목이 울창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2)1585-4204

경북 김천(계곡좋은 유원지)
◇ 종교용지 : 580평
◇ 건 물 : 28평(임법당외 10평, 기타10평)
◇ 가 격 : 1억 8천
◆ 스님에 한하여 1억 5천까지 양도가능
(가든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은 많은 조정안됨)
단, 뜻을 같이 한 불자로서 투자한 금액만큼 이곳에 투자하고 일생을 함께 살아가실 분이 계시면 집건후 매각하지 않고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기 바람.
0547)437-4135~6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합천
◇ 평 수 : 대지 300평
◇ 건 물 : 법당 22평, 요사2동, 방4칸
◇ 가 격 : 8천만원
0599)34-0076
011)847-0076
※ 법화행자 우선

◆위 치 : 충북지역 시내 교통중심지
◆부 지 : 743평 목조 단청 및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법 당 : 21평 목조 단청 및 등기 필
◆요 사 : 50평 점전실 및 주지실 공양칸 기타 대중방
◆가 격 : 1억3천5백만원/차량 2대 운행중
◆특 징 : 시내 중심지에 소재하면서 목립된 산속에 위치한 기도 및 포교도량의 본산.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물,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5)124-6334
(24시간 호출要)
서 울 본 사 :02)3705-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찰부지 안내
◇사찰부지 : 50,000평
◇매가 : 3억(평당 6천원)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용도 : 사찰이나 불교 수련원 및 양로원과 납골당 및 합골당으로 가능한 최적지
◆ 사찰부지 300만원에서 2억까지 사찰 3,000만원에서부터 전국 어디든지 원하는 곳 좋은 인연 맺어 드리겠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요 달려가겠습니다.
0371-762-0101
011-466-1802
012-397-6003
천 운 개 발 한 상 철 합장

전국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및 포교원 명 당 부 지
◇ 위 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악파크호텔 정문에서 2·3분 거리)
02)379-8404, 8425

관 숭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탈 종 공 고 관

대한불교 조동종 귀하

사찰명 : 천 불 사
■주 소 :
경주시 양남면 석음리 261-2
■주 지 : 혜원 천 태 용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 11. 1.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관 표 구 관

◆성 신 표 구◆
인사동 02)734-2344

◆낙 원 표 구◆
인사동 02)734-2972

◆명 륜 표 구◆
인사동 02)736-1712

◆박 당 표 구◆
인사동 02)735-5696

◆고미당 표 구◆
인사동 02)735-2037

◆신신표구사◆
인사동 02)735-2710

◆서 광 표 구◆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관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동 성 방 화 랑◆
고서화.한국화
02)723-6577

◆금 성 화 랑◆
인사동 02)733-2462

◆가 람 화 랑◆
인사동 02)732-6170

◆경인미술관◆
인사동 02)733-4448

◆ 대호고미술전시관 ◆
답십리 02)212-8777

◆예 림 화 랑◆
인사동 02)732-3318

◆대 림 화 랑◆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동 원 화 랑◆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관 기 타 관



禪詩 · 눈부신 법열의 노래 「대원 문재현시」 헌정화
바로보인 출판 02)597-2460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광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긴장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장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초청 / 좌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장 소 /본회 서울도장
〈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한국참선명상협회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
부산:051)501-8335~6 / 대구:053)742-919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못난사람 예전 내 모습인줄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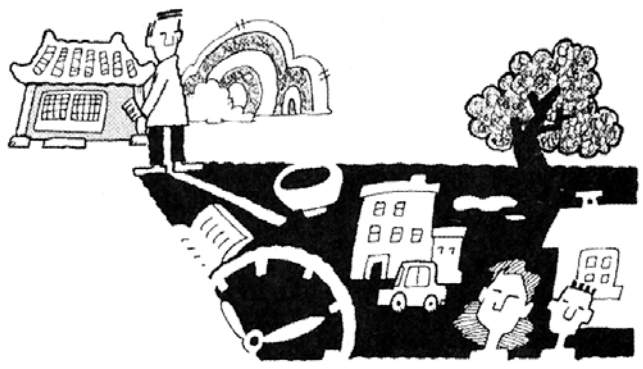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진리의 끈으로 연결"
"익을수록 숙여야…푸를땐 꽃도 열매도 없어"

스님 법문 대하면 눈물나

문 현대불교신문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불자입니다.
작년부터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나 경을 읽을때 까닭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만전엔 현대불교신문의 법공양 페이지가 대폭 늘어난 것을 대면하는 순간 그만 '헉헉' 소리를 낼 정도로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같은 느낌에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몸뚱이도 혼자가 아닙니다 둘이 아닌 도리 체험해야 해결을 해도 그냥 되지…"

답 불자님들 중에는 그렇게 까닭모를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과거의 내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또한 거울을 보고 절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울 속의 내가 거울 밖의 나를 보고 거울 밖의 내가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거울 속의 나는 내 육체의 환상이지요? 그리고 거울 밖의 나 또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하여 나툴 뿐이지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평등공법이란 말입니다.

'공심' 으로 사는게 수행인지

문 제가 알기로는 49재나 영가천도 등의 종교의식이 부처님 재세시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몰록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도 조상천도가 되는지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굳이 목표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다가으는대로 그저 열심히 하면서 주인공에 일임하여 공심으로 살면 그게 수행이요 참선이 되는지요?

답 누구든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달린 것이고 다들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각자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가 있으니 자기 자신이 알아서 행할 일입니다. 요는 행을 하되 진실하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하듯이 그렇게 제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제 뿌리를 믿어야 바르게 계합이 되는 도리도 알 것입니다.
자세히 되돌아 보십시오. 이 몸뚱이가 움죽거리는 거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또 마음의 작용은 어떻구요?
그 또한 워낙 많아서 육체도 그렇고 마음작용도 그렇고 어느 때를 꼭 집어서 이것이 나다, 내 마음이다, 내 몸뚱이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도 한마음 없는게 한마음이요, 부처님도 부처님 아닌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느게 옳으냐 그르냐 하고 따지는 마음보다 제 뿌리를 굳게 믿고 맡기는 진실한 행이 중요합니다. 그게 참선이지요.

'둘아닌 도리' 로 사는 길

문 제 체험담입니다. 제 집 보일러가 노후된 탓인지 모처럼 작동하려 하니까 심하게 소음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길래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틀었는데 보일러는 아주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불이 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주인공 이것 또한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했는데 그후부터는 열 적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스님! 죽어야 너를 보리라 하셨는데 제가 둘 아닌 도리를 느끼며 가고 있는 것인지요?

답 잘된다 안된다 하는 그 생각조차도 굴려서 나온 자리에 되 놓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잘못되게 하는 것도 너이니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돌려서 놓고 잘 안되는 것은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고 돌려 놓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출가' 를 고민중입니다

문 모든 걸 둘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과 속가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쉽게 정리가 되질 않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고 맡기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일상의 생활 속에 도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24시간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이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입산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문제에 앞서 가정생활 속에서 주인공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하신 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가정생활을 버리고 입산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십니까? 내 육신의 짐도 짐이지만 가정의 짐을 누구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겠습니까? 생활속에 도가 있으니 그 속에서 당신의 주인공부터 발견하십시오.

환경오염 · 인륜파괴 심해

문 이 민족과 지구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과 인륜의 파괴가 극심합니다.
이 말법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내 탓이다 하고 참회한들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답 먼저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고 안되고를 다 놓아야 그 뜻이 허용됩니다. 그러니 제 몸 안의 수많은 생명체부터 한마음으로 조복해서 둘이 아닌 줄을, 스스로 체험을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일체는 공하여 내가 없고 한다 안한다는 그런 것조차 없어야 지구를 구하든 말든 그 뜻이 허용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뚱이 이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했다, 혼자 산다 이러겠습니까? 모두가 더불어서 같이 한동체 속에서 잘해도 같이 잘하고 잘못해도 같이 잘못한 거니까 해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을 해야지 혼자가 어디 있고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체의 의식이 하나로 뭉쳐야 해결을 해도 그냥 되는 것이지 내가 동떨어지게 한 생각을 한다 해서 되는게 아니지요.
자기 몸뚱이를 놓고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뚱이가 위성이기도 하고 블랙홀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를 터득하면 다 터득이 됩니다.

이승 저승 어떻게 다릅니까

문 스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갈리고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초심자라서 이렇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승과 저승을….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고 현재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승과 이승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자야만 낮에 일을 할 수 있으니 밤낮이 한데 합쳐져야만 생과 사도 같이 구르지요? 이게 진리의 끈입니다.
방금 전에 밥을 먹었다고 합시다. 벌써 과거가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요? 먹었으니까 과거는 없어졌지만 현재 속에 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심이고 한데 합쳐서 삼보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 하는 것도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삼보를 공경하고 중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삼보가 있으니가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지요.

보시액 적어 마음 무거워

문 살림이 넉넉치 못해서 남들이 보시를 할 때에도 저는 빠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게 될 경우라도 남부끄러운 금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갈 때에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에 발길이 무겁습니다. 빚만 지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자님들이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한 푼이 되었든 두 푼이 되었든 정말로 뜻깊고 마음 깊숙한 정성으로 시주하시는데 대해 감사할 뿐이지요. 불자님들이 더불어 이 공부를 배우자고 그렇게 애쓰시는 걸 보면 참으로 불자 여러분들께서 본래부터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사시는데 얽매여서 컴컴해졌을 뿐이지, 먼지가 끼었을 뿐이지 본래 부처님이시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푼을 내시더라도 새 돈으로 골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자기 부처님한테 자기가 성실히 산다는 것을 표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만약에 중들이 잘못 마음을 먹고 거저 생기는 줄 알고 잘못쓰게 된다면 또 한세상을 컴컴하게 살테니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하겠지요.
시주하는게 바로 제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는 것과 같은데 말입니다.

'길을 묻는…' 늘어난 이유

문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 난을 즐겨 읽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편집자 나름의 의도가 있겠지만 양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경전말씀을 좀처럼 인용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지요?

답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옛날 부처님 말씀 그대로의 방편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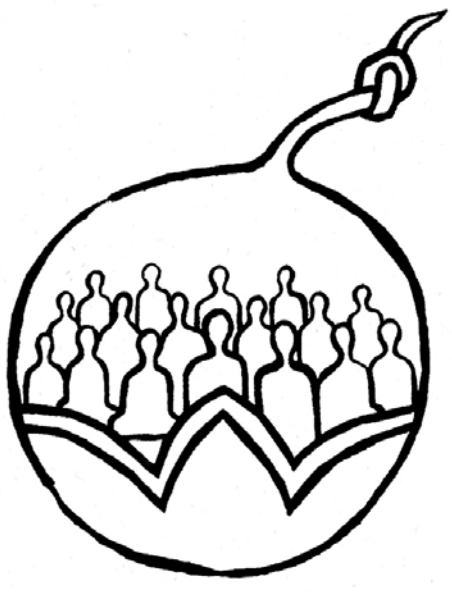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6)

막대한 재산가인데 지출을 염려하랴.

"마음의 근본은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라 할 수 있다. 아니, 태양보다 더한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로 응도에 따라서 무한으로 쓸 수 있다.
빛으로 쓰려면 빛으로 나가고 능력으로 쓰려면 능력으로 나간다. 누구에게나 그런 원력이 주어져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의 법이기에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준다해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스스로 마음을 계발해서 자기의 근본과 계합이 된다면 날으는 미사일도 떨어뜨릴 그런 무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재로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우왕좌왕하게 된다."

한알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보라. 무엇이 있어서 그런 엄청나고 오묘한 일을 해내는가? 육안으로는 알아 볼 수도 없는 세포 하나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라. 누가 있어서 그토록 기적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이 태양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어떤 주재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의 근본 불성은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향, 어머니의 자궁같은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왔고 그것에 의해 만들어졌다. 고로 그 이름은 절로 옷깃이 여며지는 그런 이름이요 우리 모두가 마침내는 귀의해야만 할 유일한 '절대'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있다. 그 '절대'와 내가 탯줄로 이어져 있음을 모르고 산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애를 쓴다.
모든 생명을 낳게 했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그것-불성을 외면하고 우왕좌왕 구걸행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남보다 더 뛰어난 행동력, 더 명석한 지적능력, 남다른 건강을 원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남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런 것이 있어야 고통과 불행을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가.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남보다 더 먹어야 하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공적이기 위해 더 먹어야 하는가. 아니다. 육체적인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쓰는 만큼 보충해야 하고 일정 시간을 쓰고나면 누구라도 쉬어야 한다.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은 능력을 바라겠는가.

마음의 힘은 무한대이다. 내 마음이 근본자리와 탯줄로 이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꺼내 쓸 수 있다. 거기엔 한계도 없다. 아무리 꺼내써도 줄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보다 더 뛰어나기를, 어제보다 더 성공적이기를 바란다. 자기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무한의 잠재력을 외면하면서 성공하고픈 욕심만을 앞세운다.
성공하고 싶거든 마음의 힘을 꺼내 써라.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나의 자가발전기를 돌려라. 가령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의 힘이 십분의 일 쯤이라면 풀 가동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열 배나 큰 힘을 내지 않겠는가.

무한의 힘을 꺼내 쓰려면 먼저 마음이 순수해져야 한다. 단순해져야 한다. 복잡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방황, 결과에 대한 초조감 따위는 마음의 근본 자리로 향하는 길을 방해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로지 순수하고 단순해질 때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레 마음의 근본자리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순수하고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나의 자가발전소는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무한의 힘을 방출해 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일의 성공을 낳는 힘은 지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순수하고 단순해질 수 없다. 순수와 단순이 아니면 마음의 잠재된 힘을 꺼내쓸 수 없다.

막대한 재산가는 지출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섯을 쓰고 열이 보충될 수 있다면 아무도 쓰임새를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막대한 재산가이다. 왜 지출을 걱정하고 실패를 염려하랴.

협 찬 : 이 장 욱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제 뿌리 말고 어디도 믿을 대상 없어"

☞ 17면에서 계속

보다는 요즘 말로 할 뿐이지요. 저는 요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은 요즘의 말을 해야지 어떻게 3천년전의 방편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라구요.

그래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것을 묻고 …, 나를 위해서도 묻고 남을 위해서도 묻고 대답하고 가는게 아닙니까?

이를테면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에 별 일을 다 겪고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뭘 좀 더 안다고 자만하고 때로는 그 위세가 당당해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지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물른 한창 빳빳하게 섰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푸르렀을 때는 그러기도 하겠지만 푸르렀을 때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물어 볼 것도 없고 당신이 무슨 대답을 할지도 다 안다고 하는데 설사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토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흔히들 말로 해서는 안되고, 안다고 해서 말을 하면 잘못 된다고 하는데 금방 이 말 했다가 저 말하고 그러는데 말하는 사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말 했습니까? 내가 말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모여서 말을 한 것이지 자기 혼자서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했다 이런 겁니다.

불평 많은 직원들이 야속

문 한 회사의 중견간부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극도로 나빠져서 회사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사정에만 관심이 크고 요구사항도 여전합니다. 야속한 생각에 그들이 자꾸 미워집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하지만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잣대로, 자기 그릇으로 상대방을 저울질하거나 사물을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설사 상대방이 좀 모자라다 싶어도 항상 겸손하게, 둥글게, 모나지 않게, 그쪽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주고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그 쪽으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나 생각할 때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다 싶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 저 모습은 내가 물정을 모르고 살 때의 내 모습과 진배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저게 내가 모자랐던 시절의 그 모습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럽게 행동했을 겁니다.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모자랐던 때의 자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럴 것을 '어휴 저건 왜 저 모양일까' 하고 모진 생각을 했다면 그냥 말이 모질어지고 행동에도 모가 나겠지요. 그러다가는 안 보면 좋겠다 싶고 상종하기도 싫어지고…, 그렇게 되고 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하려해도 안되고 포용하려 해도 안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모습을 모자랐던 때의 내 모습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평등하고 원만해질 겁니다.

'공부 다짐' 잊을때 있어요

문 스님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대해 독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면서 늘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만 때로는 그만 다짐을 잊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립니다.

답 늘 공부다짐을 하신다니 감사하군요. 내가 어떤 때는 부처님 말씀에 간단히 써 있는 것을 길게 풀어서 말하곤 합니다.

가령 '마음을 조복받는다' 이렇게만 해놓은 것을 '안과 밖이 둘이 아니게 조복받는다'고 늘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냥 '조복받는다' 하면 모두에게 감응이 오질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지요. '내면, 바로 내 자아 궁처에 처해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이 둘이 아니게 조복받는다' 해 놓고는 모든 경계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 제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다 매사를 슬기롭게 감사하게 또는 굴려서 맡긴다면 사대로 다 통신이 된다 라고 말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만 하신다면 안과 밖이 다,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넘치는 건 덜어내면서 자동적으로 잘 이끌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마침 큰 회사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돈 벌기에 딱 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내면에서 똑 떨어지게 허락을 하지 않기에 투자를 포기했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보같이 기회를 발로 찬다고 핀잔을 들었지만 속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두 눈 딱감고 포기했는데 얼마 안 있어 몇 사람이 돈을 몽땅 가로채이는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딱부러지게 믿을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있구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자기의 뿌리를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속의 그 주인은 여러분들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주고 슬기롭게 이끌고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 "본래 없는데 스스로 고통 만들죠
> 내마음의 컴퓨터 입력도
> 지우는 것도 자기가 하는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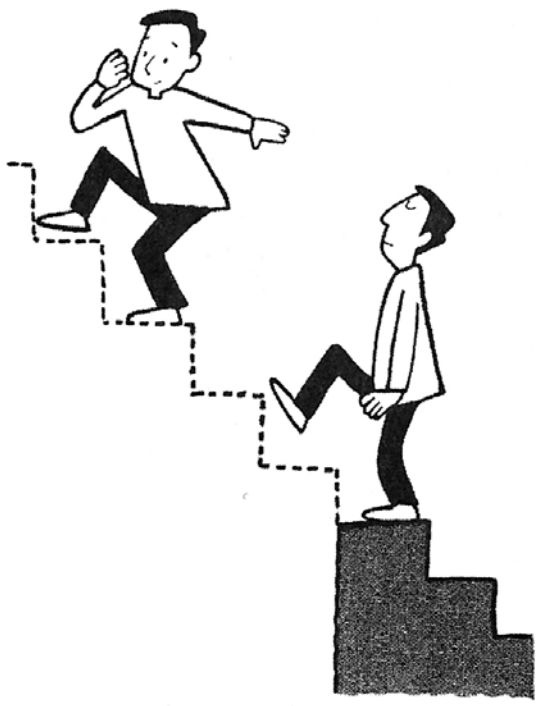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자가 막행막식 할때…

문 불자라면 모름지기 행이 가지런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제깐에는 독실한 불자라고 하면서도 술 마시고 막행막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바르게 제도하지 못하는 제 능력이 안타깝습니다.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생활속에서 그렇게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이끌만큼 무르익지 않았고, 제 몸뚱이 속의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했기에, 조복받지 못했기에 그렇고, 남들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알기만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찰나찰나에 천차만별로 바뀌면서 나투는데 어느 것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까 하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는데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어있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했으니 그게 어디로 가나요?

그 속에서 나오는대로 그냥 그럴수 밖에요. 그러니 아는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고 달달 왼다 해도 다리 병신이니 한발짝을 제대로 떼어놓지 못하고 귀가 먹었으니 듣지 못하고 눈이 멀었으니 못 본다, 그러므로 아는게 다 헛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신통을 한다해도 했다고 하지 말라, 자생중생들을 모두 조복받고 오신통을 벗어나 오신통을 굴릴 수 있어야만 응신이 되고 자유자재하게 천백억 화신으로 나툴 수 있느 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문 저는 금생에 불법을 만나게 된 점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다시 불법과 인연이 되기를 항시 발원하고 있습니다. 또 금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가장 사람답게 살리라, 그리고 눈감을 때 후회가 없도록 하리라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이것 저것 자꾸 생각을 하면 더딥니다. 오히려 좀 어리석은 듯, 무식한 듯 그냥 들어가세요.

오로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다 믿고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행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 본래가 둘이 아니라는 걸 믿고 나 마음 가운데서 절로 계합이 되도록 행을 하면서, 관(觀)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종지를 이렇게 저렇게 벌여 놓았다가 모아 놓았다가 했지만 그 뜻을 모르고 일일이 좇아가다가는 어느 때에 깨우치게요? 기독교는 타의에서 구하는 도이지만 하나로 뭉쳐 놓았는데 불교는 너무 헤쳐 놓아서 믿음이 똘똘 뭉쳐지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겠다는 생각, 안다는 생각을 다 놓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뜻 하나만을 믿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제삿상이 빈약해 죄송

문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다른 집과 달리 제 경우는 혼자서 모든 조상님들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형편이 좋질 못해서 상차림이 빈약해졌습니다. 그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내년엔 더 잘 모실 수 있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위를 해봅니다. 절에서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잘못한 건 아닌지요?

답 마음 쓰시는게 가상하군요. 어떤 분의 얘기를 해드리지요.

그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차려놓고 지낼 형편이 못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해 호텔로 가서 남이 잘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들어가 절을 세번 했더랍니다. 물론 자기 마음으로 거기다가 조상님의 위패를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왕 상을 차릴 바엔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상품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큰 상점엘 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했더랍니다.

마음으로 재를 지내고 보니 없는게 없이 항상 잘 차리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천지를 떡 하나로 만들어서 차례를 올린다면 하나도 부족할 게 없지 않느냐 할 수도 있죠. 모두들 갖가지 음식 차려놓는 것만 생각하는데 찰떡 하나 둥글게 해서 올려놓고 초·향 하나 피우고 물 한그릇 떠놓고 한다면 이 세상 것을 다 차리는 것과 바꿀 수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다 한자리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한 염주에 꿰어진 염주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어서 걸림이 없다면 조상님들도 걸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법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 도리만 알면 위로 조상님들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제가 뿌려 놓은 씨앗에 빛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잘 맡겨지지가 않아요

문 스님께서는 믿고 맡기라 하시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고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믿고 놓으라고 하셨는데 질문 드릴건 뭔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답 그 힘들다는 생각도 놓으세요. 힘들게 뭣이 있습니까? 보세요. 저 나무의 싹들은 무조건 제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지요?

가장구나 이파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한 줄기가 '아이고 힘들어' 이런다면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모든게 뿌리에 의해서 싱그럽게 살기도 하고 잘못 섞기도 하는데 무조건 그 뿌리를 믿어야지 가장구나 이파리가 걱정을 해댄다고 뭣이 달라지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린다 해도 뿌리가 든든하면 걱정할게 없지요. 그러니 뿌리를 안 믿고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각기 내 마음의 선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다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되느니 안되느니 한다든가 묵은 관념에 얽매여 이럴까 저럴까 한다면 도무지 중심이 잡히지 않고 다스려지지도 않게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지가 뿌리를 외면하고 배를 탄 사람들이 선장을 못 믿어서 우와좌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맷돌에 심봉이 딱 맞물려야 힘있게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철석같이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 둘이 아니다 믿고 따르면서
> 계합되도록 행을 하세요"

흔히들 내 몸뚱이가 그냥 나인줄 아는데 이건 수많은 생명의 집합소이고 수많은 의식들이 뭉쳐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생명의식들을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그냥 공생이고 공용이고 공체이지요.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체가 한마음이다, 그러기에 어느 부품 하나가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안되게 한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다, 그러니 일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무튼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어렵다는 것도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시원한 건 안 나오고 잘되는 건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질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던지면 될 것을 왜 붙들고 늘어져야 하나요? 그렇게 일임했을 때 그래 바로 이거구나 하는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옳을까 저게 좋을까 해서는 맨날 그 타령에 머물고 맙니다.

장바구니 들고 시장엘 가더라도 내게 필요한 물건만 사면 됐지 이것 저것 탐을 낸다고 다 살 수 있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공연히 두리번거릴게 아니라 딱 맡기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대로 대처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 하신다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해나가면 언제쯤 터질까 그런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용광로에다 쓸어 넣고 쇳물이 나오든 금물이 나오든 그냥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어서 나올 텐데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방법말고 다른 뭣이 없을까 하시는데 아니, 집을 지으려면 기초부터 다진 다음에 1층 짓고 2층, 3층 올리지 윗층이 저절로 지어집니까?

우선은 내가 내 선장을 믿고 죽게 되든지 살게 되든지 그 선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보세요. 그래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스님께 도움청하는 도리

문 제가 듣기로는 많은 신도들이 스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고 놓으라 하신다는 데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엇이며 들어 주시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답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을 아시지요. 내 마음공부가 부족한 듯해서 그렇게 청을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무거운 것을 한 손으로 들기보다 두 손으로 드는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간에도 그렇고 남들 하고도 그렇고 때로는 거들기도 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하고 말도 나누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용도가 없이 매양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 일은 스님이 거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로서는 무척 다급해서 마음 내주기를 바라는데 마음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한 사이 없이 하고 오고간 사이없이 오고가는 것이지요. 영에다 영을 더하면 영인 것이나 같지요.

일체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이라 오고감이 없는 가운데 찰나에 일체제불이 들고 나면서 응하고 나투어주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동료끼리 공부하다보니 불안

문 같은 직장동료끼리 몇명이 모여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라고나 할까,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이라서 서로를 이끌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되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서로 서로 이끌어주니 그 공덕이 적지 않군요. 그런데 공부에 특별한 진전이 있기를 바라기 이전에 열심히 관(觀)하는 공부를 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거나 많은 말을 하지 마시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환이 있다거나 병고가 있다거나 또는 가난해서 걱정이라거나 하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는 것 말입니다.

내 공부가 좀 떨어진다, 내가 좀 못났다 싶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끔, 둘리가 터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 밖에 없잖아 하고 놓고가면 각자가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몇번 체험하면 차츰차츰 이 도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가는 또 야, 이거 작은 일은 되는데 큰 일은 힘이 없어서 안될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이는 내게 자기는 업장이 두꺼운지 공부가 되는 듯하다가는 그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네들의 자유지요.

그것도 놓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업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떤 스님이 누가 깨닫는 길을 묻자 무명천을 건너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명천이 어디 있느냐고 수소문하고 다니더라나요. 여러 해를 말입니다.

본래 붙은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도 스스로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던가요? 어느 누가 죄를 가져다 주길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받으면서 사는데 내 마음의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것도 자기요 새롭게 입력해서 지우는 것도 자기란 말입니다. 그러길래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조절하면서 자기 뿌리를 믿고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덩이를 만들어서 빠지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자기들이 할 탓이라 이겁니다.

구덩이 빠지고 나오는 것도 제 자유
이몸은 공생 공용 공체의 생명 집합소

협찬 남 상 록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13 하나아파트 B02호

"종교 가지면 행복" 71%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체로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종교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데 상당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경향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강하게 드러났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종교를 갖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1643명 '종교의식' 조사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인 청소년대화의광장(이사장 이영덕)이 최근 전국 1천6백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영혼·종교의식에 관한 의식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1.7%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종교의 필요성(79.6%)과 개인행복에 대한 종교의 기여 여부(70.5%), 인류에 관한 종교의 공헌(62.5%)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요즘의 종교단체들이 사회정의나 공동체 참여에 노력하는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인의 성공(53.3%)이나 국가발전(55.5%)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개신교(56.9%) 불교(21.7%) 천주교(18.3%) 천도교(1.9%) 순으로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종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대체로 실천하는 편이다'(48.6%)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42.7%)고 응답했다. 대체로 실천하는 경향은 여자 청소년에게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종교가 인간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63.7%)고 응답했으며 이런 종교적 성숙이나 발달을 이룩하는데에는 '기도나 참선'(27.1%) '묵상, 명상 또는 정신수련'(19%)이 도움이 된다고 꼽았다.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인의 안정과 바른 삶에 도움을 주는 것'(46.6%) '사회가 올바르고 정의롭게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25.3%)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종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교 자체의 본분을 회복하야 한다'(27.9%) '타종교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27.7%)고 지적했다. 이는 종교인들의 상호개방 정도가 낮은 현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종교관을 함양하기 위해 열린 대화와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종교의 필요성과 인류에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르침 실천 따라야" 49%
"개인적 삶에 영향 크다" 46%

한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 6백2명에게 장래의 종교계획을 물어 본 결과 '앞으로 계속 종교를 갖지 않겠다'(39.0%)라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높았고, '특정종교는 아니더라도 좀더 생각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35.5%)는 의견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높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종교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종교를 통해 자신의 생활과 인생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필선 기자

건강 365일 〈5〉 약쑥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본초강목에서는 "쑥은 속을 덥게하여 냉을 쫓으며 습을 덜어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쑥은 독이 없고 모든 만성병을 다스린다. 특히 자궁출혈을 멎게 하며 임신 중 태를 편안하게 해 주는 등 부인병에 좋다. 또한 복통과 이질을 다스리고, 자궁의 충을 없앤다"라며 쑥에 대한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 약리학에서도 쑥은 비타민 A가 풍부해 균이 침입했을 때 저항력을 키워주고, 진통 해독작용 소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쑥으로 뜸을 뜨면 백혈구가 2배이상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비타민A 풍부 · 해독작용
여성 냉 · 대하증에 효과

일찜 이구 삼약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 조상들도 쑥의 효능을 알고 개떡, 개피리떡의 별미를 이용해 쑥을 많이 먹었다.

자궁냉증이나 대하증은 왜 생길까? 또 치료는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자궁냉증이나 대하증을 자궁병으로 보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자궁병의 원인은 위장에 있다. 위장을 다스리지 않고는 근본치료를 할 수 없다.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켜 피를 만들고 자궁은 아이라는 세 생명을 만든다. 생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장기로 본다. 따라서 자궁병을 위장병으로 여긴다. 자궁병이 있는 사람은 위장병이 있기 마련이다. 또 위장병을 고치면 자궁병은 저절로 낫는다.

위장이 냉하면 만성 소화불량, 위염이 생긴다. 습기도 초래한다. 습기가 있는 곳엔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곰팡이균을 냉이니, 대하증이니 하는 것이다.

이럴 때 몸이 냉한 소음인 체질은 익모초나 십초뿌리(창출)와 함께 다려 먹으면 탁효를 볼 수 있다. 또 위장에 열이 많은 사람은 소양인 체질로 자궁염증이 오기 쉬우며, 인동꽃 약명으로는 금은화를 먹으면 좋다.

특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쑥을 끓인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가며 하반신을 담궈보자. 금방이라도 그 효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9일 수능시험…이것만은 알아두자

19일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일이다. 수험생은 물론 가족까지 속이 타는 때가 이즈음.

전문가들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고 지적한다.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이 좋다는 것. 특히 쉬 피로를 느끼는 눈의 경우는 5~10가량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시락은 수험생 자녀를 둔 주부들의 몫. 요리 연구가 전정원씨는 아침식사는 기억력 증진에 좋은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요리와 짧은 시간안에 소화되는 음식을 권한다. 레시틴이 많은 음식으로는 된장국 두부전

명상으로 긴장 풀도록
인스턴트 식품 삼가를

시금치 김 김치 등이 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높은 것으로는 감자 당근 양배추 등을 이용해 만든 야채스프를 꼽는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청량음료는 금물.

점심도시락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강낭콩밥, 참치야채전, 멸치볶음, 우엉조림, 닭고기조림 감자샐러드 등을 권한다. 도시락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싸주는 것도 수험생에게 도움이 된다. 당분은 피로회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부는 마음이 편안하고 주위에 신경쓰이는 일이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은 물론 부모 모두 기도 또는 명상, 참선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여유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랑의 일기' 입선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회장 김부성)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랑의 일기' 후원의 밤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다음은 입선작으로 발표된 구선희(전북 장계남초등학교 · 6년)양의 일기다.

부처님오신날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할머니가 절에 가셔야 하는데 혼에서 개잡는걸 보셔서 내가 연등을 달게 되었다. 점심때쯤에 가서 절할머니 심부름을 했다. 다른 사람것도 내가 써서 연등에 달아 주었다. 밤 7시 정각 연등에 촛불을 켜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식구 것 먼저 불이고 그 다음 작은아빠 것을 불였다. 나는 촛불을 켜며 우리가족 화목하고 잘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반쪽의 떡

옛날 어떤 사람이 고픈 배를 채우려고 일곱 개의 떡을 먹으려 하였다







불자 세상보기

■ '기후 변화협약' 만들어야 하는 시대

기상재앙 '식량위협'

엘니뇨 현상극심…에너지소비 등 줄여야

12월 1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회의에 세계각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교토회의 주요의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체적인 감축안 마련과 강제이행을 규정할 의정서 채택이다. 기상재앙이라 불리는 엘니뇨현상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엘니뇨는 각종 이상기상현상을 수반한다.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따뜻한 겨울, 가뭄, 폭우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는 기상의 영향을 받는 각종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올 여름 북한의 가뭄이나 9월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 10월말께의 이상저온 및 최근의 이상고온현상 등이 엘니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토의정서 채택여부에 따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고에너지소비국가들은 국민총생산의 감소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행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무감축이행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외로 머물 수는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소한 2010년까지는 90년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도 1~2년 후에는 의무감축이행국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매년 10%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90년 수준으로 할 경우 128%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장가동율을 줄여야 한다는 말과 같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선진공업국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면서도 자국의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구환경이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고민이 있다.

정성운 기자



◇12월 1일부터 열리는 기후변화협약회의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편성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재편을 강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일본 사진작가 순조 안마의 '후지산은 울고 있다'.

돌고도는 눈 친 환경산업 구조재편 시급

지구온난화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것이 엘니뇨현상이다. 12일 열린 기상워크숍에서 지구온난화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해수면온도도 상승해 2천30년쯤엔 포도 배 복숭아 등 온대과수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명태와 대구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차원의 기후관리기구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증가율의 획기적인 감소와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경전에서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불반니항경〉

공주 무령왕릉 영구폐쇄

문화재 졸속발굴 '교훈'…모형고분조성 공개

대표적 백제유적인 무령왕릉이 영구 폐쇄된다. 공주시 사적관리사무소는 10일 무령왕릉 등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의 원형보전을 위해 보수공사를 하고, 이후에는 영구 폐쇄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대신 2천년까지 모형 고분을 만들어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무령왕릉은 71년 발견된지 이틀만에 졸속발굴에 들어갔고, 2년 후 서둘러 일반에 공개할 때부터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 많이 받아왔다. 두 차례 있었던 보수공사 때마다 주먹구구식 보수라는 비판도 있었다. 발굴당시 봉토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무령왕릉은 끝내 국내 최대의 발굴오욕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20여년만에 다시 땅속에 묻힌 꼴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졸속발굴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교훈치고는 너무 큰 손실이라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구했다.

대선앞두고 공무원비리 잇따라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 4백10명이 지구지정 이전 1년여 동안 이 일대 땅과 집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을 징계조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차량등록 대행사직원과 은행직원이 짜고 95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 30여억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마포구청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시내 25개 전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영등포와 동대문구에서도 자동차세가 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생활정보

우체국서도 항공권 발매

대한항공은 10일부터 서울시내 구단위 23개 우체국에서 항공권 발매업무를 시작했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 3천6백여개 모든 우체국에서 항공권발매가 가능하다.

학부모회, 학교폭력 상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폭력 상담전화를 개설했다. 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긴 경우, 교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우, 교사체벌 등에 대해 상담한다. 서울 02)790-5242, 전주 0652)231-9770.

서울버스 노선안내 120

서울시는 최근 민원전화에 시내버스노선 안내기능을 추가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번없이 120을 누르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7시~오후9시.

121개 등산로 폐쇄

국립공원내 2백13개 등산로 가운데 1백21개 등산로가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11월15일부터 한달 동안 폐쇄된다.

(02)540-1247~8.

클래식CD 무료배포 호응

경기도가 도내 초·중·고교와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클래식CD 3천여세트를 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D에는 '비발디의 바이얼린협주곡 4계중 봄' 등 클래식 13곡, '선구자' 등 가곡 15곡, '에스터데이' 등 팝송 16곡, '진달래' 등 35편의 시낭송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CD에 이어 청소년용 VCR테이프도 배포할 예정이다.

섬마을 청백리에 청백봉사상

24년간 섬마을을 지킨 청백리가 제21회 청백봉사상 대상수상자로 13일 선정됐다. 전남완도군 노화읍 총무계장 박주동씨(43). 육지로의 전근기회도 수차례 뿌리치며 땅주인 2백10명을 설득해 섬의 일주도로를 개설했고, 무의탁노인 들의 후견인 역할을 맡아왔다. "영원히 노화도에 남아 '덕을 쌓자'는 가훈을 지키며 정다운 이웃들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30대교수 세계최우수 논문저자

성균관대 경영학부 이건창교수(38)가 최근 세계적인 논문평가기관인 영국의 '안바(ANBAR)전바정보'에 의해 올해의 경영학분야 최우수논문 저자로 선정됐다. 안바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실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우수논문을 뽑는다. 이교수의 수상논문은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트리(나무)분류기에 의한 시계열식에 대한 지적접근법'.

시험성적순 자리배치 '물의'

대전시내 일부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이유로 학생들의 좌석을 시험성적순으로 배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중학교는 키순서대로 앉던 좌석을 중간고사 후 1등부터 8등까지 학생은 맨 앞줄에 앉게 하는 등 성적에 따라 좌석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공부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반발.

지하철 고장알고도 운행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고장인 것을 알고도 20km 구간에 걸쳐 승객을 태운 채 무리한 운행을 하다 결국 탈선, 5시간 동안 지하철 2호선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12일 발생했다. 13일에도 2호선 지하철이 상왕십리역에서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다른 전동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잦은 고장과 탈선으로 서울지하철 타기가 두렵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짜화장품 중국까지 수출

무허가로 바셀린등을 원료로 화장품 10만여개를 만든 뒤 '탕콤' '시세이도' 등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 서울 남대문 수입상가 등지에 판매해온 일당 6명이 12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원가 2백원 정도인 가짜화장품을 개당 1만원을 받고 팔아 10억여원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중국으로 밀수출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체육학원 난립

체육관련학과 대입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규정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자격 강사를 고용, 각종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무허가 체육입시학원들이 난립하고 있다. 무허가 학원들은 일반학원 수강료 규정금액의 16배에 달하는 월 8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이렇게 들었다

정부가 내년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중 학업지원비(1인당 5만5천원) 예산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1천5백여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98년도 정부예산안은 지원대상인원이 1만5천1백18명으로 돼있어 올해 6월말 파악된 1만6천7백2명보다 1천5백84명이 적은 숫자라는 것(부족액은 10억7천만원).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이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관련 가정을 보호해야 할 부모의 도리에 대해 듣는다.〈편집자 주〉

부모의 도리 "착한길 가르쳐 주어라"

▨부모는 다섯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할 것 △착한 것을 가르쳐 줄 것 △학과 도를 가르쳐 줄 것 △좋은 며느리를 구할 것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장아함 선생경〉

▨천신이 이번에는 모양이 같고 크기도 비슷한 말 두 필을 가져와서 물었다. "어느 것이 어미요, 어느 것이 새끼인가?" 대신(大臣)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풀을 주어 먹게 해 보아라. 어미는 반드시 풀을 밀어 새끼에게 줄 것이니라." 〈잡보장경〉

▨따뜻한 봄날,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꽃구경을 갔다. 숲길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선뜻 집히는 것이 있었던지, 솔잎을 따서 띄엄띄엄 길에 뿌리면서 갔다. 말이 없던 아들은 걸어가면서 물었다. "어머님, 어째서 솔잎을 길에 뿌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너 혼자 돌아갈 때 혹 길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은 어머니를 산속 깊은 곳에 버리려던 잘못을 눈물로 반성하고 어머님을 극진히 모셨다. 〈본생담〉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섯가지를 행해야 한다.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글을 가르침이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수시로 필요한 재물을 주는 것이다. 〈육방예경〉

▨어릴 때는 끼니를 찾아 밥을 먹이고 보살피지만, 자라나 지혜가 생기면 따로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아이가 자라나 함부로 놀지 않기 때문이다. 성문도 이와 같다. 〈잡아함경〉

▨다섯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 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일을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 주지 않음이니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부모를 잘 봉양하고, 처자를 아끼고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길상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아난문사불길흉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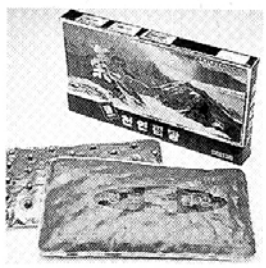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 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한다. 〈잡아함경〉

새상품

'게르마늄 황토 돌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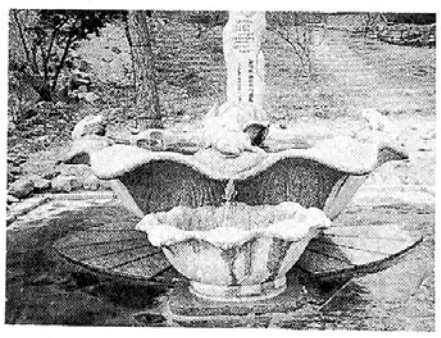
요통,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오 원적외선 찜질기 '게르마늄 황토 돌찜방'이 나왔다.

게르마늄에 황토를 첨가시켜 개발된 이 제품은 열전도율이 높은 실리카, 철분, 마그네슘 등도 함유돼 있어 전자렌지나 뜨거운 물에 약 3분정도 가열한 후 사용하면 2시간 이상 찜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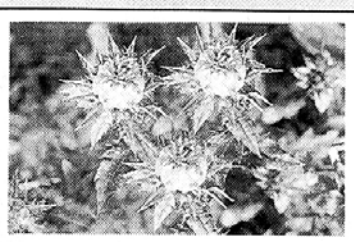


또 황토 속에는 탄산칼슘과 같은 순환 작용을 하는 효소도 들어 있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주)경화실업. 가격은 4만8천원. (02)202-6130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시 론

佛門이 표밭인가

일찍이 인도 전역을 통일한 아쇼카왕은 무력의 승리는 참다운 승리가 아니라고 했다. 정법의 승리만이 참으로 승리라 했다. 인도 전국을 통일한 아쇼카왕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무력이나 권력이 최상의 힘이라 생각하여 온갖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선후보들 앞다투어 방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의 날짜가 임박하여 불과 30여일 남겨두고 있다. 처음에는 대선출마로 말미암아 그 구도가 자못 흥미로웠고 그들의 거동도 만만찮은 행보를 벌여왔다. 한 표의 향배를 수습하기 위하여 기상천외한 작태를 부렸다. 남대문시장에서, 수산시장에서, 어촌에서 온갖 행화를 하면서 자기인상을 부추기려고 TV에 얼굴을 빙영했다.



목 정 배
〈동국대 교수 · 불교학〉

허나 그도 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의 주자라하여 사찰에 출입하는 행세가 그 무엇인가. 사전에 예고로써 방문의 허락을 받은 주자도 있지만 그저 절을 찾아가면 대자대비한 부처님께서 품에 안아주실거라는 계산으로 출입한 사람도 있으니 더욱 가관이다.

누가 어느 곳에 간다하면 여기에 질세라 나도 꼭 참석하여야 한다는 소망적 신심마저 발휘하고 있으니, 사천왕도 눈을 부라릴 것이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왔는가. 왔으면 소종래(所從來)를 네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뭐꼬" 정도는 해아릴 줄 알아야 한다. "이뭐꼬가 무엇입니까" 하였다면 절에 스님을 찾아뵌 것이 천리현격이 아닌가. 그래도 통도사 정변전(正扁殿) 방안에는 무수한 정객이 예방하였으니 그들은 무엇때문에 왔고, 무엇을 얻을려고 친견하였는가. 정변주(正扁主)는 웃음만 웃고 묵묵부답이었다. 왜 자안미소로 불응대하였을꼬. 아직 속물의 때가 가셔지지도 않는 자에게는 묵빈대처하는 것이 최상승의 가르침이 아닌가.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는 자들에게 달의 환한 빛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 손가락이 있어야 투표를 하니까 손만 보았는지 모른다. 아니 그들의 계산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제와서 달을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저 손가락이 필요하다. 저 손가락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모든 손가락이 나에게 찍는 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일까.

이 손가락은 당신의 손가락이 아니요, 개개인의 손가락이니 당신에게 쏠린다고 장담하지 마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내재하고 있으니 이 불성은 부처다운 주자에게 갈 것이니 어찌 함부로 일주문을 들어서고 사천왕문을 나서는가.

〈범망경〉에 이러한 법문이 있다. 왕이나 대신, 관료들이 그 자리에 오르려면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고. 아니 일찍이 보살계를 받은 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다시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왜일까. 보살계를 받은 자만이 보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면 증상만이 가득하여 다스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림을 하기에 꼭 보살계를 품수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주자이기에 자비심을 베풀어 환대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불법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장차 그들로부터 또다른 억압을 받을 것이다. 가리왕은 사지공양을 드림도 불법을 위한 공양이었다. 우리는 부처님을 위하여 정법의 공양을 올려야 한다.

정법공양의 의미 일러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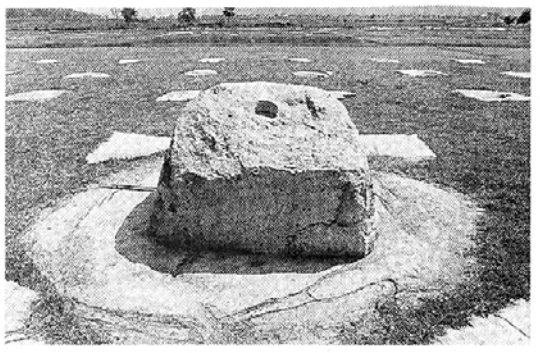
정법의 공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불칠쇠법(不七衰法)이다. 의회정치, 상하존경, 정법준수, 효순부모, 종묘봉례, 윤리고양, 사문존숭 등 이 일곱가지가 잘 이행 준수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불칠쇠법의 원칙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는 것은 고슴도치가 비단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정법의 길을 일러주지 않고 내방자를 환대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닌가.

〈금강경〉에 말씀하셨다.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써 나를 구하는 것은 삿된 길이요, 여래를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모양이나 소리로써 불교를 향하는 저 몰골에 부처님이 정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할(棒喝)을 던져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황룡사지·미륵사지 복원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복원문제가 교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지의 복원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복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진돼 왔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불교계 공약사항으로 두 사지 복원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대선공약을 내건 두 정당과 조계종 총무원, 학자, 문화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경주 황룡사지의 9층탑 주춧돌.



◇익산 미륵사지 전경.

종단도 사지조사등 노력

혜창〈조계종 총무부장〉

폐사지를 복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종단적 숙원사업이다. 때문에 종단에서는 방대하게 분포된 사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복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불교사원지〉를 펴내기도 했다. 종단에서는 폐사지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황룡사와 미륵사의 복원문제가 세간의 화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알다시피 대선후보들이 불교계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때문이다. 신라불교를 상징하는 황룡사와 백제불교를 상징하는 미륵사지의 복원 그 자체는 우리시대 문화의식에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러한 교계의 숙원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공약 천명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그 공약이 실천 될 수 있다면 종단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분열의 시대에 화합상징

고흥길〈이회창총재 대외협력특보〉

신한국당의 이회창총재가 황룡사와 미륵사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현저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다. 낡은 정치로 인해 분열과 갈등을 겪고 경제불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이다. 황룡사와 미륵사는 경주와 익산이라는 상반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지만 이 두 사찰을 건립한 장인은 한사람이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사람의 장인에 의해 신라와 백제에 건설된 사찰은 결국 지역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삼국통일이라는 통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족과 문화는 결국 하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역사적 유물인 것이다.

지금 우리시대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통합을 이루어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창조하려면 그 힘의 원천을 밖에서 찾으면 안된다. 바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총재는 이러한 의미에서 '불자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민족통합의 사상적 원동력'을 건설하기 위해 황룡사지와 미륵사지의 복원을 약속한 것이다.

전통문화 복원 '국민역량'

조성준〈국민회의 연등회 간사〉

21세기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시대이다. 과거 정치·군사의 힘을 경제와 문화가 대신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온고이지신 하는 것은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민족적 국가적 영량의 핵심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황룡사와 미륵사는 삼국유사에서 이르는 바와같이 민족의 혼이 깃든 당시로서는 세계를 의미하는 동아시아를 상대로한 웅대한 민족염원의 표상이었다.

67년 여름 분황사를 찾던 길에 옛 황룡사터 좌대석에 주장자 짚고 앉아 조시던 노스님이 지금도 선경같이 떠오른다. 또한 달밤에 찾았던 미륵사지의 고적함에 백제천년의 꿈이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사무치게 느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듯 하다.

남북민족의 대화합과 북방진출의 역사적 대진운기에 황룡사와 미륵사는 마땅히 고증, 복원돼야 한다.

"차라리 21세기 명찰 짓자"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장〉

황룡사는 삼국통일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중요한 사찰이다. 현재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황룡사의 복원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으며, 불교계도 과거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중흥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어 있다. 정부나 불교계가 엄청난 재원을 들여 황룡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박정희대통령 당시 황룡사복원을 추진하려다 그만둔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확실한 고증없이 황룡사 9층목탑을 새로 조성한다는 생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결코 7백여년의 세월을 견뎌냈던 황룡사목탑을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황룡사를 복원하겠다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21세기의 황룡사를 조성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자료수집·연구 '선결과제'

이강근〈경주대 문화재과 교수〉

황룡사나 미륵사의 복원은 종교를 통한 민족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적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최근의 황룡사 복원과 관련한 정치권의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복원은 원형의 복구를 의미한다. 원형추정 작업없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석굴암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금 많은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황룡사의 복원은 4~5년안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우선 황룡사 건물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복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또 황룡사 복원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위원회를 구성, 최종적인 복원 설계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원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황룡사 복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매진해야 할 때다.

정치권 복원추진 '시사'

황룡사 신라 호국사상 구심역

미륵사 백제 최대의 미륵도량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경북 경주시 구황동, 사적 제6호)와 미륵사(전북 익산시 금마면, 사적 제150호)가 과연 복원될 수 있을까. 황룡사는 569년 창건된 신라 화엄도량의 구심점이며, 미륵사는 641년 창건된 백제최대 미륵신앙 산실이다. 최근 대권주자들이 이들 사찰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다 문화비전2000조직위원회가 추진검토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총재는 지난10월초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회의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들 사찰의 고증과 복원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 95년 황룡사복원계획을 진행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복원정비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96년5월 KBS가 컴퓨터그래픽기법을 활용한 '영상복원-황룡사'를 방영 복원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했다. 결국 황룡사 미륵사 복원은 호국불교의 상징을 재현해 종교적 기능과 함께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호국바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약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학회는 이들 사찰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확한 설계자료가 전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 설계로 복원하는 것은 올바른 문화재 관리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한 바있다.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도 7~8일 열린 전국대회에서 전회원의 결의로 문화비전2000 위원회의 황룡사 9층탑과 미륵사 복원계획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확실한 기초자료나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위영란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걸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 · 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안성지병 투병환자의 영험적 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神祕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휘호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종단소식

조계종

고불총림 복원불사 회향

전남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는 9일 대웅전에서 '고불총림 복원 만등불사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백양사는 94년 7월 고불총림 복원과 요익중생 발원을 목적으로 고불총림 복원 만등불사를 입재했다.

월정사 청년회 창립법회

강원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3일 적광전에서 청년회 창립법회를 갖는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지도법사에 관행스님, 초대회장에는 정의진씨가 선임될 예정이다.

태고종

종무원장 보봉스님 선출

지난 8월 신설된 서울중서부 종무원은 10일 종로 법혜사에서 총무원회의를 열고 초대 종무원장에 이보봉스님(법혜사 주지)을 선출했다.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지역 사찰 주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법혜사를 총무원사로 결정하는 한편 20일 법혜사에서 종무원장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

광덕사 삼존불 탱화봉안



경기 동두천 광덕사(주지 상진)는 7일 삼존불 점안 및 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삼존불로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좌우 보처불로 모셨으며, 탱화는 영산회상도를 조성해 모신 가로 3m, 높이 1.5m의 상단탱화와 가로 50cm, 높이 1m의 현왕탱화가 봉안됐다.

전국신도회 초대전 개최

전국신도회(회장 김철회)는 15일 신촌 봉원사에서 전국신도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하반영 초대전 개막법요식을 봉행했다.

초대전은 30일까지 보름간 봉원사에서 계속된다.

천태종

신도회 간부단합 법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12~14일 2박3일간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제7회 전국 신도회 간부단합법회를 개최했다. 전국 사찰 신도회 회장단 5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단합법회에서는 강릉 삼계사와 속초 동광사 등 중단사찰과 백담사, 통일전망대 등 설악산일대를 탐방했으며,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대상 박옥식씨 수상

총무원(원장 운덕)은 9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청년회 단합법회에서 제2회 청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청년대상(총정상)은 마산 삼학사 박옥식씨가 수상했다. 또 효행을 실천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제3회 청목련상(총무원장상)은 이범석(부산 삼광사), 최병렬(포항 황해사), 김은선(청주 명장사)씨가 각각 수상했다.

진각종

선지식 한마음 수련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20~21일 1박2일간 경주 위덕대에서 진기51년도 선지식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한다. 종단 스승 3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수련회는 법락회(레크레이션), 토함산 일대 답사와 윷놀이, 닭싸움,기마전, 단체줄넘기 등의 한마음 대동놀이로 진행된다.

대한법화종

제5대 해수종정 취임

총무원(원장 대호)은 20일 낮 12시 서울 캐피탈호텔 3층 신라룸에서 제5대 종정 해수스님 취임식을 봉행한다.

지난달 17일 종정으로 추대된 해수스님은 1926년 경북 영천生으로 대한법화종 경북교구 종무원장 등을 거쳐 94년 대종사로 추대됐다.

일붕선교종

대원사 영가천도재

인천 대원사(주지 최혜월)는 16일 영가천도재 및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했다. 티벳의 자명린포체를 초청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허물 멀리하고 바로살겠어요"

대구소년원생 43명 수계…새인생 다짐

본드 약물중독·폭행 등 잘못 참회
설법·교리강의 통해 품행교정 성과

"부처님의 계를 받음은 모든 허물을 멀리하고 천년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대구소년원 교내강당에서 스님의 수계법문을 듣는 읍내중학교(교장 이석기) 원생 43명은 12일 새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불명도 새로 생겼다.

본드흡입 약물복용 폭행등 소년비행으로 이곳에 격리된 12세이상 20세미만의 원생들은 1.2.3학년 모두 합쳐 2백86명. 6개월미만의 단기교육생들과 16개월~18개월의 장기교육생들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중 50여명이 품행교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불교반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부터 종교실에서 스님이나 포교사의 법문과 교리강의를 듣는다. 배성명특활계장(50세)은 "불교경전의 내용들이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게 많아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편"이라고 말했다.

혜운스님(여여선원)을 비롯 종열 성묵 현철 한우스님등 7명으로 구성된 대구소년원 불교종교지도위원회 위원들이 교대로 법회를 운영하며 매년 한차례 수계법회를 가져왔다. 84년 청교련대구지부장이었던 혜운스님이 교화법회를 시작한후 지금까지 결연의 고리가 이어져 온 것이다. 혜운스님은 "대부분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아 설득에 애로를 느낄때가 많다"며 "꾸준한 반복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교직원 4명도 함께 수계했으며 청수사에서 빵 과일 우유 등을, 금강사 금강합창단은 음성공양을 제공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대구소년원(읍내중학교)생 43명이 12일 교내 강당에서 수계를 받고 새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호국 전몰영령 첫 함상 천도재

충정사 성불회(회장 최영희)는 13일 해군 제1함대 소속 충북호 선상에서 삼화사 주지 원행, 충정사 주지 도윤, 제1함대 사령관 한광수대령, 오경환·안병태 前 해군참모총장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몰영령 합선 천도재'를 봉행했다. 해군창설 52년만에 처음 열린 이날 법회는 한국전쟁 및 대간첩침투작전중 해상에서 희생된 2백1명 호국영령의 고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김주일 기자〉

월주스님 BBS 개입의지 표명

종회 "佛放 조계종이사 전원 퇴진" 결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불교방송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이사로 참여하겠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불교방송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구나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달말까지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장과 이사장을 선출토록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월주스님은 10일 조계종 제 129회 정기중앙종회 법인특위에서 "현재 총무원장이 불교방송 이사냐"는 질문에 "이사직 사표는 냈으나 수리가 안된 상태이지만 이제부터 불교방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사로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이는 불교방송재단이 조계종의 종헌에 구속받지 않는 재단이므로 종헌의 겸직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해석이다"고 말했다.

첨예한 신경전속에 장시간 논의됐던 종회 불교방송사태 특위(위원장 정대)에서는 "불교방송 조계종 이사는 이달말까지 사퇴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열어 방송국 제반문제를 해결하여 정상화 할 것을 결의한다. 종회의장단은 방송국 이사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방송사태의 해결 방안과 대책을 수립키로 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로써 불교방송문제는 종헌논란과 함께 본격적인 해결을 위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화사 의식 강원 개강
불공 시식 등 강의

담양 용화사(주지 전수진)는 15일 사미, 사집, 사교과를 교과과정으로 한 강원을 개강했다. 강의는 불공, 시식, 예수재, 수륙재, 복장의식 등의 예경의식으로 이뤄진다.

스님은 "승가의 수행풍토 조성과 국묵담 스님의 율맥을 계승하기 위해 강원을 열게 됐다"며 "후학양성과 불법수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주스님 서예전 '성황'
월라사 중창기금 조성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월라사(주지 정암) 중창불사기금마련을 위한 서예전이 마련됐다.

석주스님(철보사 조실)은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학생문화원 전시관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반야심경, 대자대비, 부모십종대은 10곡병풍 등 총 1백8점이 선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소암 현중화, 일장 중광스님 등의 찬조작품도 전시됐다.

문경 미면사지서 불탑발견

피라미드형태…"복원후 문화재 지정을"

의상대사가 주석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문경 미면사지(米麵寺址)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피라미드형의 돌무더기(적석탑)가 발견돼 복원후 문화재지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적석탑은 불탑(佛塔)이 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경향토사연구소(소장 심동철)가 미면사지에서 발견한 이 적석탑은 한 변이 12m인 정사각형이며, 작은 돌을 층급으로 쌓은 피라미드 형태였으나 도굴로 인해 파헤쳐지고 허물어져 4층만이 남아있다.

지난 5월 현장답사한 신영훈 문화재전문위원은 사찰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주변에 뚜렷한 호족이나 토호세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래 7층의 불탑(佛塔)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위원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적석탑이 의성과 안동 등지에 남아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륵사 문화재 보호 '파란불'

여주군 보존지구 해제계획 무산따라

여주군이 신륵사와 영릉 주변 일부를 문화재보존지구에서 해제시키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본지 제147호 참조〉

경기도는 지난달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보존지구를 해제할 경우 음식점 숙박업소 등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여주군의 재정비계획안을 부결했다.

여주군은 지난달 16일 주민민원을 내세워 문화재보존지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용도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 불교계와 향토사학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우담바라 합창단 공연
제주 문예회관 극장서

제주도 우담바라어린이 합창단(단장 복혜)은 5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7회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양승보씨의 지휘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삼귀의, 찬양합니다. 반야심경, 목탁치는 스님등의 찬불가와 동요,에스파니아·미국민요등이 무대에 올랐다.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심보히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무진장 스님과 함께하는 — 불교 교리 강좌 (겨울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 기본교리를 공부할 제5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로타리 웅전갤러리3층)
3.개강일시	1997년 12월 6일(일)오후6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무진장스님,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TEL 732-1206~8
FAX 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3층)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조혼함원사·건강防災服

항균성 99.9% 음이온발생 54.8PPM

玉內外衣

건강회복 젊음유지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쭉 감싸 주는 것입니다.



중국 河北省 高城지방에서 출토된 前漢시대 宇陵의 金縷玉衣 신강옥으로 만든 2천 498매의 옥조각과 1천 100g의 금실로 되어 있다 2000년전에 죽은 왕의 시체의 피부기 탄력이 있었다

옥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입니다.
- Kirlian+BIO=건강신물질



이 옷을 입으면 중국황제 유승의 金縷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男女각각)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여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레땅 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회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칠보사가 건립한 아산 보문복지원이 10일 준공됐다.



◇불교 유료 양로시설인 양양 보리수마을 개원식이 12일 열렸다.

실버타운 보문복지원 · 보리수마을 개관

"노인복지로 아름다운 황혼"

대규모 유료양로시설인 아산 보문복지원과 양양 보리수 마을이 10일과 12일 잇따라 준공돼 노인복지포교를 밝게하고 있다.

보리수마을(이사장 명신스님)은 4년여에 걸쳐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노인종합복지 유료주택단지로 보리수병원과 함께 개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하(통도사 부방장) 법홍(원효종 종정)스님을 비롯 최각규 강원도지사 송훈석의원 오인택 양양군수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노리수 마을은 2만1천여평부지에 건평 6천9백평이며 3백60세대의 주거동 5동, 사무실 1개동, 팔각정 1개동이 건립됐고 현재 1백3세대가 입주했으며 2백70세대가 계약한 상태다. 특히 보리수병원은 의사 2명등 총 13명의 의료진을 갖추고 입주자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순회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하여 양양 강릉 속초 등 인근지역의 노인과 불자들에게도 무료진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서울 칠보사(주지 오원)가 건립한 아산 유료보문복지원도 10일 석주(칠보사조실) 관응(직지사 조실) 운경(봉선사 조실) 벽암(신원사 조실) 원담(수덕사 방장) 고송(파계사 조실) 청하(통도사 부방장) 법홍(원효종 종정)스님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96년 3월 기공하여 이날 준공된 보문복지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백50평으로 31개의 방사가 있으며 65세이상의 노인불자들을 대상으로 98년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복지원은 입주자들의 건강을 위해 인근 아산제단 아산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입주자 사망시 모든 장례절차는 물론 49재 기제사등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리수마을은 경기도 광주에 제2의 보리수마을을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양양=김원우 · 아산=김중근 기자〉

조계종 전법 지도자대회

추진 실무단 구성…12월9일 3백여명 참석

조계종총무원은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회의'를 12월 9~10일 종단내 중진급 스님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하고 3일 지도자회의 추진실무단(단장 지현 총무국장)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족문화 수호에 관한 결의문도 책택할 예정이며, 결의문에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불교계의 요구사항을 담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도자회의는 지난달 말 월주스님이 대규모 전법대회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준비되고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며, 일회성 행사로 전법의지를 확산시키려는데 대한 반대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축소됐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중에나 대회의 명칭 및 행사목적 등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료폐지' 재확인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위원장 설조)은 11월11일 오후4시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가야넷홀에서 회합을 갖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교구본사별로 시행중인 현수막설치 및 서명작업과 병행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키로 결의했다.

모임은 또 대선후보 등록이 끝나는대로 후보들의 불교정책 및 공약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거나 대선후보초청 교계언론합동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의 시행여부를 오는 18일 수덕사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은 참여율이 저조한 현 종회의 과행성을 비판한뒤 98년 하반기에 이뤄질 종회와 집행부의 개편에 대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현해(월정사) 혜광(법주사) 칠응(마곡사) 법장(수덕사) 천운(대둔사) 무공(동화사) 법타(은해사) 설조(불국사) 법조(고운사) 지선(백양사) 종열(화엄사) 중원(제주 관음사) 스님 등 12개 교구본사주지스님이 참석했다.

"서준식씨 석방요구"

종단협 인권위 성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혜공스님)는 13일 영화 〈레드헌트〉 상영으로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영화 〈레드헌터〉는 부산 국제영화제에 상영된 작품으로 공륜의 심의를 통과한 영화임에도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매도, 서씨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의 사례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문화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원회는 △서준식씨의 조속한 석방 △근거없는 반인륜적 인권탄압 중지 △대선에 앞선 공안정국 조성음모 경계 △인권을 침해하는 사상시비 반대 등을 천명했다.

횡성승가원 건립 '주민반대'

소쩍새마을 "합법적"…분쟁조정노력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이 강원도 횡성 20여만평에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 안흥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설 횡성군 안흥면 주민들은 승가원이 땅소유자와 부지를 계약하며 통보가 없었고, 고랭지 채소농지가 유실되며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마을이 낙후되고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가원 김정한 국장은 "소쩍새마을이 아니라 종합복지타운이 새롭게 건립되는 것"이라며 "13일 횡성군수와 면담한뒤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도 브리핑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가원측은 부지주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주민들의 반대를 해결할 2개월정도의 분쟁조정기간을 거쳐 내년 4월 기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PD수첩' 불교위상 실추

조계종, MBC 사과요구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4일 MBC TV가 PD수첩 3백회 특집으로 석용산관련 프로를 방영한 것과 관련 문화방송측에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총무원 호법부는 최근 문화방송에 '석용산관련 PD수첩에 관한 건' 제하의 공문을 통해 종단차원에서 공덕원측 사람들이 가짜 승려임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스님이란 단어를 쓰고 종단의 입장을 축소 편집하는등 기획상 종단과 불교계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문화방송에 대해 △사과방송 방영 △3백회 특집으로 불교관련 내용을 편성한 타당성 검토자료 제출 △연이은 불교 왜곡및 비방방송에 대한 담당자 문책 △추후 불교관련 방송에 대한 신중한 취재를 다짐하는 문서등을 요구했다.

뉴스 & 뉴스

유한킴벌리 부당거래 접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정사)는 13일 기저귀비닐커버를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다 유한킴벌리측의 계약위반으로 부도를 맞은 삼우화학(대표 배호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에 관한 피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독실한 불자인 배호성씨는 89년 창업이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94년 경제기획원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0월 부도를 맞았다. 이에 소비자보호위는 "삼우화학의 피해보상을 위해 유한킴벌리 제품불매운동과 본사 항의방문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교포어린이 심장병시술

감로심장회(이사장 보안스님)는 6일 중국의 병원에서 '심장펠로우사증'으로 치료불가능 판정을 받은 교포 최월향어린이를 초청하여 경상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약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최월향어린이는 감로심장회가 동체대비사상과 동포애를 강화하기위해 해외교포까지 심장병시술을 확대한 첫번째 복지사업이다. 이에앞서 감로심장회는 5일 경상대 심혈관연구소에 연구비 3백만원을 전달했다.

교리문답 우수상에 연등사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총재 성오)는 9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창립25주년 기념법회와 제20회 독경대회 및 교리문답대회를 가졌다.

성오스님을 비롯 20여지부 5백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각 지부의 독경과 교리문답 경연을 벌여 교리문답대회에서는 연등지부(연등사)가 최우수상을 정수지부(정수사)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독경대회에서는 정수지부(지도교사 김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해의 활동을 평가해 가장 내실있는 활동을 펼친 지부에 주어지는 최우수활동지부상에는 해동고등학교가 수상했다.

목탁소리

'종회해산 건의서'

10일 오전 10시 40분 총무원 청사1층 불교회관. 종회의장 설정스님이 빈자리 투성이인 종회의석을 굽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종회를 할때마다 허탈감을 느낀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종회의원들로 인해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종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종회는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종회임에도 다시 성원 미달이라는 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지다니…."

지난 3월 127회에 이어 지난 9월 128회 임시종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된데 이어 다시 정기중앙종회가 회기 기간중 성원 미달로 한나절을 '공치는' 현실에서 의장스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한두번이 아닌 성원미달. 그로인한 유회. 이때마다 의석 여기저기서 들려 오는 '종회 해산론'과 '종회 무용론'. 개혁회의 직후 밤 깊어 가는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입법활동을 하던 종회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개혁정신의 퇴색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10일 성원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의원스님은 '제11대 종회 해산 건의서'를 만들어 의원스님 3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정원 80명에 41명의 과반수 성원이 안되어 유회되기를 떡먹듯 하는 종회. 간신히 성원되어 속개된 회의에서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발언권의 7할 이상을 장악하는 종회. 비구니 의원스님들은 시종 한마디의 발언도 않고 의결때 손만 들어 주는 종회. 의원 스스로 해산을 말하는 종회. 과연 이러한 종회는 1천 6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계종의 무엇이란 말인가. 묻고 싶다. "조계종 종회 뭐하는 곳입니까?"

임연태 기자

연예인 법당기금 '잡음'

남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직업상의 어려움때문에도 불자연예인들은 눈치(?)안보고 법회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연예인 법당을 갖고자 오래 전부터 간절히 원해왔다. 간절한 숙원을 풀 듯 드디어 11일 본각사에서 연예인법당 상량식이 거행됐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를 단순히 축하해줄 수만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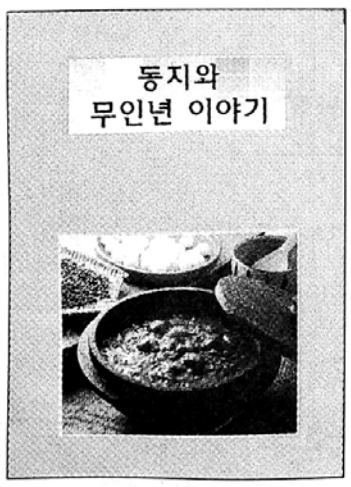
95년 9월 발족한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는 법당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도자기와 옥성구(옥염주 · 호신불)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일부연예인들이 원가 4만7백원인 도자기를 사찰을 돌며 28만원에 팔기 시작한 것이다. 책정된 판매가의 대부분은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5~10명으로 구성된 연예인을 포함한 판매팀의 인건비로 충당됐다. 연예인들 중엔 타종교인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일당 50~60만원의 아르바이트(?)를 제공했다. 거기다 옥성구 10세트를 판매하면 6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교활동 합의서'까지 마련할 정도로 판매에 열중했는데 연합회 대표는 옥성구 등의 판매와 관련한 총매출액과 수입은 알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들을 본따 옥성구 · 도자기 · 관음상 시계 등을 판매하는 유사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불자들의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났다.

불자연예인들은 이렇게 문제성 있는 '장사'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재능을 살린 예술공연을 준비해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 일부 연예인들의 몰지각한 행태때문에 전체 불자연예인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을 모시고 신행활동을 펴나가는 법당건립 기금마련사업이 불자들의 피해와 항의를 부른다는 것이 될 말인가.

강지연 기자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동지 법어, 팥죽의 유래, 팥죽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 · 록 · 내 · 용

제1부 동지맞이 기원법회
동지 법어/동지 맞이 발원문
제2부 우리의 민속 명절, 동지
팥죽의 유래/팥죽과 관련된 풍습/동지와 농점(農占)/동지의 시절 음식
불교에서 본 동지의 유래/새롭게 보는 동지/선덕여왕과 지귀/팥죽과 나한님
제3부 민속과 불교
문화와 민속 문화/민속 불교/삿됨을 막아주는 색/신성한 색
제4부 아세(亞歲-동지)를 맞아 생각하는 무인년 새해
10간 12지로 나누어 본 무상한 세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불교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4×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 특가/1권당 1,500원

성도절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성도절 법회 법보시로 좋습니다.

감로출판사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동자승 (大 · 小)
산사의 향기 (大 · 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 · 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 · 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불자감동' 화두 삼아요

방송작가 교계 50여명 활동


◇방귀희


◇이윤수


◇박혜령


◇윤금선


◇박연진


◇박미정


◇이선희(오른쪽) 박지영

한편의 프로그램이 불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송작가들이다. 불교방송과 불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은 모두 50여명. 이들은 산뜻한 아이디어와 깊이있는 불교 교리 상식으로 포교 시사 오락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작가계에도 최근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20대 신진 작가들이 대거 등장해 방송가에 신세대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베테랑 작가들의 끌어주기와 신진 작가들의 새상품 개발(?)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튀는 아이디어·신심 '무장' 신세대 대거 등장 '돌풍'

작가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불교교리를 좀더 쉽게 생활 속의 불법으로 전달하는게 어렵다"는 신진 작가의 대표주자 박미정씨(불교방송)는 "방송의 특성상 정확성, 시기성, 정보성, 창의성 등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데다가 프로그램의 특징살리기와 시청자 청취자 마음붙들기가 우리 손에 달려있어 중압감도 느낀다"며 강한 책임감을 드러내 보였다. 때문에 끊임없이 책 신문 컴퓨터등 주위에 널려있는 정보습득기와 전문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불교방송에는 대표적 포교 프로그램인 '차한잔의 선율' 이윤수씨, '꺼지지 않는 등불' 방귀희씨, '무명을 밝히고' 윤금선씨, '몸비니 동산' 박연진씨, '퀴즈대장경' 박미정씨 등과 '옛가락 우리노래'를 맡고 있는 청일점 박홍렬씨 등 20여명의 작가들이 불자들과 만나고 있다.

불교방송 개국 때부터 활동해온 이윤수씨는 후배작가들에게 "불교계 방송을 이끌어 가는 작가는 글을 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불심이 있어야 하고 성실함과 신용도 갖춰야 합니다"라며 관심어린 충고 한마디를 잊지 않는다.

불교TV에는 간판 프로그램 '날마다 좋은 날'이 채제분 이창희씨등 6명의 작가를 보유(?)하고 있고, '자비의 천수천안'에 손승희 정영선씨, '퀴즈특급 이판교'에 이선희 박지영씨 등 총 30여명의 작가들이 방송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만의 멘트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경전 뒤적이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이 글을 쓴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취자 시청자들이 받아들여 오해를 한다거나 의견전달이 제대로 안됐을 때가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는 작가들.

'불심을 전하는 방송' '불법과 함께 하는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들 방송작가들을 바라보는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국의 작가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이들 스스로가 정확한 교학체계와 불교적 심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지연 기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⑮

♦ Whosoever after cutting all bonds does not tremble has shaken off all ties and is liberated him, I call a Brahmana.

모든 속박을 끊고 겁내지 않으며, 집착을 초월해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Whosoever being innocent endures reproach blows and bonds the man who is strong in his endurance and has for his army this strength him, I call a Brahmana.

죄 없이 욕을 먹고 구타나 구속을 참고 견디며, 인내력이 있고 마음이 용맹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is free from anger endowed with (holy) works, virtuous, without desire subdued and wearing the last body him, I call a Brahmana.

성내지 않고 도덕을 지키며, 계율에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몸을 안정시켜 '최후의 몸'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like water on a lotus leaf or a mustard seed on the point of a needle does not cling to sensual pleasures him, I call a Brahmana.

연꽃잎의 이슬처럼, 송곳 끝의 겨자씨처럼, 온갖 욕정에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knows in this world the destruction of his pain, who has laid aside him burden and is liberated him, I call a Brahmana.

현세에서 이미 자기의 고뇌가 소멸된 것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걸림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has a profound understanding who is wise who knows the true way and the wrong way who has attained the highest good him, I call a Brahmana.

지혜 깊고 총명하며 온갖 길에 통달해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tremble 몸서 걱정하다, 근심하다
*liberated 해방된, 자유로운
*innocent 결백한, 죄 없는

주부신행담

부처님의 미소 ①

불법으로 '자기변화' 결심 우선 3천배를 하기로 했다 108배 넘자 다리가 후들…

불법과 인연을 맺은 지도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처럼 한 가지 일에 바친 시간이 십 수 년이면 일가를 이루진 못해도 엇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법한데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에 허우적거리며 아귀다툼을 더할 뿐이니 중생치고도 한심한 중생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초하루, 보름마다 부처님전에 나아가긴 했지만 진지한 불자로서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혼자 놀기 심심해 절 문을 두드리는 식이었으니 돌이서는 발걸음이 무거울 밖에.

무엇이 불법이 길래, 이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의 귀에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 딴에는 비장한 각오로 큰 의심덩어리 하나 풀어보지만 끊이지 않는 생활의 어려움은 마음의 빗장만을 단단히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친구 네 명과 이런저런 얘기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보니 묵은 체증 같은 답답함이 조금은 가신 기분이었다.

일단, 각자의 근기에 맞는 기도에 앞서 3천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전에도 3천배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기억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이번엔 3일에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 하루 1천배씩.

불영사에 도착하니 9시가 조금 넘었다. 행색이 제법 그럴듯 했는지 스님께서는 대뜸 3천배를 하러 온 줄 아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래, 생각이라도 바르게 하면 이렇게 칭찬이 돌아오는구나.

과장된 신심일수록 모양에 집착하는 법, 비장한 결의를 담아 오체를 법당 마루로 던진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08배를 넘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한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는 단순반복일 뿐인데 무겁기가 천 근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틈틈히 물이나 과일을 먹는데도 채 5백배도 이르기 전에 탈진 상태가 된다. 가끔 불어오는 부처님 손길 같은 부드러운 바람도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이다.

5백배를 넘어서자 뚝 뚝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만 할까? 하는 순간 어느새 무릎이 내려가 있다. 부처님 얼굴은 초점 흐린 사진마냥 아른거리고 온 신경은 아픈 허리, 다리, 무릎으로 총집무진.

7백~8백배가 넘어서자 오기가 발동한다. 숫제 이 몸뚱이가 원수같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9백배를 넘어서자 거친 숨 사이로 희열 비슷한 뿌듯함이 끼어든다. 그러나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소풍 날짜 세는 초등학생마냥 일배 일배가 힘겹다.

천배를 마치니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다. 몸은 과김치가 되었고 발가락과 무릎에 물집이 잡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른 사람은 모두 멀쩡하다. 내일은 포기할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얼굴은 전혀 포기할 기색이 아니다. "독한 인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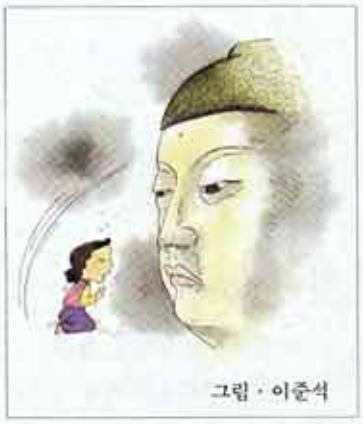
그래도 천배를 마친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굳이 표현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소한 표현에 매달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기갈이 감식'이라더니 스님께서 차려 주신 공양이 말 그대로 꿀맛이다. 이 또한 3천배의 공덕이려니 생각하니 뜰덩이처럼 단단해진 장딴지가 제법 대견스럽다.

다음 날 아침, 이불을 박차기가 쉽지 않았지만 천장에 친구들의 얼굴이 그려진다.

다시 만난 얼굴들이 푸석푸석하다. 얼굴의 부기 때문인지 눈은 더욱 퉁해 뵌다. 부처님 은덕으로 살이 찌 좋다고 한바탕 웃는 것으로 구호를 대신하고 출발, 부처님 앞으로.

배석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


그림 · 이준석

큰기술 PCS 016 세상-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사용요금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가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품질 통화품질이 다르다
전파는 방해없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제맛입니다. 국내최초로 PCS 업체중 시스템기술센터의 품질검증을 거쳤고, CDMA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룩한 PCS 016-33%기 한국통신의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기에 통화품질이 타 이동전화 회사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등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통화중 잡음현상, 혼선잡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2배 채널용량이 다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현재에 급급하여 아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온 국민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동전화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한 기지국 하나하나 마다 수용 채널수가 타 이동전화회사의 2배이기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넉넉하게 PCS016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국통화가 보인다
이땅의 곳곳을 누비며 축적된 등고선 자료, 전국의 도로지도, 인구통계, 건물자료 등 한국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PCS 016 -전국 어디서나 매끗한 감도로 통합니다.

97년 10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0%)

수도권	서울 전지역 인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하남 가평 강화 양주 양평 여주 연천 포천 화성 김포 광주 안성
강원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춘천 태백 간성 도계 묵호 삼척 임계 정선 홍천 횡성 속초 동산
충청권	대전 계룡 청주 공주 당진 보은 부여 서산 연기 영동 옥천 예산 천안 청원 태안 홍성 논산 금산 아산
경남권	경주 구산 김해 내원 마산 진주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밀양 사천 양산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울산
경북권	부산 대구 경산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포항 칠곡 경산 고령